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책임연구원 : 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춘화(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유의선(이화여자대학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성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연구 요약

연구목적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개념 정립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이용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현행 법·제도를 분석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제언 및 정책로드맵 제시

연구방법

-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관련법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연구결과

●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조사 결과, 97.37%가 댓글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인터넷 공간에 따라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가장 높았고, 1주 평균 3.68개 정도의 댓글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음.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명은 싸이월드가 47.9%로 가장 많았음. 청소년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는 동기는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동기로 이용하고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로는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으로 구분됨. 인터넷 댓글을 이용행태가 관계형, 방어형인 청소년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 소통하거나 자기표현 중심으로 댓글을 쓰고 있음. 반면에 의존형으로 댓글을 쓰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소통보다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관심 받는 것에 집중했음. 댓글을 쓸 때 익명형의 행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익명성을 통해 댓글로 상호간에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였음.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결과 피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사생활폭로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7명(4.2%), 공개적 모욕은 111명(5.5%), 성희롱 경험은 98명(4.8%), 개인정보피해가 80명(3.2%)으로써 평균 94명(4.4%)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명(3.4%), 공개적 모욕이 125명(6.0%), 성희롱이 67명(3.2%), 개인정보피해는 85명(4.0%)으로써 평균 87명(4.2%)이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간접경험의 경우, 타인이 타인에게 하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71명(30.4%), 공개적 모욕은 415명(22.0%), 성희롱은 504명(27.0%), 개인정보피해는 263명(13.8%)으로써 평균 438명(23.3%)이 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는 공개적 모욕(111명)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간접경험에서는 사생활폭로가 571명으로 가

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희롱, 공개적 모욕 순이었음.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경험 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댓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크게 행동·인식과 감정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생활에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고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등의 행동·인식 변화와 우울, 화가 나고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감정 변화로 구분되어짐. 특히 감정에 변화가 나타난 청소년들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는데 부분적인 실명제보다는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동기는 관심이었고, 감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는 상호소통이었음. 또한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행태는 의존형이었고,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행태는 방어형, 관계형 이용행태로 나타남. 즉, 관심을 받기 위해 댓글을 쓰다가 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은 행동·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댓글을 쓰다가 피해를 받은 청소년은 감정에 변화가 있었음. 또한 댓글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의존형 이용자들은 피해를 받은 후, 행동·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방어형, 관계형 이용자들은 댓글로 피해를 받은 후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음.

- 인터넷 댓글 이용에 관한 사회적지지, 자아상, 인터넷의존과 인터넷 댓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댓글 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동기가 높았음.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댓글로 피해를 입은 후 감정 변화가 나타남.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소통하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고, 댓글에 집착하고 의존하거나 댓글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익명으로 댓글을 쓰지 않았음. 인터넷 댓글로 피해를 당한 후에 자아상이 부정적일수록 행동·인식과 감정에 변화가 나타남. 인터넷의존이 높을수록 댓글을 통해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를 표현하려는 동기를 갖고, 댓글로 타인과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의존 정도가 클수록 댓글로 인한 피해 후, 행동·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댓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효과적일 수 있음. 피해 청소년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그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임.
- 각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신고' 꼭지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면 효과적일 것임. 악성 댓글을 발견한 청소년 피해자가 '신고' 꼭지를 누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여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장치 마련
-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명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악성 댓글의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수사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악성 댓글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을 들 수 있음.
- 인터넷 개인식별장치(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가 악성댓글 방지를 위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본인 확인 실명제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도용을 방지하는 장치는 될 수 있음. 하지만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는 부족한 점이 있음.
-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과 성숙한 의사표현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1년 중 5일 정도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으로 정하여, 전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을 교과 과정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가정과 학교, 단체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미디어 교육)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등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함.
- 현재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4개~5개 정도의 복수 아이디(ID)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를 '1인 1아이디(ID)'로 줄일 필요가 있음.
- 정부기관, 언론사, 인터넷 기업 등이 참여하여 자기가 올린 글에 대

- 해 책임지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정화 캠페인 진행
- 포털사이트 등 게시판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인터넷사업자에게도 언론에 부여하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여 회원이 악플 게재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도 제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인터넷 공간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무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무작정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네티켓 또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

목 차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및 절차	6
1) 문헌연구	6
2) 조사연구	7
3) 법·제도 및 정책 사례조사	7
4)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7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	11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및 사례	13
1)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13
2) 사이버상 인권침해 사례	16
3.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현황	27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선행연구	31
1) Web 2.0과 인터넷 댓글의 개념	31
2)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원인	34
3) 인터넷 댓글 선행연구	40
4) 인터넷 댓글의 권리침해 현황	45

III.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1. 조사개요	53
1) 연구대상	53
2) 측정도구	56
3) 연구절차	62
4) 자료분석	69
2. 조사결과	70

1)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70
2) 인터넷 댓글 이용 현황	72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	83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95
5)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인권침해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108
6)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대책 ..	124
7) 청소년이 생각하는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해 개인 및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	130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법제	
1. 인터넷 댓글 현황과 이슈: 정의, 기능, 본질을 중심으로 ..	137
2. 인터넷 악플 관련 법규의 해석	140
1) 헌법적 해석	140
2) 민·형사법적 해석	142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5
3.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149
4. 소결	158
 V. 결론	
1. 주요 결과	165
2. 정책제언	169
1) 법·제도적 대책	169
2) 기술적 대책	173
3) 사회문화적 대책	173
4) 가정에서의 대책	178
5) 학교에서의 대책	181
 VI. 참고문헌	185
부 록 I 청소년 인터넷 댓글 설문조사지	195
부 록 II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조사지	213
부 록 III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내용	219

표 목차

<표 II-1>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상담서비스 피해내용별 통계	29
<표 II-2> Web 1.0과 Web 2.0의 특성	32
<표 III-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4
<표 III-2> 심층면접조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55
<표 III-3>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60
<표 III-4> 표본할당 기준표	63
<표 III-5> 표본수	63
<표 III-6> 인터넷 1주일 평균 이용시간	70
<표 III-7> 인터넷 용도별 1~3순위	71
<표 III-8> 인터넷 의존 집단별 차이	71
<표 III-9> 성별에 따른 인터넷의존 차이	72
<표 III-10> 인터넷 댓글 이용유무	73
<표 III-11> 인터넷 댓글을 쓰는 인터넷 공간에서 1주 평균 이용횟수 및 정도	73
<표 III-12> 인터넷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및 게시판	74
<표 III-13>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항 목별 댓글 이용정도	75
<표 III-14>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84
<표 III-15>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대한 요인분석	87
<표 III-16>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요인과 댓글 이용행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94
<표 III-17>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가 댓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94
<표 III-18> 피해-가해-간접경험 빈도분석	96
<표 III-19> 인터넷 댓글 상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유형별 피해-가 해-간접경험 빈도분석	97
<표 III-20>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항목별 평균	102
<표 III-21>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분석	102
<표 III-22> 사이트별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	105

〈표 III-23〉 사이트 특성에 따른 실명제 희망정도와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105
〈표 III-24〉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가 피해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 ..	108
〈표 III-25〉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가 피해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 ..	109
〈표 III-26〉 성적별 집단 간의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의 차이 ..	110
〈표 III-27〉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간의 상관관계	111
〈표 III-28〉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 ..	112
〈표 III-29〉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간의 상관관계	113
〈표 III-30〉 사회적지지와‘피해 후 생활변화’간의 상관관계	114
〈표 III-31〉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	114
〈표 III-32〉 청소년 자아상에 대한 요인분석	117
〈표 III-33〉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요인과 자아상 요인 간의 상관관계 ..	118
〈표 III-34〉 자아상 요인이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 ..	119
〈표 III-35〉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요인과 자아상 요인 간의 상관관계 ..	120
〈표 III-36〉 자아상 요인이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	120
〈표 III-37〉 자아상과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121
〈표 III-38〉 자아상 요인이 피해 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122
〈표 III-39〉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	122
〈표 III-40〉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	123
〈표 III-41〉 인터넷 댓글 피해 후 변화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	123
〈표 III-42〉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	124
〈표 III-43〉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 강도	125
〈표 III-44〉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에 대한 법의식과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127
〈표 III-45〉 인터넷 댓글을 통한 피해 후 일상생활 변화가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128
〈표 IV-1〉 최근의 주요 연예인 관련 악플 일지	138
〈표 V-1〉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로드맵 ..	183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절차도	8
[그림 II-1] 사이버 폭력 유형별 심각성 평가	30
[그림 II-2] Web 2.0 meme map	31
[그림 II-3] 상호작용성의 조작적 개념화	35
[그림 II-4] 익명성과 몰개성화가 집단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	37
[그림 II-5] 사이버 폭력 이유에 대한 견해	48
[그림 II-6] 인터넷 댓글에 대한 견해	49
[그림 III-1] 연구모형	65
[그림 VI-1] 표현범주에 따른 헌법적 보호정도	14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및 절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요즘 10대를 일컬어 ‘인터넷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2.0세대’라고 부르고 있다(김호기, 한겨레 2008년 5월 14일 기고문). 인터넷에 나타난 Web 2.0의 기술적인 특징과 결부되어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개방’된 공간, 즉 열린 공간인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본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며, 카페, 토론방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다. 개방, 공유, 참여로 대변되는 Web 2.0이야말로 지금의 10대 청소년들이다.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수많은 정보유통 즉, 블로그, 인터넷게시판, 뉴스 포털 사이트 등에 대한 댓글 달기나 등은 청소년 생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으로서 오늘날 정보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그 보호가 절실한 권리이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의 인권침해문제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한편 대법원에는 인터넷에서의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인터넷에서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최근에는 유익한 정보취득원인 사이버공간이 각 정보에 대한 댓글달기, 게시판 글 올리기 등 사람들의 의견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좋은 글들이 올라와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정보의 교환과 토론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글을 올린 사람에 대한 비난, 정보나 기사에 대한 욕설담긴 평가 등 개인적 원한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글들을 올리는 피해

가 속출, 무분별한 댓글로 인해 불필요한 정보의 범람과 함께 인터넷 공간의 과부하를 초래하는 등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이 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자료에 꼬리말을 달 수 있는 경우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을 “악성 리플”의 줄임말인 악플이라는 신조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악플에 대한 영향력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 대표적 사례로는 개똥녀 사건, 임수경사건, 연예인 자살 동기가 악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련의 사건사고들로 인해 인터넷 댓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즉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미디어 이용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이들의 미디어 이용은 사회화의 중요한 일부분이다. 이미 청소년의 일상 속에서 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게 된 바, 무조건적인 규제나 비판보다는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의 맥락을 탐색해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를 연구대상으로 할 경우 연구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므로 문자와 언어를 통해 이용자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댓글로 제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즉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인터넷 댓글 문화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되는데,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변인 간의 관계파악을 중점으로 하는 분야, 심층면접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개념, 인터넷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가 청소년의 가치관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가해 및 피해 경험, 인터넷 댓글을 피해 후 생활변화 등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으로 1주일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용도, 인터넷 댓글 이용유무, 인터넷 댓글을 끄는 인터넷 공간 1주 평균 이용 횟수, 인터넷 댓글을 쓰는 사이트 주소, 게시판 종류,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사이트별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의식과 같은 변인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치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 예를 들면, 성별, 교급(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거주 지역,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 등 - 을 파악 하였다.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관련된 행위 변인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변인으로서는 댓글 이용정도,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 등이며,

이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성별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의 단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관련 구성으로 분석대상이 된 것은 (1)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2)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4) 청소년 자아상 등이다. 이것은 10~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응답에 따라 요인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구성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자아상,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변인들에서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각 구성 요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한 청소년들 견해를 심층 분석한다.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의 이용현황, 댓글 인권침해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문화,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다.

다섯째,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청소년 인권보호 대책을 모색하고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개회하였다([그림 I-1] 연구절차도 참조).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사

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인권보호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2) 조사연구

(1) 설문조사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44개교와 고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당 1개 학급씩 총 2,504명을 표집 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31일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404부였는데, 이 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48부를 제외한 2,3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2) 심층면접조사

2008년 7~8월에 걸쳐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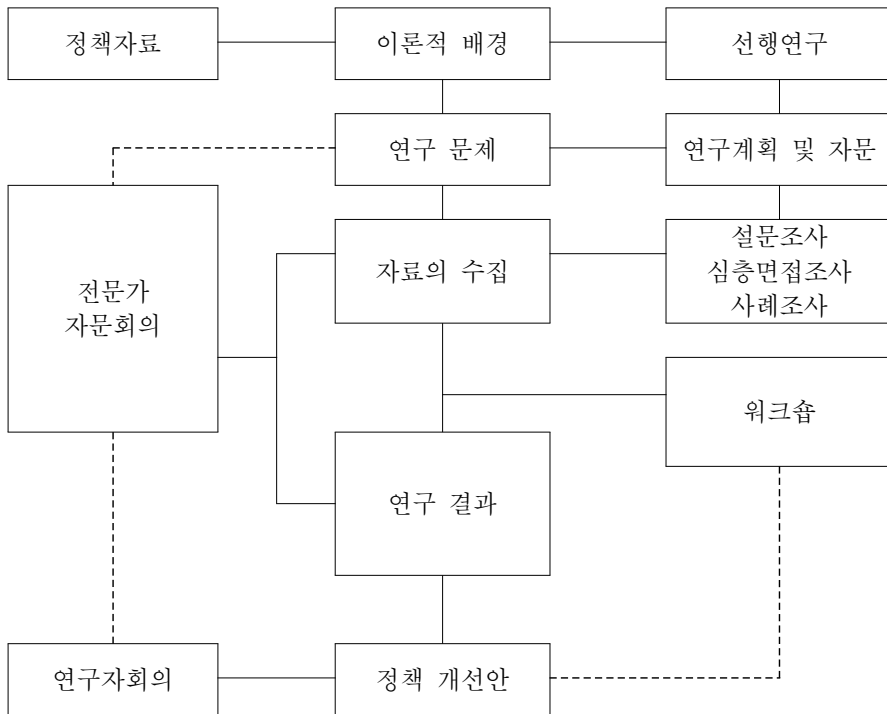
3) 법·제도 및 정책 사례조사

국내외 인터넷 댓글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의 정보화가 진전된 국가의 주요 행정기관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정책과의 비교 평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4)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개최

인터넷 관련 전문가 및 인권·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전문가 집단토의를 실시하는 한편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림 1-1] 연구절차도



Ⅱ .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과 사례
3.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현황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선행연구

II. 이론적 논의

1.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

이 연구는 사이버상의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는 아직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게다가 이를 청소년이라는 대상으로 한정된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이버상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다. 그 중에서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리켜 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 부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기본권을 인권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를 ‘인간의 존엄성’에 두고 기본권 실현의 방법적 기초를 ‘평등권’에서 찾으면서,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과 정신생활, 그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이는 반드시 해석을 필요로 할 만큼 우리의 개념감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다. 나머지 기본권들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든 생활영역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권영성, 2006).

다음으로 사이버의 개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축된 가상공간을 말하는데 통상 인터넷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청소년의 개념은 법령에 따라 기준이 다르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로부터 청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담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의 연령기준에 따라 만 19세 미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권침해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이다. 인권침해라는 개념 자체가 권리침해의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라는 개념에는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을 포함하기 어렵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는 가해자라 하더라도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자신에게 제공된 환경에 따라 행동한 결과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 역시 피해자로 규정해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해자인 청소년도 연구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이상 ‘사이버’, ‘청소년’, ‘인권침해’ 각각에 대한 개념 정의 외에도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과 청소년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인권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을 전제할 수 있다. ‘사이버상에서의 불법행위나 유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원하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사이버공간에서 유료로 서비스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존재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이들 사이버상에서의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청소년 인권침해가 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들 권리 중에서 소극적 권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나 유해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만을 연구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을 정의하면, ‘인터넷에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또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윤리적 가치의 침해이므로 사람의 명예나 성윤리, 사생활, 저작권 등 사이버공간에서 침해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는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침해의 내용을 불법행위나 유해행위로 제한하고자 하므로 인권침해의 주체도 국가나 단체보다는 이를 직접 사용하는 개인이용자가 주를 이룰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위는 19세 미만자로서 인권침해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다.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및 사례

1)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사이버스페이스는 무한한 자유의 공간이다.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어질 때 자율과 절제와 책임의식을 결핍한 인간은 일탈의 속성을 드러내기 쉽다. 이러한 인간 속성은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결합하여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사이버 일탈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인터넷의 속성 가운데서 익명성과 비대면성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얼굴 없는 복합정체성을 지닌 사이버스페이스의 인간들은 무한 자유의 공간 속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자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이버스페이스를 탐닉한다. 이러한 인간들의 행위 앞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인권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

인터넷이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990년대 초 많은 네티즌들이 가장 즐겨 생산하고 유통시켜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상한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의 범람은 이러한 인간의 일탈적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일탈현상의 피해자는 바로 청소년과 여성들이다. 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은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사이버상의 인권침해는 청소년과 여성의 인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사이버 범죄는 현실의 일반 범죄를 넘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범죄로 발전했다. 심지어 일반 대중들에 쉽게 행해지는 보편적인 행위로까지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행위를 개념화 혹은 유형화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이버 범죄, 불법행위, 사이버 폭력, 사이버 인권침해 등 유형화에 따른 개념도 아직 논의 중이다.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유형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손경한 외(2006)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현실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와 차별되는 ‘사이버불법행위’로 구분 지었다. ‘사이버 불법행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보호법익(legally protectible interest)과 위법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인식 미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은 국경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니며,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방치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사이버 커뮤니티상의 불법행위’와 ‘사이버 공간일반 상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로 구분하였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다른 사이버 공간보다 이용자의 정보가 부분적으로 공개되지만 그 외에는 사이버 공간마다 차이가 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인터넷 특성이 아닌 인간과 기술이 동시에 필요한 것을 가정하여 사이버 범죄를 유형화한 연구도 있다. 정태석·설동훈(2004)은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의 연구에서 Giddens(1991)이 주장한 안전 대 위해(danger), 신뢰 대 위험(risk)이라는 현대성의 양면성을 제도적 차원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유형을 재고찰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신뢰-위험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인터넷 망의 기술적 혼란에 따른 기술적 안정성과 정보보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이다(기술적 신뢰-기술적 위험). 다른 하나는 사생활을 정보의 유출 등에 따른 인간적 신뢰가 무너지는 위험이다(인간적 신뢰-인간적 위험). 사이버 범죄를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때, 크게 ‘기술적·체계적 범죄’와 ‘인격적·사회적 범죄’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네트워크의 물리적 안전을 훼손시키는 범죄라고 한다면, 후자는 의사소통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정태석·설동훈, 2004). 그러나 이런 유형은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구분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정대관(2003)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대한 유형을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공갈 또는 협박 등의 범죄 행위로 구분 지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 중에서 사이버 범죄라는 큰 테두리 안에 ‘사이버 폭력’에 관한 범죄는 해킹(hacking), 컴퓨터 사기(computer fraud) 등과 같은 기술적 범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Giddens(1991)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이버 폭력은 인격적·사회적 범죄에 해당하고, 해킹, 컴퓨터 사기 등은 기술적·체계적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익명성을 빌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특정 정당, 기업 등을 비방하는 행위는 인간적인 신뢰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

정완(2006)은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사이버모욕’,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게시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이버성희롱’, E-mail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글 또는 영상물을 발송하는 ‘음란스팸메일’, 인터넷상의 대화방,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성적 괴롭힘을 행사하는 ‘사이버스토킹’, 인터넷 대화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성매매를 유도하거나 알선·중개하여 10대 매매춘을 확산시키는 ‘사이버성매매’, 유명연애인의 몰래카메라 등 현실세계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유통시키는 ‘사이버음란물’ 등을 들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7)는 ‘사이버폭력’에서 그 개념을 확장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개인 혹은 집단의 권리 침해 형태를 개념화하였다. 사이버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를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4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이버 권리침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 명명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권리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 행위로 인한 발생하는 범죄들은 대부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형태로 나타난다. 개인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무차별적인 댓글로 인한 스토킹과 성적으로 수치감을 주는 성폭력적인 댓글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이버상의 청소년 인권침해 행위는 그 침해내용에 따라 명예·사생활·정신건강 등에 대한 침해, 성윤리에 대한 침해,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으로 유형화해볼 수 있으나 중첩되는 경우나 어느 곳에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허위사실·사생활 유포, 명예훼손
- 욕설, 폭언, 협박, 희롱, 모욕 등 언어폭력
- 스토킹, 토론방해 등

- 불건전 만남, 성매매 알선
- 사이버섹스, 성희롱, 성폭력 등
- 음란·폭력물 유포
- 자살조장
- 개인신용정보,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등 도용
- 사기, 사행심 조장
- 해킹, 전자문서 도용·변조·파괴
- 바이러스, 스팸메일 유포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 유형 중에서 인권과 직결되지 않는 ‘해킹, 전자문서 도용·변조·파괴’와 ‘바이러스, 스팸메일 유포’를 제외하고 사이버상의 인권침해와 관련이 깊은 나머지를 모두 연구내용에 포함하고자 한다.

2) 사이버상 인권침해 사례

사이버상의 청소년의 인권침해 유형을 크게 성, 폭력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은 하나의 정보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먼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과 관련된 인권 침해 유형에는 음란물 유통,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섹스, 사이버 매매춘,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들 수 있다.

사이버 상에서 폭력과 관련된 인권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의 악용을 이끔, 사이버스토킹, 온라인 희롱, 멸시하는 표현, 청소년관련 사이트의 침입 및 토론방해 등이 있다. 사이버 폭력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행복(신체적, 심리적, 감정적)에 대한 폭력을 이끌거나 구성하는 온라인 행동이다. 물리적 세계의 폭력에서 여성은 피해자이고 남성은 가해자이다. 2000-2001년에 보고된 온라인 폭력사례의 84%가 여성이 피해자이고, 64%가 남성이 가해자로 나타났다(WHOA, 2002).

(1) 사이버상의 성관련 인권침해 사례

① 음란물 유통

인터넷 음란물은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유린하는 표현행위로 지탄의 대

상이 되고 있다(Wallace & Mangan, 1996). 인터넷 음란물 유통은 음란물 제작에 등장하는 인간, 특히 여성청소년은 그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은 웹사이트에서 활성화된 활용가능성과 쉬운 접근, 극도로 노골적인 이미지를 노출하고 있으며, 비폭력적인 포르노조차도 여성을 인간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물상화한다. 따라서 남성들에게 여성을 물상화시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게 하고 성추행이나 성추동을 강화하는 등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불행히도 일부 여성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성적 이미지를 웹상에 올려놓음으로써 스스로를 성적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성윤숙, 1999).

최근 일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남자 고등학생 4명이 체포됐다. 18일 요코하마시에 사는 현립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16) 4명을 아동 매춘·아동 포르노 금지법위반(아동 포르노 제조, 공연전시)등의 혐의다. 이 남학생중 3명은 지난해 11월 1일, 일행 중 한 명의 집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불러 옷을 모두 벗게한 후 알몸을 휴대전화로 카메라로 촬영해 휴대전화 무료 게시판 사이트에 올렸다(중앙일보, 2008. 2. 18).

10~17살의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25%가 작년 한해 원하지 않는 포르노 이미지에 노출되었고, 이러한 이미지의 8%는 폭력, 섹스, 노출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숙제로 늑대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던 15살의 소녀는 우연히 늑대와 성교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Finkelhor et al., 2000).

음란 화상채팅 중에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서로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를 하는 등 음란한 장면이 많이 연출되고 있다. 화상채팅을 하며 실제 성행위 장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은 화상채팅 상대의 야한 장면을 잡아 인터넷에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다. 인터넷에 배포된 화상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며 사라지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다. 한 예로 제주도에 사는 한 여고생(“찌른다” 소속의 팸)은 PC방에서 인터넷 채팅에 접속하고 있었다. 팸들의 성화(?) 속에서 쇼를 하였다. 여기서 쇼는 자기 중요 신체 부위를 보이는 것을 말한다. PC방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그 팸방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과 같은 중요한 신체 부위를 아무 스스럼 없이 보인다. 어떤 고등학생은 자기 집에 놀러온 여자 친구하고 성관계 맺는 장면을 화상 카메라를 통해 팬들에게 보여주고 채팅을 통해 만나서 동거하는 사람도 있다(성윤숙, 2002b).

또한 음란성 스팸메일은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음란성 스팸메일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음란성 스팸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에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돈을 받고 이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보낸 혐의로 정모(15·대구 Y중학교 3년)군을 선도조건부로 기소 유예했다. 정군은 아버지의 ID로 인터넷에 “몰카”라는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한 뒤, 18일 동안 14명에게 빨간 마후라 등 음란물을 1만원씩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선일보, 1999. 9. 27).

②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이 널리 활용되면서 채팅으로 연결돼 만난 상대방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2년 상반기 성폭력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사례 2,216건 가운데 성추행·성희롱이 57.4%(773건), 강간·강간미수·특수강간이 39.5%(532건)를 차지했으며 그 중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가 51건이다. 이 경우 대부분 가해자들은 신분을 속이고 만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지속적인 성폭력을 가한 경우엔 화간을 주장해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가해자들이 오히려 피해자측을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있어 여성청소년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 수준에서의 욕망이 사회수준에서의 윤리의식에 의해 제어되는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욕망제어의 성공이나 실패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한 환경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심영희, 2002).

사이버 성폭력은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다. 사이

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지만,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문제인식은 매우 낮고, 피해자가 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전문 인력부족과 처리절차 및 법규의 미비 등으로 피해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를 추적해서 찾는 경우에도,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ID 도용에 의한 경우가 많아 처벌하기가 쉽지 않고, ID 사용정지와 같은 제재를 가하더라도 통신업체간에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통신업체에 가입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오경식, 1999).

사이버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주로 여성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특징인이 입은 피해 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이 공공연하게 통신공간에서 횡행할 때, 여성청소년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사이버 페미니스트들(Haraway, 1991; Balsamo, 1995; Braidotti, 1996)의 해방적 전망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여성이 소수화되는 불평등 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사이버 성폭력은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정보화로부터 여성청소년을 소외시키고, 여성청소년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성별 정보불평등이 아직도 채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 성문화를 현실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재현 양산시킴으로써, 결국 성간의 정보격차를 심화시키고,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해방적 잠재력을 남성 지배적 권력과 결탁하여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김은경, 2001).

③ 사이버 섹스

2000년 5월에 아틀란타에서 개최된 사이버섹스에 관한 학회(National Council on Sexual Addiction and Compulsivity)에서 Cooper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인터넷은 혁명화된 성의 도구이고, 마치 코카인 중독과 같은 성 강박증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 중 15%가 성 관련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이중 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 관련 사이

트를 매주 11시간 이상 보고 있다고 했다. 가정주부, 동성애자, 회사원 등 계층과 관련 없이 현실의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하이퍼섹추얼리티(hypersexuality)에 대한 강박증과 온라인 섹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익명성(anonymity)과 즉각적 만족(instant gratification)은 놀랍게도 포르노그래피를 방불케 하는 채팅룸의 온라인 대화에서 여성청소년의 온라인 성 활동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온라인 성 활동의 남녀차가 거의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병이나 성폭행과 같은 현실에서의 성 활동이 지니는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인터넷을 성적 표현과 호기심의 공간으로서 더 안전하게 보기 때문이다. 이는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여성청소년들도 온라인 상에서의 성적 활동 접근은 더 편하게 용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의 접근용이성(accessibility)이 준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에로틱한 대화를 음란사진을 보는 것보다 더 즐겼고 남성들은 나체가 등장하는 포르노그래피를 더 선호했다. 온라인 성 정보에 대한 강박적 집착은 현실에서의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섭식장애나 인격장애 만큼이나 강도가 강하다.

④ 사이버 성매매

인터넷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매춘 등을 알선하는 불건전 사이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게시판이나 대화방을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매춘 희망자를 모집하여 회원제로 매매춘을 알선, 안마시술소의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까지 생겨 여성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의 대부분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성매매 수단의 53.8%를 차지했던 인터넷 채팅을 통한 성매매는 지난해 12월 67.3%로, 다시 올해 7월에는 78.8%로 급증했다(문화일보, 2002. 9. 17). 서울가정법원 소년지원보호자협의회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2,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629명 가운데 496명(30.4%)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 제의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77명(15.5%)은 돈을 받고 성매매에 응했다고 했다(대한매일, 2002. 9. 12).

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기존의 ‘명예에 관한 죄’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예컨대 타인의 홈페이지나 기업의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리거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사진 및 합성물 등을 올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인터넷상의 채팅사이트에서 대화도중 행해지는 명예훼손도 이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주로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하여 행해지는데, 홈페이지 게시판은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글 올리기도 매우 쉽기 때문이다(정완, 2006).

최근에는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유명 여배우들의 사진을 포르노 배우들의 사진이나 성행위 장면과 합성한 음란물들이 종종 인터넷에 등장하여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몰카나 캠코더를 이용하여 만든 성 관련 비디오가 등장하여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를테면 O양이나 P양의 비디오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건은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사이버 폭력 관련 인권침해 사례

인터넷상의 심각한 폭력적이고 인신 공격적인 언어는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는 점과 함께 인터넷 공간 참여를 가로막거나 특정 계층을 소외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의 성비가 점점 격차를 줄여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여성청소년에게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환경이 눈에 띄는 개선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불거지는 단점들인 발화의 무책임성과 폭력성의 문제는 청소년에게 적대적인 인터넷 환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① 오프라인의 악용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접속

오프라인의 악용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접속으로 온라인 허위진술이 오

프라인 접촉을 악용하게 한다. 예를 들어 사기, 절도, 희롱, 강간, 구타 등이 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악용을 이끌 때 제기되는 이슈는 상대방을 속이고 진실의 왜곡으로 인한 배반감을 느끼게 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나는 인터넷에서 한 여자친구를 만났다. 우리는 몇 번 밖에서 만났고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불행히도 나는 그녀가 내내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줬고 그녀는 더 많은 거짓말을 했다. 지금 그녀는 감옥에 있고 나는 돈을 잃었다.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들은 내가 그녀의 과거를 체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www.whoisshe.com, 2002).

한 50대의 정신과 의사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오랫동안 젊은 여성 불구자인 Joan으로 행사했다. 컴퓨터만을 통해 의사소통함으로써 그 사기꾼은 몇몇의 여성들과 은밀한 친분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사실을 알고 난 후 여성들은 배신감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Joan과의 우정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했다(Herring, 2002).

오프라인의 악용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접속과 관련된 행위는 대부분 시시한 온라인 로맨스가 대부분이다.

② 사이버 스토킹

스토킹이란 원래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몰래 또는 공개적으로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가상공간에서도 나타나면서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였다. 사이버 스토킹은 온라인 모니터링, 누군가의 행동을 쫓는 일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위협과 오프라인 접촉으로 이끌려지기도 한다. 사이버 스토킹은 실생활에 이르기까지 연결되어 피해를 입히는 사생활 침해, 여성청소년들에게 위협을 준다는 문제가 있다.

사이버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WHO@의 회장인 히치콕은 매주 100건이 넘는 사이버 스토킹 사례를 접수하고 있고 이 가운데 95%가 스팸이나 소수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사이버 스토킹이 즉시 해결되지만 5~10%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거나 법적 강제 또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연령

은 18~30세가 가장 많았고 80%이상이 여성이다. 피해형태는 이메일(40.3%), 게시판/토론방(15.4%) 순이고 이밖에 채팅, 웹사이트, 뉴스그룹, 게임 사이트 등이다(Hitchcock, 2002). 또한 WiredPatrol¹⁾은 매일 55건의 도움요청을 받는다고 밝혔고, Safetyed.org²⁾는 매주 50건의 도움요청을 받는다고 했다. 보고되어진 사례만 매해 추산되는 피해자는 3만명 정도이고, 대략 온라인상에 5억이 넘는 사람이 있으며, 1%만이 피해자가 되어도 5백만 명이나 된다(Hitchcock, 2002).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채팅이나 만남 사이트의 게시판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성적 교제나 음란 행위를 유혹하는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로부터 음란성 전화를 받게 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로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권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신종 사이버 스토킹 범죄는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넘는 남자가 인터넷 개인광고란에 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그녀는 강간당하고 싶은 환상에 젖어 있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가 1998년 11월에 구속되었다. 그는 최고 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Raney, 1999). 이 사건은 인터넷 스토킹에 관한 첫 재판으로 주목받고 있다(안동근, 2002). 샌디애고 대학을 졸업한 Duwayne I. Comfort는 인터넷상에서 여학생들을 스토킹했다. Comfort는 인터넷을 통해 여성에 관한 정보를 사기 위해 한 교수의 신용카드를 이용했다. Comfort는 죽음의 위협, 그래픽 성적 표현, 여성의 하루 생활에 대한 언급들을 포함하는 대략 100개의 메시지를 보냈다.³⁾

사이버 스토키는 컴퓨터전문가, 해커,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닌 지킬박사와 하이드 신드롬을 가진 범죄기록이 없는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이버스토킹을 하는 이유는 익명으로 별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인터넷을 그들을 화나게 하거나 집착해 있는 대상을 괴롭히거나 스토킹하는 새로운 매체로 여기며, 미국 수정헌법 제 1조의 표현의 자유 뒤에 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이버스토킹

1) www.wiredpatrol.org

2) www.safetyed.org

3) www.une.edu/courses/law357c/cyberprojects/spring00/cyberstalking

사례는 대부분 시들해진 연애사건과 관련되지는 않았고, 일부의 웹과 네트워크는 괴롭힘의 수단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나이와 민족에 상관없이 누구나 될 수 있고 전형적인 피해자가 없다.

사이버스토킹을 하다 발각되었을 스토키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누군가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러한 결과까지 갈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호소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그들을 괴롭히거나 스토키한다고 주장한다. 스토키들은 피해자가 낸 민사소송에서 구류와 벌금(39개주에 관련법안 있음), 인터넷 사용 혜택을 잃는 것과 같은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Hitchcock, 2002).

③ 온라인 희롱

온라인 희롱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단어들, 몸짓,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놀라게하고 학대하는 행동이다(Black's Law Dictionary). 온라인 희롱은 요구할 때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 희롱과 관련된 행위인 혐오스런 발언, 심한 욕설, 모욕, 인신공격을 과격하게 하는 ‘악울리기(flamming)’는 여성이 남성보다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애, 2001; 윤영민, 2002; Herring, 1994) 이는 음담패설과 성적 메시지를 동반한다.

네티즌들의 약 10%가 사이버 성희롱을 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남성, 10대와 20대,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성희롱 가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이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배우자보다는 무배우자가 사이버 성희롱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음란사이트 방문경험, 사이버 성중독과 사이버 성희롱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네티즌들은 현실 성희롱 가해경험보다 사이버 성희롱 가해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이버 성희롱은 가상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권력적 동기와 성적 동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사이버 성희롱은 사이버공간에 특유한 인간활동의 성격-예컨대 역할놀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적(혹은 사이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현실 성희롱과 많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성희롱은 지배욕구가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권력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성적 욕구의 표출이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성적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윤영민, 2002).

Herring(1994)에 의하면 거의 모든 남성들은 대화 도중 ‘플레임’을 하며 이러한 플레임을 일반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이고 개인감정을 이입하지 않는 반면, 여성은 플레임을 받게 되면 개인감정이 이입되어 상처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도중 공격을 당하거나 자신의 메시지가 무시되어도 감정적으로 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거나 대화를 중단하는 방법을 택한다.

④ 멸시적 표현

멸시하는 표현들로 일반적으로 여성청소년을 향한 멸시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언어상이나 이미지 상에서의 여성에 관한 표현들이다. 여성비하적인 메시지는 여성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한다.

공개 게시판에 여성이 올린 글이나 여성관련 이슈에 대한 무자비한 반박과 공격적인 메시지의 게시를 말한다. 일례로 여성특위의 홈페이지에 여성비하와 음담패설 또는 궤변-‘변태’, ‘음란 사이트’, ‘여자는 발가락의 때’ 등의 제목으로-이 일부 남성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1995년 Rob Touns라는 미국인이 “Based on the Web”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그 사이트는 웹상에서 여성 프로페셔널과 여성 학자들의 포르노에 대한 불법적인 링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은 Touns에 의해 자의적으로 성적 매력에 기반하여 순위가 매겨졌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연결되어진 여성들은 자신의 사진을 본 남성들에게서 무례한 요구들을 받고 매우 놀랐다(Spertus, 1996).

다른 예로 1995년 11월에 Cornell 대학의 4명의 남자 대학생들에 의해 이메일 메시지가 인터넷에 퍼졌다. 이 메시지는 왜 여자들이(년들이) 발언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지 75가지의 이유를 달고 있다. 내용은 “남성들이 길에서 휘파람을 불면 여성들은 입을 닥치고 순종해야 한다”, “멍청한 것들은 멍청하게 행동한다”, “만약 여자가 말할 수 없다면 강간에 대해 도움을 청할 수 없다” 등 남성우월적이고 폭력적인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다(Herring, 2002).

컴퓨터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젠더 차이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Herring(1994)은 CMC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드러나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의사소통의 ‘윤리’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헤링은 공격적이고 저속한 언어들을 접했을 때 남녀의 상이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남성들은 그러한 언어들이 토론과정에서 필수적이거나 혹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여성들은 이러한 언어로 인해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거나 토론장을 이탈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타인의 요구나 필요를 배려하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었으며 타인의 사회적 체면을 중시한 반면, 남성은 검열을 받지 않는 표현의 자유와 솔직한 주장을 더 중시하였고, 격렬한 논쟁방식을 지식추구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치는 정치적 자유주의와 서구 남성중심적 철학의 전통에 기인하며 이런 것이 초기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가들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열 받지 않는 표현 또는 언론(uncensored speech)의 개념은 외부의 권위로부터 해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할지는 모르나 이와 더불어 남성들로 하여금 플레밍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이 남성들에게는 참을만하거나 정당화되어지는 원리가 된다는 것이다.

⑤ 청소년관련 사이트의 침입 및 토론방해

청소년만이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나 청소년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원하지 않는 메시지의 불법적인 게시는 물론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을 교란하는 해커의 침입대상이 되어 운영상 치명적인 해를 입히고 있다. 게시판 중 폭발적인 게시물 등록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던 공간은 청소년관련토론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사이버 시위로 드러나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가 결과적으로 여성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폭력적인 게시판 문화로 이어진 아이러니를 뒷받침해준다.

게시판을 다운시키는 사이버연좌시위(리로드를 동시에 계속해서 누르는 것)와 게시물을 다량으로 쏟아내 네티즌 여론의 ‘힘’을 보여주는 지금과 같은 형태는 사실상 현실에서의 시위 방법론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

과하다. 또한 대화방에서 청소년들의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도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인에 의해 성적 희롱이나 대화의 흐름을 독점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안적인 체제로서 청소년만으로 운영되는 가상 커뮤니티가 등장하고 있으나 청소년 ID를 도용한 성인의 침입사례로 인하여 진지한 대화를 유지하기란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한다(Shade, 1996).

3.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현황

초고속 인터넷 보급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유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개인정보가 누출·도용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 욕하는 등 심각한 권리침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심각성을 감지한 정부는 2007년 7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시행하였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이버권리침해로부터 인터넷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설치하였고, 주요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이용자가 게시글을 작성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도를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하지만 1995년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규정이 처음 생긴 이후로 컴퓨터 관련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컴퓨터 기술 발달과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가 보편화되면서 관련 범죄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 같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연구는 불과 3~4년 전부터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점점 권리침해 수위와 그 행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 비방과 욕설 이상의 성적인 모욕과 집요한 스토킹도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댓글을 통해 행해지는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의 무제한성, 즉시성, 전파성 등에 의해 현실보다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사이버 모욕은 사이버 상에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욕설이나 부적절한 표현 등으로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반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달리 사이버 모욕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공개된 게시판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상스러운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는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311조가 적용된다.⁴⁾ 이런 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네티즌들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각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과 모욕은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모욕의 경우, 사회적 평판을 깎아 내리는 가치판단을 지목해서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이다(김성천·김형준, 2001). 대부분 개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모욕과 달리 사이버 모욕은 인터넷 상에 글로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인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지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인터넷 상에서의 흔히 발생하는 모욕적인 댓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즉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와 이에 대한 처벌이 달라져야 한다(이재진, 2007). 이런 견해와 달리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 상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찬동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강동범, 2007). 인터넷의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지만 처벌 규정만을 강화한다고 하여, 인터넷 상에서 범죄행위가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이다.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를 강화하거나 인터넷 윤리교육이 시급하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은 공중과 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고 규정한 바 있다(방승주, 2002). 법으로도 인터넷은 불온통신이 아니며, 대중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즉각적인 여론을 형성

4) 형법 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모욕죄 규정이 있다.

시킬 수 있는 매체임을 인정한 것이다.

〈표 II - 1〉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상담서비스 피해내용별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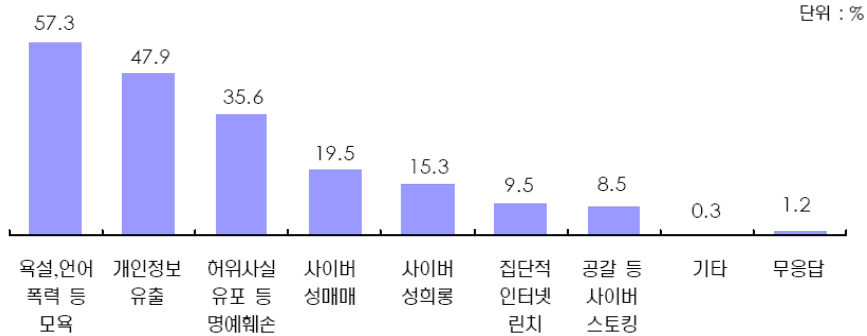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계	피해내용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2001	1,054	278(33)	204	22	550
2002	3,616	1,248(115)	224	53	2,091
2003	4,217	1,916(894)	557	95	1,649
2004	3,913	2,285(979)	322	81	1,225
2005	8,406	5,735(1,802)	889	193	1,589
2006	7,050	4,751(1,641)	968	184	1,147
2007	5,599	3,780(1,257)	392	186	1,241
합계	33,855	19,993(6,721)	3,556	814	9,492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현 방송통신위원회), 2007

하지만 <표 II - 1>과 같이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표현이 난무하여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실시되었지만 관련 법정 소송이 본격화된다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불법행위 예방에 기여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한겨레, 2007. 8. 26). 오히려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작용성과 익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되며 과도한 규제가 불필요한 소송을 만들 수 있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규제를 더 이상 강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이양수, 2007).

[그림 II-1] 사이버 폭력 유형별 심각성 평가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5

따라서 [그림 II-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덕적 윤리를 보완한 인터넷 윤리가 필요하다. 정진욱(2006)은 ‘기존은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 주로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 동기나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인터넷 특성상 행위 동기나 의도와 똑같이 그 결과를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인터넷 상에서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낳게 되었을 경우, 그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막을 권리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교육’은 너무나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인터넷 닷컴 회사들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시점에 구글, 야후, 아마존닷컴 같은 기업들이 성공한 생존 기업으로 주목 받았다. O'Reilly는 성공한 기업들 사이에 발견되는 공통점과 생존전략을 Web 2.0으로 지칭하고 [그림 II-2]와 같이 도식화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각종 사이트에 남기는 꼬리, 흔적(long tail)으로 표현되는 댓글이다.

Web 2.0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의 도식을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위의 열거된 기술적 특징들은 Web 2.0의 대표적인 특징들으로써, 국내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술 중심이었던 1.0에서 사람 중심의 2.0으로 발전하면서 기능적인 댓글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댓글과 여론을 형성하는 댓글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2> 참조). 예를 들어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1천만 가입자가 넘는 싸이월드 미니홈피는 상호작용성에 기반을 두고,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표 II -2> Web 1.0과 Web 2.0의 특성

구 분	Web 1.0	Web 2.0
기본 특징	미디어로서의 웹 상호작용성이 낮은 정적인 웹 기술 중심	플랫폼으로서의 웹 상호작용성이 높은 동적인 웹 사람 중심
관리방식	하향식(top down)	상향식(bottom up)
커뮤니케이션 관계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사람과 사람
정보탐색 방법	검색과 브라우징	출판과 가입
콘텐츠 구조	문서, 페이지	꼬리표 달린 개체 (tagged objects)
애플리케이션 구조	폐쇄적, 독점적	개방적, 표준에 기반
기술	Html, Active-X 등	XML, AJZX, Tagging, RSS 등
사례	하이퍼링크 중심의 기존 웹 사이트	Wikipedia, 구글(AdSense), 야후(Flickr.com, del.icio.us), 네이버(지식인), 싸이월드(미니홈피) 등

자료 : 김강민(2006)

김강민(2006)은 2.0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개방성으로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되는 데이터를 이용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동·수정이 가능하다. 둘째, 2.0에서는 정보와 정보 간의 연결, 즉 사람과 사람 간의 사회적 연결성이 강화된다. 셋째, 참여지향성 및 상호작용성으로 정보가 개인의 참여와 이용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며,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와 이용자 집단의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Web 2.0이 ‘개방’, ‘공유’, ‘참여’로 압축되어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 인터넷 댓글이다. 인터넷 댓글은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가 타인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글이다(박진애, 2006; 조국현, 2006; 조수선, 2007). 흔히 댓글, 꼬리글, 리플(reply)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상에서는 댓글과 함께 답글(Response Message), 댓글, 리플(Reply), 코멘트(Comment), 꼬리말 등 다양한 유사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다. 답글 ‘대답하는 글, 상대하는 글’이라는 의미를 댓글과 댓글을 포괄하고, 댓글은 특정 게시물의 본문 아래에 첨가된 부수적인 내용으로 제목이나 목록없이 본문만 있는 형태를 지칭하는 말이다.

리플은 대답의 영어 단어인 리플라이(reply)의 변이형으로 게시판에 올린 글에 답에 달아주는 일이나 메일에 답장을 하는 일을 의미이고, 코멘트(comment)는 한 줄 답변 정도로 한 줄 길이의 짧은 글, 느낌, 감상, 생각 등을 적은 것이고 꼬리말은 게시말의 끝에 글쓴이의 생각이나 정보, 또는 서명 등을 적어 놓은 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댓글이 대중적으로 널리 인지됨에 따라 점차 댓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댓글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인터넷 무대에서 댓글의 이용되어지는 무대에 따라 구분하자면 크게 뉴스 공간의 ‘기사 댓글’과 각종 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의 ‘게시판 댓글’로 나눌 수 있다(조국현, 2006). 기사 댓글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뉴스가 생산되어지는 온라인 방송사, 신문사,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 등에서 생산되어지고 있고, 게시판 댓글은 인터넷 토론방이나 특정 동호회의 카페, 클럽, 특정 사이트 등에서 형성되고 있다.

조국현(2006)은 댓글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게시물과 댓글 사이의 “상호 연관성”, 본문 텍스트에 붙는 일종의 “기생 텍스트적인 속성”, 본문

게시자와 댓글 게시자의 “대화적 텍스트 유형”, 메신저와는 구분되는 댓글의 비동시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즉흥적·비동기적 성격”, 이메일이나 메신저와는 달리 공개적인 공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공적·사회적 성격”, 총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2)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원인

(1) 이용과 충족

매스 미디어에서 Rosengren(1974)의 이용과 충족 이론은 보편화된 이론으로써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들의 행위와 그에 대한 만족감을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다. 이용과 충족 이론에서 원래 모델 핵심은 ‘욕구(needs)를 문제로써 인식하고, 문제에 대해 숨어 있는 해결책을 수용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읽고, 단순한 재미나 문제 해결을 위해 댓글을 다는 행위는 대중의 넓은 스펙트럼에 의해 인터넷 사용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는 행위이거나 단순한 놀이 같은 유희 이론(ludenic theory)의 결과물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Morris & Ogan, 1996). Rafaeli(1986)는 인터넷에 있어 전자게시판 기능을 인터넷의 근본적인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용과 충족 이론의 접근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터넷은 이용자의 직장 과 집에서 업무적이고, 유희적인 기능을 갖춘 미디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과 충족의 포괄적인 특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현대 패러다임의 중요성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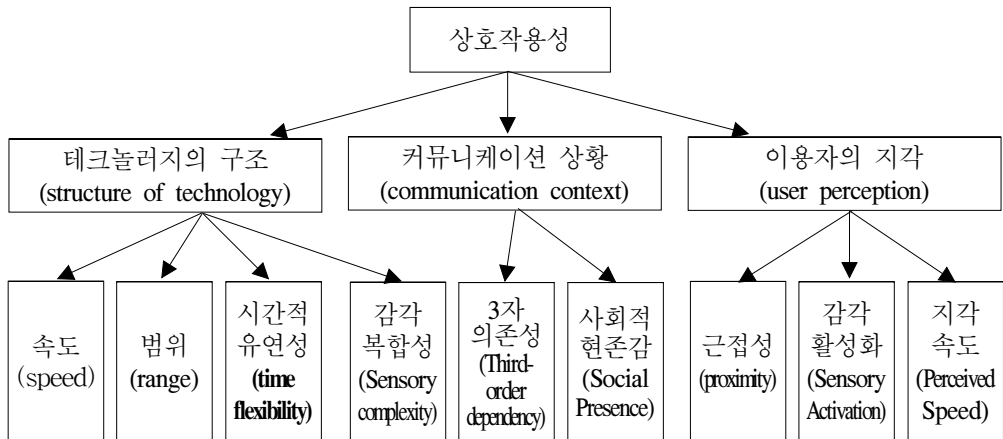
(2)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Morris & Ogan(1996)은 인터넷이야말로 기존의 TV, 라디오, 잡지 등과 차별되는 특징으로 상호작용성을 꼽았다. 상호작용성은 Rafaeli(1988)가 대인상호 커뮤니케이션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념화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같은 뉴 미디어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주장은 타당성을 얻었다. 그가 정의하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3가지의 타당한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쌍방향(two-way)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되고, 반응(reactive or quasi-interactive)

이 오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단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Rafaeli가 정의하는 상호작용성은 과정 지향적 개념(process oriented concept)으로서 좁게 이해되었다는 지적이다(권상희, 2007). 메시지들 간의 연속적인 관계 정도가 아닌 상호작용성의 빈도, 범위, 중요도 등도 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Heeter(1989)는 상호작용성을 멀티미디어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라고 판단하여 매체 이용자의 다양한 선택, 매체 이용자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 정도와 매체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정도,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등 6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에는 내용상 상호작용과 대인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상 상호작용은 정보이용자들이 기술적으로 내용을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를 가리키며, 대인적 상호작용은 뉴스 수용자가 미디어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Massy & Levy, 1999). 이보다 더 심층적으로 Kiouisis는 상호작용성을 조작적으로 개념화였다.

[그림 II -3] 상호작용성의 조작적 개념화



자료 : Kiouisis(2002); 안명규(2003) 재인용

Kiousis(2002)가 정의하는 상호작용성은 인터넷이라는 테크놀러지의 구조 안에서 자신의 의견인 콘텍스트를 3자 혹은 사회를 향하여 표현하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이용자가 콘텍스트에 근접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공감 혹은 반감 등을 표현하는 지각으로 연결되어진다.

기존의 댓글 기능은 인터넷 상에 게시된 특정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 대해 꼬리말을 쓰는 기능으로 자신의 ID 혹은 필명, 부분적인 IP주소 공개가 되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댓글 기능이 진화하면서 댓글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형성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토론방이나 인터넷 신문에 달린 수백 개의 댓글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하는 논리를 펼치거나 새로운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댓글은 대화방과 같은 즉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나, 게시판에 부가되어 인터넷 게시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동시성과 쌍방향성을 보완하여 게시물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댓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등 다른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3) 익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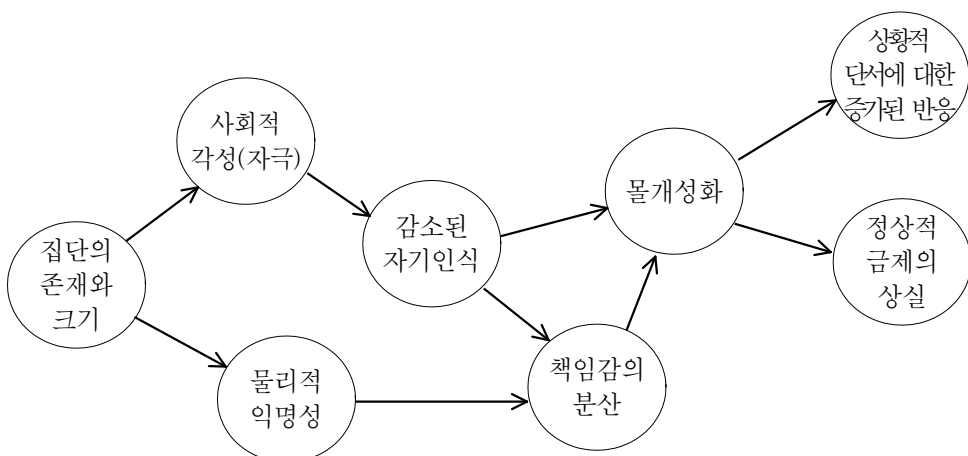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 없거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인터넷이다. 익명성이란 상대방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며 커뮤니케이션 당사자의 신분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Kizza, 1998). 익명성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수동적 익명성(passive anonymity)과 자신의 신분을 가장하는 적극적 익명성(active anonymity)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을 감추거나 가장할 수 있게 되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 상에서 익명성이 갖는 순기능을 꼽는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누구인지 모를 때 자신의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학진흥회(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는 인터넷 상에서 익명으로 하는 의

사소통에 대해 4가지 정책적 원리를 마련하였다. 첫째, 익명적 의사소통 그 자체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둘째, 익명적 의사소통은 강한 인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온라인 공동체는 익명적 의사소통의 이용에 관한 자체의 정책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은 인터넷 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되는 정도에 대하여 정보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Teich et al., 1999; 홍영두, 2005; 엄명용·김미량, 2007 재인용).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 익명성이 갖는 역기능도 있다.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을 저지르는 일탈 행위를 조장한다.

익명성은 순기능과 역기능과 같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는 일탈, 비행 등의 행위를 조장시킬 수 있는 잠재된 핵심요인이다. 엄명용·김미량(2007)은 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 의미의 익명성으로 한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실명이 아닌 ID 혹은 아바타와 같은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의도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그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댓글이나 욕설, 명예훼손, 비방하는 글을 남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성 아래 댓글을 다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몰개성화 이론이다.

[그림 II -4] 익명성과 몰개성화가 집단적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료 : Perry, 1998; 박정순, 2004 재인용

몰개성화 이론(deindividuation theory)은 대중에 숨어 익명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개인 심리적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이다. 우선 [그림 I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의 존재와 크기’(group presence and size)에 따라 ‘사회적 각성(자극)’(social arousal)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 익명성’(physical anonymity)과 맞물려 ‘감소된 자기인식’(decreased self-awareness)을 불러온다. 따라서 ‘책임감의 분산’(diffused responsibility)이 야기되고, ‘몰개성화’(deindividuation) 상태로 연결된다. 이러한 상태는 ‘상황적 단서에 대한 증가된 반응’(increased responsivity to situational cues)을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정상적 금제의 상실’(loss of normal inhibitions)로 이어진다(Perry, 1998; 박정순, 2004 재인용). 몰개성화 이론의 한 예로 많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고 복면이나 마스크를 함으로써 자신을 숨기고, 대범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몰개성화란 개인의 특성이 매몰되어 개인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사회규범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심리상태이다. 인터넷 댓글 생산에 대해 몰개성화 이론을 통해 설명하자면, 인터넷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ID, 닉네임, 아바타 등으로 자신을 숨긴다. 감소된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무책임에 가까운 소량의 책임감만 발생한다. 결국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이 감추어진 상태로 이미 형성된 대중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신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몰개성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구체적인 정보와 사실에 대한 지식 없이 댓글을 생산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만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은 매체 특성상 익명성의 효과가 증진되어 사회적 실재감이 감소하며(황상민·한규석, 1999) 비인격화된 의사소통을 야기할 수 있다.

(4) 동질성과 양극화

인터넷은 열린 공간이다. 수많은 개인과 커뮤니티들이 자신들의 색깔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동질적인 정보와 동질적인 사람과의 접촉으로 인해 협소한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되기도 한다. Smith는 “인터넷이 다양한 문화와 이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관심과 고민거리를 공유하

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전자적 그룹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Smith, 1999; 조동기 역, 2001 재인용). 소위 유사한 친구들이 모이는 ‘끼리끼리’ 혹은 커뮤니티 문화를 일컫는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에서 2개의 대립된 의견으로 나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의견이 극화되는 양상은 오프라인 상의 집단 간의 갈등이 극화되는 양상과 유사한 점이 많다. 연고전이나 한일전 등과 같이 집단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규범을 실제로 보다 더 극화시켜 지각하고, 극화된 규범에 동조하여 자기 집단 규범 쪽으로 양극화가 일어난다(나은영, 2002; Price, 1989; 나은영, 2006 재인용). 이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서 집단 간의 대립 혹은 극화 과정을 설명하기에 유용한 이론은 바로 사회적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이다.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 한 개인이 개인적인 자아(personal self)를 갖지 않고, 공동체 일원으로써 넓은 범위에서 일치되는 여러 개의 자아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적 정체성 이론은 ‘외부로의 집단 확장에서, 집단 내부(in-group)를 지지하는 방법을 통해 집단 일원들이 내부적으로 유형화되고 강화된다’고 주장한다(Tajfel & Turner, 1986). 다시 말해, 사회적 정체성이란 ‘개인이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지각함으로써 획득되어진 개인의 자아개념’이다(Hogg & Vanghan, 2002).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에서 물리적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이 몰개성화되어 집단의 정체성만을 부각될 경우, 극화 현상은 심해진다. 인터넷 안에서 집단의 정체성이 뚜렷해질수록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이다. 개인이 관리하는 E-mail이나 미니홈피, 블로그에서 일어나는 갈등 수준은 대체로 개인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인터넷 토론방의 게시판이나 댓글, 온라인 뉴스에 대한 댓글 반응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인 간의 갈등에서 집단 간의 갈등으로 변질 가능성이 많다. Daum의 아고라와 같은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서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상대방(혹은 상대집단)을 비방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하여 자신(혹은 자신의 속한 집단)의 의견을 고수함으로써 갈등 양상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억눌려 있던 욕구가 ‘책임감 분산’으로 탈억제

(disinhibition)되고, 가상 세계에서 분출되어 동질성 집단을 형성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비대면적인 익명성 아래 가능해진 것이다.

(5) 자기표현과 존재감 확인

참여와 개방으로 대표되는 웹 2.0 시대는 인터넷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다. 네티즌들은 인터넷에서 제공된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댓글을 통해 정보를 생산하고 새로운 놀이문화를 형성하는 등 정보의 생산과 소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자 한다.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쓴 댓글에 대한 공감과 반응을 확인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등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댓글을 사용한다.

사회학자인 Goffman에 따르면 사람들은 두 가지 행동 범위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전면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후면행위라 하였다. 전면행위는 공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위로 공개성이 매우 높은 행동인 반면, 후면행위는 개인적인 행동을 말한다. 특히 컴퓨터에서는 전면행위와 후면행위가 모두 가능하여 네티즌들은 이러한 컴퓨터 특성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행동 범위를 결정한다. 결국 자신에 의한 행동 범위의 결정방식은 인터넷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3) 인터넷 댓글 선행연구

2006년 1월 25일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에 달린 회원들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0.25%가 전체 댓글의 50%를 생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6년 당시 네이버 이용자수는 하루 평균 120만 명이었는데 댓글을 쓰는 네티즌은 3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전체 뉴스 서비스 이용자의 0.25%가 전체 댓글의 50% 가량을 쓰고 있으며, 0.06%인 750명 정도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 전체 댓글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프레스리안, 2006. 1. 25; 중앙일보, 2006. 3. 6).

댓글문화의 긍정적인 기능은 공론장 형성(52.8%), 정보교류(39.4%), 제한적인 역기능(24.8%), 의견교류(23.6%), 여론형성(22.8%)이고, 부

정적인 기능은 악성 댓글(80.8%), 명예훼손(54.2%), 무분별한 댓글 난무(49.8%), 여론 왜곡(43.2%) 등으로 나왔다(디지털타임스, 2007. 2. 1).

댓글 특성의 대표적인 것은 상호작용성이다. 김병철(2004)은 인터넷 신문 상에서 댓글을 통해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징이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상적인 토론의 모습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접근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신문 댓글 상호작용성 정도와 토론 내용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공론장 개념을 지향하기 보다는 토론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반드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공론장을 이성적 측면과 탈이성적인 측면이 혼재하는 포스트 모던적 공간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달그린(Dahlgren, 1995)과 포스터(Poster, 1997)의 견해를 지지했다. 연구 결과, 토론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성 정도는 1인칭 복수, 반말, 욕설, 온라인 행동 표현 메시지 비율과 정방향의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상호작용성 정도와 합의 혹은 동조 표현 메시지 비율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특성과 인터넷 신문 댓글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인터넷 상에서 댓글은 뉴스 게시판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김은미·선유화, 2006; 정일권·김영석, 2006; 조수선, 2007; 안종묵·박광순, 2007). 댓글 이용자들은 포털사이트나 신문사 사이트 등에서 뉴스를 접하고 있었고, 댓글을 통해 특정 뉴스의 내용을 지지하고, 혹은 비판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기존의 댓글 관련 연구는 인터넷 뉴스에 나타난 댓글에 관한 이용자들의 특성과 댓글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김은미·선유화(2006)는 ‘댓글이 달린 포털 뉴스와 댓글이 없는 포털 뉴스 간 기사에 대한 평가가 수용자로 하여금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이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댓글의 품질과 기사에 대한 수용자의 태도(긍정적, 부정적)로 나누어서 총 4가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결과, 해당 뉴스에 대해 질이 높은 댓글과 낮은 댓글 간에 정보획득과 동의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댓글에서 정보 획득을 하거나 댓글에 동의하는 것에는 인식했으나, 댓글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보통수준을 나타냈다. 즉, 댓글 이용자들이 댓글의 품질에 따라 정보획득을 결정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사 대상에 대한 긍정적, 중간적, 부정적 3집단으로 구분하여 댓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한 결과, 기사대상에 따른 태도와 댓글의 태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기사 대상에 대한 집단별 차이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직까지 댓글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이자 수용자들에게 긍정적, 중간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하지만 댓글에 노출되었을 시, 댓글의 품질에 따라 ‘정보제공’이라는 영향을 줌으로 수용자의 견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연구이다.

위의 연구 결과에서 얻지 못한 결과를 정일권·김영석(2006)은 온라인 뉴스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영향력을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크다고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다. 댓글 읽기가 개인 의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댓글 정보가 사실로 믿어질수록 댓글 읽기가 개인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지지했다. 또한 댓글 의견과 실제 여론과의 일치성에 대한 태도 역시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이 미치는 효과 지각과 긍정적으로 상관된 결과를 보여주어, 댓글이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실제 여론동향과 일치한다고 믿어질수록 댓글 읽기가 개인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댓글 읽기에 대한 제3자 효과 지각 검증에서는 사회적 쟁점의 경우, 댓글의 진실성이 자신의 의견보다 남들에게 더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들이 올린 댓글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댓글 게시자의 성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조수선(2007)은 온라인 신문을 이용하는 댓글 이용자들을 정치적 주장형, 사회적 관찰형, 시민적 참여형, 자기미디어형으로 구분하였고 댓글 게시자의 성향을 댓글의 이용도와 이해도, 존중도로 나누었다. 정치적 주장형은 타협이나 절충의 여지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댓글이다. 사회적 관찰형은 기사의 주제나 해당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절충적으로 표현한 댓글이고, 시민적 참여형은 기사의 주제나 해당 사안에 대해 대안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댓글을 말한다. 자기미디어형이란 기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낚두리, 개인이나 기업

의 홍보성 글, 주제를 일탈한 인신공격, 괴담성 악플, 개인광고 등을 포함하는 댓글로써 댓글 공간을 마치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이용자들을 뜻한다. 연구 결과, 온라인 신문 이용자의 댓글 유형은 자기미디어형(38.6%)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정치적 주장형(33.6%), 사회적 관찰형(15.7%), 시민적 참여형(12.1%)로 나타났다. 댓글의 유형별 게시도는 정치적 주장형이 가장 높았고, 시민적 참여형, 사회적 관찰형, 자기미디어형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의 유형별 이해도는 정치적 주장형, 시민적 참여형, 사회적 관찰형, 자기미디어형 순으로 나타났다. 존중도는 시민적 참여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회적 관찰형, 정치적 주장형, 마지막으로 자기 미디어형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게시된 글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양질의 댓글임을 증명하는 좋은 결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사에 대한 이해도와 상대방에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시민적 참여형이 4가지 유형 중에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댓글 이용에 대한 현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인터넷 이용자의 댓글은 온라인 뉴스 게시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이한 점은 온라인 뉴스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신문사닷컴보다는 포털사이트의 뉴스 게시판 댓글 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이다(안종묵·박광순, 2007). 동일한 내용의 뉴스일지라도 뉴스를 이용한 이용자들 또는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작용은 포털사이트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의 경우 뉴스 내용을 메인 게시판의 중앙부분에 위치시켜 하이퍼링크를 통해 해당 뉴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포털사이트는 신문사닷컴보다 이메일, 블로그, 카페, 정보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월등히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뉴스 생산자인 신문사닷컴으로 뉴스를 제공받아 포털사이트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화면의 최상단에 위치한 뉴스와 이 뉴스 제목과 같은 크기로 배치된 뉴스를 메인뉴스로 취급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뉴스를 비메인 뉴스로 취급하였다. 신문사는 조선, 동아, 중앙 3개의 신문사닷컴과 네이버, 다음, 야후 포털사이트 3개를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메인뉴스와 비메인 뉴스의 차이는 포털사이트와 신문사닷컴 모두 메인뉴스가 비메인 뉴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털사이트가 신문사닷컴보다 관련 뉴스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하이퍼링크 서비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뉴스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에 이어 댓글도 메인뉴스에서 훨씬 많았고, 포털사이트 이용자들의 댓글 수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는 기존 뉴스 생산자를 통해 형성된 저널리즘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재구성자에 의해서 새롭게 온라인 저널리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기존 연구가 대부분 온라인뉴스 게시판에 한정되었다면 백주진(2007)은 네티즌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 주목하였다. ‘대기업 김00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이라는 특정 이슈에 대하여 Daum 토론방에 올려진 ‘의견 글(게시 글)’과 ‘댓글’을 각 특성별로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른 익명성, 상호작용, 비방성 언어 사용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의견 글은 논리적 주장과 단순 주장, 기타로 구분하였고, 댓글은 단발형, 동조형, 반박형, 논쟁형, 수렴형, 혼란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의견 글의 대부분은 논리적 주장이 아닌 단순 주장이었고, 절반 이상이 상호작용이 없는 단발형 게시물로 나타났다. 비방성 언어 유형에는 의견 글에서 댓글보다 심한 욕설과 단순 욕설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명을 이용한 의견자의 글에서 논리적 주장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글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 뉴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포털사이트의 토론방에서 의견 글, 댓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시켜나가고 있다.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은 최근 이용자들의 표현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김종길(2006)은 시민참여 미디어로서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인터넷 상에 토론 참여공간의 수가 크게 늘고 있고, 게시글의 구조가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시민들은 ‘사회적 맥락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한다. 하지만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이 사이버공론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많음을 지적한다. 익명성에 의해 오프라인보다 욕설을 쉽게 하는 온라인 게시판의 특성은 욕설을 더 많이 할수록 서로에 대한 관용성과

합의 지향성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뉴스 게시판의 댓글 이용자의 0.25%가 댓글 50%를 만들어낸다는 조사결과는 여론이 조작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안에서는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민주적이고, 성찰적인 공론장으로서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선부르다는 지적이다.

4) 인터넷 댓글의 권리침해 현황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려진 개인의견이나 뉴스, 자료 등에 꼬리말의 내용으로 악의적인 욕설이나 비방 댓글을 다는 것을 일컫는다. 악성 댓글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제재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제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권리침해에 대한 가이드 책자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주창하는 것은 익명성을 전제한 충동성과 공격성의 표현으로써 현상학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법학계에서는 댓글에 대한 가해, 피해 사례를 통한 법적 제재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네티즌들이 가져야 하는 인터넷 상의 윤리의식에 대한 고찰과 제언들이다.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해 연구 중 댓글 이용자들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난 연구는 ‘프로야구 인터넷 문자 중계 댓글에 나타난 네티즌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강효민·이장영(2006)은 댓글의 특성을 쌍방향성과 익명성으로 전제하고 프로야구 인터넷 문자 중계에 댓글을 계량적, 유형화된 질적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특성을 찾아냈다. 프로야구 두 팀 간의 대결 양상이었으므로 댓글로 응원을 하기도 하고 상대팀을 비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대팀을 비방하거나 상대팀을 응원하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을 때는 코칭 스태프를 비방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독특한 특징을 보였다. 인터넷 문자 중계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되어 네티즌들이 자신의 의사를 즉흥적, 충동적으로 댓글로 표현했다. 이는 자신의 비방 혹은 응원 댓글에 자신의

팀 혹은 상대팀의 반응·재반응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네티즌들의 즉흥적, 충동적인 성향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댓글의 즉흥적, 충동적 성격으로 인해 댓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욕설, 비방 등의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속출하여 댓글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정일권·김영석(2006)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제재에 대한 태도와 댓글 폐지론에 대한 태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견 형성에 있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응답자의 성향 중에 보수적이고, 정치문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을수록 댓글 폐지론에 호의적이었다. 악성 댓글이 만들어낸 중고생 자살, 연예인 자살 등의 사회문제를 지각한 응답자들의 공통된 의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05년 6월 지하철에 애완견을 데리고 탄 여성이 애완견의 배설물을 지하철 바닥에 떨어졌는데 제거하지 않고 역에서 내리자 이를 지켜본 한 사람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려 ‘개똥녀’ 사건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해당 여성의 신분을 알아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하고, 주인공의 홈페이지로 오해받은 미니홈피에 욕설을 남기는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개똥녀로 오인 받아 피해를 받았고, 해당 여성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므로 개인적인 인격까지 침해함으로 마녀 사냥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진애(2006)는 악성 댓글이 주는 피해가 온라인일지라도 오프라인 상의 사회 공동체 일원들이 활동하여 만든 문제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제재도 헌법상에서 기본권을 찾아 보호해주고, 그에 따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는 ‘트랙백⁶⁾ 기술’과 같은 기술적인 대응방안도 질적 개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악성댓글 신고제도, 작성자의 IP부분공개, 금칙어 설정

6) 트랙백(trackback)이란, 초기 블로그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으로 원격 댓글을 쓰고 이를 알려주는 기능이다. 기존의 답글과 댓글은 해당 게시판에 독자가 게시물을 읽고 난 뒤 답변이 감상을 적는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댓글은 해당 게시물 밑에만 남겨지지만, 트랙백은 개선된 기능으로써 다른 곳에 댓글을 남기는 기능이다. 즉, 트랙백은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 문서에 자신이 원격 댓글을 달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트랙백으로 작성한 글을 작성자 블로그의 새 엔트리가 되는 것이다(박진애, 2006).

등의 악성 댓글 방지책들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져야할 건전한 의사소통 문화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악성 댓글에 있어서 청소년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들인 경우가 많다. 가수 유니가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다가 자살했고, 몸무게 감량으로 유명해진 한 여고생이 지방흡입으로 감량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서 죽음을 선택한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중앙일보, 2007. 5. 16).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악성 댓글을 통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비방을 주는 동기 요인에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요인도 있겠지만 인터넷이 갖는 고유한 특성도 일조하였다. 인터넷의 일반적인 특성인 비대면성, 익명성, 시공간의 무제한성, 피해의 과대·광역성, 전문 기술성, 암수성은 사이버일탈을 조장하는 환경이다(이성식, 2003).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성은 의사소통시 상대를 덜 의식하게 만들고, 사회적 표현보다는 직설적, 노골적인 표현을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익명성도 자신이 노출되지 않는 인터넷의 특성이 무분별한 언어폭력이나 욕설과 같은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암수성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법적 제재를 힘들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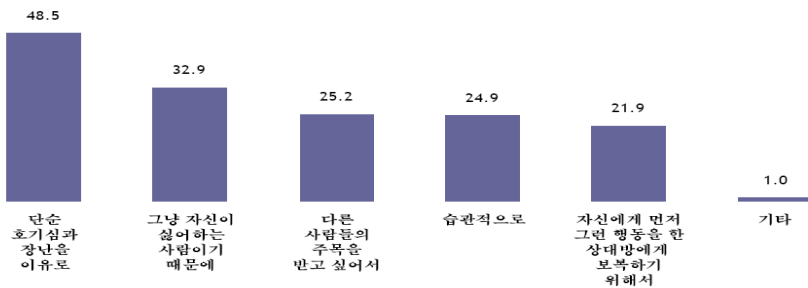
더욱이 미성숙한 청소년 시기에는 비행 동기가 다분히 많아진다. 청소년 시기의 우울은 사이버 비행의 직접적인 동기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성식, 2007). 부모와의 갈등,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쉼을 얻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의 표현의 자유를 느낀다. 하지만 부정적인 환경에 무분별한 노출은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성, 충동성을 지나치게 자극시켜 고립감, 우울감을 유발시킨다(어기준, 2000).

사이버폭력을 접하는 대상으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가장 높은 것(39.8%)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채팅(32.5%), 커뮤니티, 동호회 게시판(18.2%), 미니홈피, 블로그(15.6%), 게임 중에(7.8%)로 나타났다(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즉 댓글이 특정 대상에 대한 비난과 상업성에 찌든 악플 문화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2007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불법·청소년유행정보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질문에 ‘욕설, 비난의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유지해야 한다’(43.3%)는 의견이 우세였다. 또한 댓글 폐지 견해도 2006년에 비해

10%나 증가하였다. 특히 댓글 폐지에 대해 10대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많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댓글을 달기도 하지만 그 댓글에 의한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그림 II -5] 사이버 폭력 이유에 대한 견해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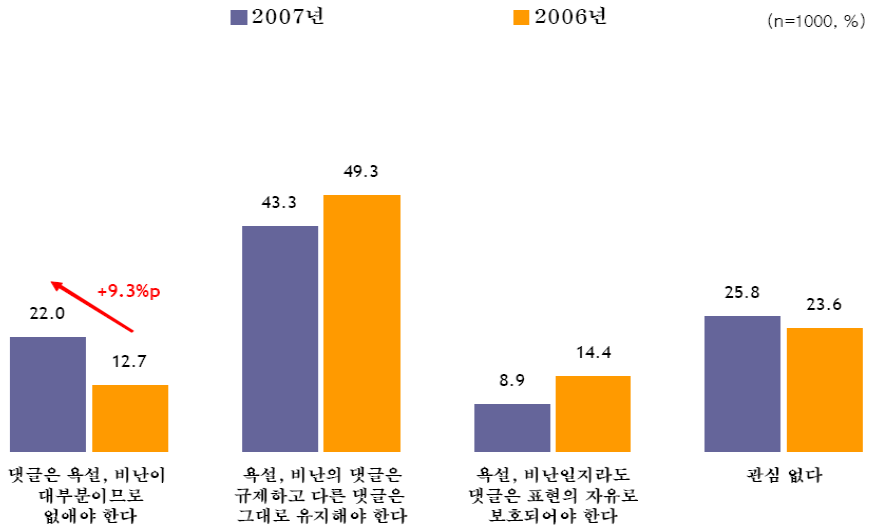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20·30대는 ‘욕설·비난의 댓글은 규제하고 다른 댓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젊은 연령층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는 인지했지만 댓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음을 반영한 결과인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인지했지만 그런 행위를 범법행위로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전체 응답자 48.5%가 악성 댓글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하는 이유로 단순 호기심과 장난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런 결과는 성인(53.8%) 연령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II -6] 인터넷 댓글에 대한 견해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7

Ⅲ.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Ⅲ.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

1. 조사개요

1) 연구대상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조사 대상은 남자 1,224명(51.95%), 여자 1,132명(48.05%)으로 약 1:1비율을 이루었다. 학제 구분으로 중학생은 314명(13.33%), 인문계 고등학생 810명(34.38%), 실업계 고등학생 1,232명(52.29%)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는 특별시 279명(11.84%), 광역시 1,324명(56.20%), 시·군 753명(31.96%)으로 이루어졌다.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추가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을 조사하였다. 경제수준별은 수준별로 3집단으로 구분했는데 본 설문지에서는 상위집단 2집단과 중위집단, 하위집단 2집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중위집단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집단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에서는 총 3개 집단으로, 상위 2개 집단, 중위집단 하위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잘 사는 편은 379명(16.09%), 보통 수준은 1,397명(59.30%), 못 사는 편은 426명(18.08%)로 나타났다. 성적별 질문도 설문지 상에서는 간격 및 서열 척도로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하지만 분석 상에서는 경제수준별 집단과 동일하게 상위 2개 집단과 하위 2개 집단을 묶어서 총 3개 집단으로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적 상위권 응답자는 706명(29.97%), 중위권은 756명(32.09%), 하위권은 742명(31.49%)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태도별로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는데, 민주적은 1,174명(49.83%), 독재적은 263명(11.16%), 허용적은 583명(24.75%), 방임적은 150명(6.37%)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부재,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는데, 아버지 학력에서 부재는 54명(2.29%), 중졸이하는 138명(5.86%), 고졸은 1,026명(43.55%), 대학(전문대)졸은 693명(29.41%) 대학원졸은 169명

(7.1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에서 부재는 45명(1.91%), 중졸이하는 136명(5.77%), 고졸은 1,236명(52.46%), 대학(전문대)졸은 530명(22.50%), 대학원졸은 114명(4.84%)으로 나타났다.

〈표 Ⅲ-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N	%
성별	남자	1,224	51.95
	여자	1,132	48.05
	합계	2,356	100
학교별	중학교	314	13.33
	인문고	810	34.38
	전문고	1,232	52.29
	합계	2,356	100
지역별	특별시	279	11.84
	광역시	1,324	56.20
	시군	753	31.96
	합계	2,356	100
경제수준별	잘 사는 편	379	16.09
	보통 수준	1,397	59.30
	못 사는 편	426	18.08
	무응답	154	6.54
	합계	2,356	100
성적별	상위권	706	29.97
	중위권	756	32.09
	하위권	742	31.49
	무응답	152	6.45
	합계	2,356	100
부모의 양육태도	민주적	1,174	49.83
	독재적	263	11.16
	허용적	583	24.75
	방임적	150	6.37
	무응답	186	7.89
	합계	2,356	100
아버지 학력	부재	54	2.29
	중졸이하	138	5.86
	고졸	1,026	43.55
	대졸(전문대 포함)	693	29.41

구 분		N	%
	대학원졸 이상	169	7.17
	무응답	276	11.71
	합계	2,356	100
어머니 학력	부재	45	1.91
	중졸이하	136	5.77
	고졸	1,236	52.46
	대졸	530	22.50
	대학원졸 이상	114	4.84
	무응답	295	12.52
	합계	2,356	100

심층면접조사 연구대상은 남자 8명, 여자 12명으로 구성하였고, 평균 연령은 17.5세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인문고는 10명, 중학교는 2명, 전문고 6명, 예술고 1명, 해외소재지 고등학교 1명으로 구분되었고 거주지별로는 서울 17명, 경기도 3명이었다. 인터뷰 형태는 1명의 연구자와 학생의 일대일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질문지는 총 25문항으로, 인터넷 댓글 이용 및 특성,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등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2〉 심층면접조사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사례 번호	학교	학년	성별	생년	부모 직업		거주 지역
					아버지	어머니	
1	광신정보산업고	1	여	1992년	-	미용사	서울 구로구 신림동
2	광신정보산업고	1	여	1992년	사업가	주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	광신정보산업고	2	여	1991년	자영업	주부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	광신정보산업고	2	여	1991년	자영업	주부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5	광신정보산업고	3	남	1991년	자영업	주부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6	광신정보산업고	3	남	1991년	자영업	간호사	서울 금천구 시흥5동
7	선린중학교	1	남	1995년	자영업	교육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사례 번호	학교	학년	성별	생년	부모 직업		거주 지역
					아버지	어머니	
8	선린중학교	1	남	1995년	회사원	자영업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9	능곡고	2	남	1991년	자영업	주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0	목동고	2	여	1991년	-	자영업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11	일산동고	2	남	1991년	회사원	주부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	고양예술고	2	남	1991년	사업가	-	고양시 장항2동
13	영국 Tasis American School	1	남	1991년	사업가	교육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14	목동고	2	여	1991년	회사원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5	목동고	2	여	1991년	회사원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6	목동고	2	여	1991년	공무원	공무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7	목동고	2	여	1991년	자영업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18	목동고	2	여	1991년	한의사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9	목동고	2	여	1991년	자영업	약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20	목동고	2	여	1991년	사업가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2) 측정도구

(1)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댓글 이용 유무를 알아보았고, 인터넷 댓글 이용 공간에 대한 질문으로 포털사이트,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을 포함한 10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했고, 이 항목에 대해 1주 평균 이용 횟수를 알아보았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다.

그 외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 게시판 종류를 개방형 질문으로 적도록 했다.

(2)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는 성윤숙(20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여 2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댓글 이용동기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 번째는 상호소통 동기로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내 생각을 쓰고 싶어서 쓴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다. 두 번째, 자기표현 동기로 ‘댓글은 인터넷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든다’, ‘댓글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세 번째, 관심 동기로 ‘댓글이 없는 글을 보면 아무런 댓글이나 쓴다’, ‘재미 삼아서 댓글을 쓴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다. 네 번째, 익명성 동기로 ‘댓글을 쓸 때는 성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댓글을 쓸 때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7이었다.

(3)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청소년의 댓글 이용행태는 성윤숙(2008),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여 19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댓글 이용행태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 번째는 의존형으로 ‘댓글을 쓰거나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댓글 사용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이다. 두 번째, 사교형으로 ‘댓글을 통해 친구를 사귄 적이 있다’, ‘댓글이 가능한 사이트에 자주 간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6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2이다. 세 번째, 방어형으로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할까봐 조심한다’, ‘나는 내가 쓴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심한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9이다. 네 번째, 익명형으로 ‘나는 댓글을 할 때 실명을 밝히기를 꺼린다’, ‘나는 댓글

을 할 때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는 항목을 포함하여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4)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 변화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 변화에 관한 문항은 서영창(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여 12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는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는데, 첫 번째는 행동·인식변화로 '건강이 나빠졌다',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시도했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다.

두 번째는 감정변화로 '화가났다', '우울했다'는 항목을 포함하여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5)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에 관한 문항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과 정완(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여 12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의 질문 문항을 살펴보면 첫 번째, 피해경험은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를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가해경험은 '나는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나는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등을 포함한 4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간접경험은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이다.

(6)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의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주일 동안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주된 이용 용도를 알아보았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의존을 측정하기 위해 Young(1998)이 개발한 20개의 문항을 서술형으로 수정하고 리커트 5점 척도는 동일하게 사용했다. 수정한 인터넷의존 측정도구에 대

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집단 분류는 Young(1998)의 연구를 바탕으로 점수대 별로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총 20문항으로 1문항에 결과를 합산하여 1~19점대는 미의존 집단, 20~39점은 하집단, 40~60점은 중집단, 70~100점은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7)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권침해 관련 법의식

인터넷 댓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청소년의 법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유형별로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묻는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협박, 성희롱,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음란·폭력물 배포 등 6개 항목을 구성했고,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8)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

인터넷 댓글 이용의 사회적지지는 관한 문항은 성윤숙·박한우(2006)의 연구에서 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가족이나 친구 등의 지지를 측정한 8개 항목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한 문항을 인터넷 댓글로 수정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7로 나타났다.

(9) 청소년 자아상

청소년 자아상은 성윤숙(2007)이 Pertersen 등(1984)이 제작한 청소년용 자아상 검사를 이춘재 등(1991)이 한국판으로 번안한 것을 재구성해 16개 항목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한 문항을 사용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자아상 문항은 총 16개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가족만족, 현실적응, 친구 사귀, 부모만족, 감정조절 5가지 요인을 추출되었다. 가족만족은 6개 항목으로 '가족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응은 4개 항목으로 '현실에 자신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으로 나타났다. 친구 사귀는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부모만족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감정조절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으로 나타났다.

(10) 인터넷실명제 도입 인식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희망정도를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 도입’, ‘포털 사이트만 실명제 도입’, ‘뉴스게시판만 실명제 도입’ 등을 포함한 3개 항목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해서 사용했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11) 인구통계학적 변인

조사대상 청소년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별, 교급, 계열, 거주지역,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 등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설문조사의 측정도구와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III-3> 참조).

<표 III-3>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 사 영 역	세 부 항 목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의존	○ 1주일 인터넷 이용시간 ○ 인터넷 이용용도 ○ 인터넷 의존 요인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 인터넷 댓글 이용유무 ○ 인터넷 댓글을 쓰는 인터넷 공간 1주 평균 이용 횟수 ○ 인터넷 댓글을 쓰는 사이트 주소, 게시판 종류	○ 하루 평균 인터넷 댓글사용 빈도 ○ 인터넷 댓글 이용장소 ○ 인터넷 댓글 이용 ID ○ 인터넷 댓글 이용 사이트 주소 ○ 인터넷 댓글을 쓰는 공간에서의 주된 활동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 상호소통 ○ 자기표현 ○ 관심 ○ 익명성	○ 댓글을 쓰는 이유 ○ 댓글을 쓸 때 좋은 점 ○ 댓글을 쓸 때 나쁜 점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 의존형 ○ 사교형 ○ 방어형 ○ 익명형	○ 자신의 댓글에 타인의 반응 ○ 댓글을 쓰는 이유 ○ 자신의 댓글의 타인이 반응 보였을 때 자신의 반응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	○ 인터넷 댓글을 통한 피해, 가 해, 간접경험 ○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 활변화 ○ 인터넷 댓글에 대한 법적 처벌 에 대한 인식 ○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인식	○ 자신의 댓글에 타인의 반응 ○ 다른 사람의 댓글에 타인의 반응 ○ 자신의 댓글 혹은 게시물에 따른 타인의 댓글로 반응 ○ 자신이 댓글 쓰는 행위에 대 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 ○ 댓글로 인한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생각 ○ 댓글의 중독성향에 대한 생각 ○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 및 정부의 노력
청소년용 자아상 검사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 가족만족 ○ 현실적응 ○ 친구사귀 ○ 부모만족 ○ 감정조절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	○ 인터넷 댓글 사용에 대한 주 변 사람들의 반응(아버지, 어 머니, 형/오빠, 누나/언니, 남 동생/여동생, 친구, 중요한 사람)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 학교와 학년 ○ 거주 지역 ○ 가정의 경제수준 ○ 학교성적	○ 성별 ○ 학교와 학년 ○ 거주지 ○ 생년 ○ 부모 직업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학력	
--	------------------------	--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연구로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 사이버공간에서의 청소년 인권보호 등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관련 법·제도,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다.

(2) 조사연구

① 설문조사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중학교 44개교와 고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당 1개 학급씩 총 2,504명을 표집 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31일 동안 이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404부였는데, 이 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48부를 제외한 2,35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했다.

- 인터넷 댓글을 통한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 모집단 : 2008년 학교에 재학 중인 전국의 중·고등학생
- 표 본 : 2008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한 전국 규모의 중·고등학생 총 2,356명의 청소년

<표 III-4> 표본할당 기준표

학교급	학생수(명)	구성비(%)
초등5	654,721	8.26
초등6	676,352	8.53
중학교	2,063,159	26.02
고등학교	1,820,438	22.96
전문대	795,519	10.03
대학교	1,919,504	24.21
전체	7,929,693	100.00

자료 : 2008 교육통계연보

<표 III-5> 표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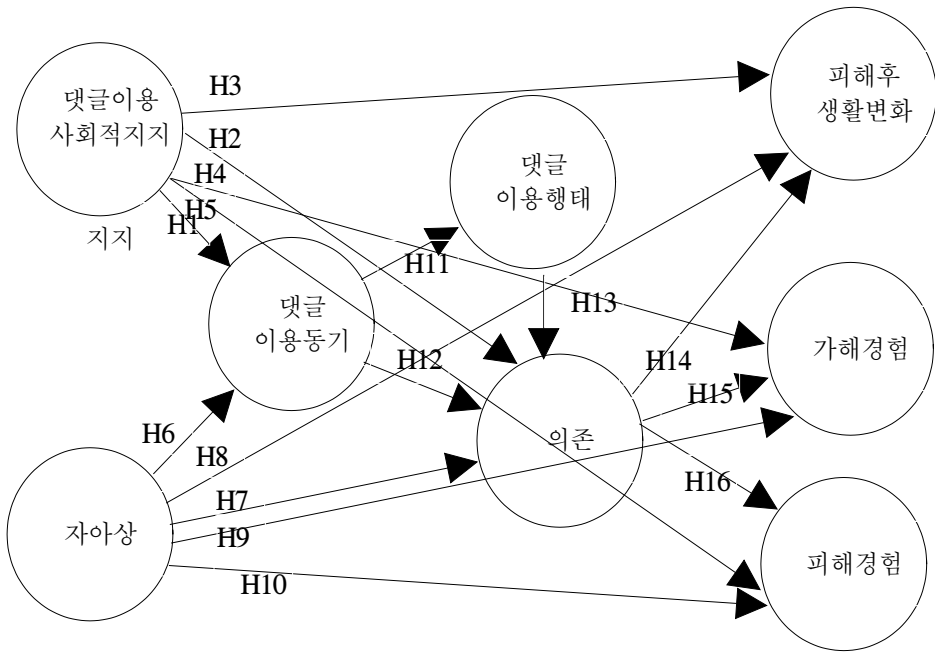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학급수	총표 본수	학교수	학급수	총표 본수	목표 표본수
표본수	42	학교당1	1,247	37	학교당1	1,103	2,350

- 표집방법 : 층화다단계집락표집
- 조사방법 : 집단설문조사
- 조사내용 :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은 크게 ①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의존요인 ②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③ 인터넷 댓글 이용 동기 ④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⑤ 인터넷 댓글 피해·가해·간접경험 ⑥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 ⑦ 청소년 자아상 ⑧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으로 구성
- 연구가설 : 이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댓글 사용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지지는 이들의 댓글 이용 동기(H1)에 영향을 미

치며, 사회적지지는 또한 댓글에 대한 의존(H2)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댓글 사용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에 변화(H3)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또한 댓글을 이용한 타인에 대한 가해경험(H4)이나 다른 청소년들로부터의 댓글을 이용한 피해경험(H5)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자아상은 사회적지지처럼 이들의 댓글 이용 동기(H6)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터넷의존(H7)이나, 댓글 피해 후 일상변화(H8), 가해경험(H9), 및 피해경험(H10)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청소년들의 댓글 이용동기는 댓글이용 행태(H11)와 인터넷의존(H12)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댓글 이용 행태 즉 지나친 댓글 의존이나 사용은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H13)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은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에 변화(H14)를 초래할 것이며, 문제행동 즉 가해경험(H15)이나 피해경험(H16)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연구모형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인권침해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을 위한 분석으로 1주일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용도, 인터넷 댓글 이용유무, 인터넷 댓글을 끄는 인터넷 공간 1주 평균 이용횟수, 인터넷 댓글을 쓰는 사이트 주소, 게시판 종류,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사이트별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의식과 같은 변인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치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 - 예를 들면, 성별, 교급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거주 지역,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학력 등 - 을 파악 하였다.

연구문제 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정도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법의식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에서 4까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관련된 행위 변인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종속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변인으로서는 댓글 이용정도,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 등이며, 이 변인들이 청소년들의 교급,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성적, 부모의 양육태도, 그리고 성별 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문제 5.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6.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7.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8. 청소년의 자아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에서 8까지는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의 단면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관련 구성으로 분석대상이 된 것은 (1)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2)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4) 청소년 자아상 등이다. 이것은 10~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응답에 따라 요인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 연구문제 9.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와 댓글 이용행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0.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와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한 인식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1.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이용 사회적지지와 댓글 이용동기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이용 사회적지지와 댓글 이용행태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이용 사회적지지와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4. 청소년의 자아상과 댓글 이용동기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5. 청소년의 자아상과 댓글 이용행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6. 청소년 자아상과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7.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와 인터넷 의존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8.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와 인터넷 의존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19.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와 인터넷 의존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0.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법의식과 댓글로 인한 피해후 생활변화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1.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는 댓글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는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는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4.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가 댓글 이용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5.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이용 사회적지지가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6. 청소년의 자아상이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7. 청소년의 자아상이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8. 청소년 자아상이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9.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가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9에서 29까지는 위에서 파악된 각 구성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즉, 청소년 자아상, 인터넷 댓글 이용 동기,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변인들에서 추출된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봄으로써, 각 구성 요인들 간의 관계와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심층면접조사

2008년 7~8월에 걸쳐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는 20명의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 모 집 단 : 서울·경기지역 중·고등학교생
- 표 본 : 서울·경기지역 청소년 20명
- 표집방법 :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
- 조사방법 : 1:1 심층면접
- 조사내용 : ①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②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③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④ 인터넷 댓글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⑤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가해·간접경험 ⑥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일상생활 변화 ⑦ 인터넷 댓글의 중독성 인식 ⑧ 인터넷 댓글로 인한 문제점 방지 대책 ⑨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으로 구성

4) 자료분석

조사결과의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2.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 배경변인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변량분석(ANOVA) 등을 사용하고, 청소년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 청소년 자아상 등의 구조를 조사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변수간의 관계는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2. 조사결과

1)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

(1)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현황

2,356명의 전국(제주 제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의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 현황을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주일 평균 8시간 15분으로 나타났고, 1일 평균 이용시간 1시간 18분이었다.

〈표 III-6〉 인터넷 1주일 평균 이용시간

구분 \ 통계량	N	%	1주일 평균 이용시간	1일 평균 이용시간
응답자	2,044	86.76	8시간 15분	1시간 18분
무응답 및 미이용자	312	13.24	-	-
전체	2,356	100		

선택적 순위 기입방식으로 질문한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느냐’의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인터넷을 통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온라인게임(32.13%)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메신저(12.82%), 3위가 미니홈피 및 관리 및 방문(12.31%)로 나타났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음악감상 및 mp3다운로드(18.68%), 메신저(12.90%),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10.91%)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용도는 음악감상 및 mp3다운로드(15.53%),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12.22%), 메신저 순(9.89%)으로 나타났다.

전체 순위를 알아보기 위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1순위의 1,2,3에는 각각 5,4,3배를 2순위 1,2,3에는 4,3,2배를, 3순위의 1,2,3위에는 각각 3,2,1배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동일항목은 합산한 결과, 1위는 온라인게임이었고, 그 다음은 음악 감상 및 mp3다운로드,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인터넷 용도별 1~3순위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용도	빈도	%	용도	빈도	%	용도	빈도	%
1위	온라인 게임	757	32.13	음악 감상 및 mp3 다운로드	440	18.68	음악 감상 및 mp3 다운로드	366	15.53
2위	메신저	302	12.82	메신저	304	12.90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	288	12.22
3위	미니홈피 관리 및 방문	290	12.31	숙제나 공부를 위한 검색	257	10.91	메신저	233	9.89
가중치 적용	온라인 게임	289.17		음악 감상 및 mp3 다운로드	158.67		메신저	125.51	

청소년의 인터넷 의존도를 알아보기 위해 Young(1998)의 인터넷의존 척도를 사용하였다. Young은 인터넷 의존 정도에 따라서 집단을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Young의 연구를 바탕으로 의존 정도가 반영된 점수대 별로 총 4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인터넷 의존에 관한 질문은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1문항에 1~5점으로 할당하여 1~100점으로 환산할 수 있게 하였다. 20문항의 점수 결과를 합산하여 1~19점대는 미의존 집단, 20~39점은 하집단, 40~69점은 중집단, 70~100점은 상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Ⅲ-8〉 인터넷 의존 집단별 차이

분석 집단	인터넷 의존							
	설명	의존 점수	성별		N(%)	M	SE	SD
			남	여				
미의존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가끔씩 씀	1~19	0	0	0	0	0	0
하집단	일반적인 온라인 이용자임, 오랜 시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	20~39	461	527	988 (41.9)	1.49	0.01	0.38
중집단	인터넷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함	40~69	594	477	1,071 (45.5)	2.64	0.01	0.43

분석 집단	인터넷 의존							
	설명	의존 점수	성별		N(%)	M	SE	SD
			남	여				
상집단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70~100	59	46	105 (4.5)	3.95	0.04	0.50
전 체		-	1,114	1,050	2,164			

인터넷의존 질문에 응답한 2,164명의 인터넷의존 평균은 5점 척도 기준으로 2.12점(SE=0.02)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중집단이었고, 하집단, 상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집단별 평균은 하집단이 1.49, 중집단, 2.64, 상집단이 3.9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의존 차이를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남자(43.73)가 여자(40.82)보다 인터넷의존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성별에 따른 인터넷의존 차이

통계량 구분	N	M	SE	SD	F	t
남자	1,114	43.73	0.49	16.37	8.665**	4.308**
여자	1,050	40.82	0.47	15.15		

** $p < .01$

2) 인터넷 댓글 이용 현황

(1)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양적 조사

2,3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댓글 이용 유무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97.37%(2,294명)가 댓글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해보았거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을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답한 응답자와 미응답자를 포함해 2.63%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댓글을 쓴 경험이 있거나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 인터넷 댓글 이용유무

구분 \ 통계량	N	%
있다	2,294	97.37
없다	20	0.85
미응답	42	1.78
총계	2,356	100

청소년을 대상으로 댓글을 많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을 통해 인터넷 댓글 사용 이용 공간을 10개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 답변에 대해서 기타로 하여 조사한 결과 이용횟수가 많은 공간은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1주 평균 3.68회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클럽·카페가 2.17회, 온라인게임 사이트가 1.70회로 나타났다.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이용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1위부터 6위까지 이용횟수 순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3.10점, 클럽·카페가 2.57점, 온라인게임 사이트가 2.28점 순이었다. 포털사이트의 일반적인 뉴스게시판 분류에 의한 정치/스포츠/연예 기사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순서는 연예(1.96점), 정치(1.71점), 스포츠(1.68점)로 나타났다. 가장 이용이 적은 게시판은 정부기관·관공서 홈페이지(0.18회, 1.30점)로 나타났다.

〈표 Ⅲ-11〉 인터넷 댓글을 쓰는 인터넷 공간에서 1주 평균 이용횟수 및 정도

댓글을 쓰는 인터넷 공간	이용횟수			이용정도(5점)		
	N	M	SE	N	M	SE
클럽·카페 ⁷⁾ 등의 동아리, 동호회 홈페이지	1,629	2.17	0.11	2,191	2.57	0.03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토론게시판	1,692	1.17	0.08	2,184	2.04	0.03
정치적인 뉴스 기사(혹은 뉴스 게시판)	1,799	0.69	0.06	2,184	1.71	0.02
스포츠 뉴스 기사(혹은 뉴스 게시판)	1,824	0.69	0.06	2,178	1.68	0.02

댓글을 쓰는 인터넷 공간	이용횟수			이용정도(5점)		
	N	M	SE	N	M	SE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혹은 뉴스 게시판)	1,723	0.94	0.05	2,174	1.96	0.03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1,532	3.68	0.17	2,180	3.10	0.03
EBS같은 교육 관련 홈페이지	1,786	0.58	0.04	2,180	1.66	0.02
정부 기관, 관공서의 홈페이지 (정부부처, 시·도·군청 등)	1,928	0.18	0.02	2,191	1.30	0.01
온라인게임 사이트	1,703	1.70	0.11	2,172	2.28	0.03
학교 홈페이지/학급 홈페이지 및 게시판	2,356	0.37	0.03	2,171	1.71	0.02
기타	2,356	0.10	0.02	783	1.41	0.03
유효 목록수	N=1,194			N=738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주소를 쓰라’는 주관식 기입형 질문에 1,380명이 답했다. 댓글을 쓰려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싸이월드가 4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네이버로 22.9%, 3위는 다음으로 6.1%, 4위는 게임 사이트로 5.7%, 카페 4.2% 순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이트는 단순히 게임 사이트라고 응답한 수와 게임 관련 사이트 이름을 기입한 응답 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했다.

〈표 Ⅲ-12〉 인터넷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및 게시판

순위	사이트 명	N	%	순응답에 따른 %
1위	싸이월드 (미니홈피=36)	661	27.9	47.9
2위	네이버 (네이버 톡=20)	316	13.3	22.9
3위	다음	84	3.5	6.1
4위	게임사이트	79	3.3	5.7

7) 클럽, 카페 :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친목, 취미, 종교 등과 같은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형성된 동호회 홈페이지의 일종이다.

순위	사이트 명	N	%	순응답에 따른 %
5위	카페	58	2.4	4.2
6위	세이클럽	30	1.3	2.2
7위	블로그	19	0.8	1.4
8위	버디버디	17	0.7	1.2
9위	학교/반 홈페이지 및 카페	12	0.5	0.9
10위	교육방송	7	0.3	0.5
기타		97	4.1	7.0
합계		1,380	58.2	100
댓글 안씀	-	35	1.5	-
무응답	-	941	40.3	-
총계		2,356	100	-

댓글 이용정도를 인구통계학적 분류에 따른 학교군, 지역군과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에 따른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에서 Tukey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성적별, 경제수준별은 5점 척도를 바탕으로 3 집단으로 묶었고, 부모의 양육태도는 4가지 명목척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표 III -13>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항목별 댓글 이용정도

항 목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잘사는편	보통수준	못사는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클럽·카페 등의 동아리 동호회 홈페이지	2.64	2.56	2.34	2.56	2.55	2.58	2.60	2.53	2.65	2.65	2.43	2.63	2.06	2.54	2.21	2.10
	F=5.48** c>a			F=0.12 -			F=1.24 -			F=5.88** a<b			F=0.60 -			
포털사이트	2.16	1.88	1.94	2.04	1.99	2.06	2.01	2.04	2.01	2.04	2.01	2.06	1.11	1.33	1.08	1.00

항 목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중학교	인문고	전문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잘사는 편	보통 수준	못사는 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의 토론게시판	F=12.74 ** a>b,c			F=0.60 -			F=0.12 -			F=0.31 -			F=0.40 -			
정치적인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1.74	1.66	1.73	1.72	1.72	1.67	1.67	1.70	1.73	1.70	1.67	1.73	0.61	0.69	0.65	1.18
	F=1.55 -			F=0.53 -			F=0.28 -			F=0.50 -			F=2.14 -			
스포츠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1.66	1.68	1.74	1.64	1.71	1.64	1.66	1.67	1.66	1.69	1.57	1.76	0.66	0.72	0.68	0.66
	F=0.591 -			F=1.08 -			F=0.02 -			F=5.50** c>b			F=0.05 -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1.99	1.93	1.90	1.90	1.94	1.94	1.93	1.97	1.92	1.95	1.93	1.99	0.98	0.97	0.83	0.87
	F=0.824 -			F=0.93 -			F=0.38 -			F=0.51 -			F=0.55 -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3.01	3.19	3.24	3.08	3.05	3.16	3.02	3.09	3.22	3.09	3.04	3.18	3.69	3.88	3.50	4.75
	F=5.10** b,c>a			F=1.23 -			F=1.84 -			F=1.71 -			F=0.94 -			
EBS같은 교육 관련 홈페이지	1.70	1.66	1.49	1.61	1.65	1.69	1.65	1.67	1.65	1.67	1.65	1.67	0.62	0.53	0.55	0.40
	F=4.36* a>c			F=0.82 -			F=0.09 -			F=0.04 -			F=0.66 -			
정부기관 공공의 홈페이지 (정부처 시도군청 등)	1.32	1.27	1.34	1.33	1.28	1.30	1.29	1.31	1.26	1.29	1.29	1.31	0.20	0.10	0.14	0.13
	F=1.342 -			F=0.86 -			F=1.13 -			F=0.13 -			F=1.08 -			
온라인 게임 사이트	2.51	1.91	2.33	2.18	2.32	2.27	2.33	2.27	2.21	2.31	2.18	2.34	1.38	2.34	1.75	1.80
	F=41.32** a,c>b			F=1.22 -			F=0.59 -			F=2.46 -			F=2.85* b>a			
학교 홈페이지/학급 홈페이지 및 게시판	1.88	1.54	1.48	1.71	1.65	1.75	1.80	1.72	1.55	1.77	1.64	1.71	0.41	0.37	0.32	0.15
	F=35.48** a>b,c			F=1.77 -			F=6.81** a, b>c			F=2.86 -			F=2.48 -			

** $p<.01$, * $p<.05$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지역별 변인을 제외하고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교군에서 인터넷 게시판별로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클럽·카페에서는 중학교(2.64)가 전문고(2.34)보다 댓글 이용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포털사이트

의 토론게시판에서는 중학교(2.16)가 인문고(1.88)와 전문고(1.94)보다 유의미하게 이용정도가 많았다.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서는 인문고(3.19)와 전문고(3.24)가 중학교(3.01)보다 이용정도가 많았다. EBS같은 교육관련 홈페이지에는 중학교(1.70)가 전문고(1.49)보다 이용정도가 많았고 인문고와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는 중학교(2.51)와 전문고(2.33)가 인문고(1.91)보다 이용정도가 컸다. 학교홈페이지나 학급게시판의 이용정도가 많은 집단은 중학교(1.88)로써 인문고(1.54)와 전문고(1.48)보다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에서는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경제수준별에서는 학교 홈페이지나 학급게시판에서 경제수준이 ‘잘 사는 편’(1.80)이 ‘보통’(1.72)과 ‘못사는 편’(1.55)보다 이용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별에서는 클럽·카페에서 상위권(2.65)과 하위권(2.63)이 중위권(2.43)보다 이용정도가 많았다. 스포츠 뉴스 게시판에서는 하위권(1.76)이 상위권(1.69)에 비해 이용정도가 많았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게시판은 온라인게임 사이트로서, 부모의 독재적인 태도(2.34)가 민주적인 태도(1.38)보다 이용정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문화기술적 연구 방법인 청소년과의 일대일 심층인터뷰를 통해 하루에 몇 개 정도 댓글을 쓰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20명 청소년들의 하루 인터넷 댓글 이용 현황을 파악해보니 응답자의 답변 특성에 따라서 20명의 학생들 중 10명의 학생들이 하루 2~4개 정도의 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하였고, 하루에 10개 이상 댓글을 작성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0명중 6명으로 하루에 10개, 많게는 30개 정도 작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 4명의 학생들은 하루에 1개 혹은 거의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질문 : 댓글을 하루에 몇 개 정도 쓰나요? (평균)

□ 10개 이상

- 1. 하루에 10개 정도
- 7. 10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 8. 20개 정도요.
- 9. 2~30개
- 10. 10개에서 15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 14. 하루에 10개쯤 쓰는 것 같아요.

□ 10개 이하

- 3. 하루에 3~4개 정도
- 4. 3~4개 정도 써요
- 5. 1~2개 정도
- 6. 하루에 1~2개 정도 달아요.
- 11. 대략 3~4개 정도 밖에 안 쓰는데요
- 12. 2개
- 13. 하루에 5개 정도
- 15. 한 하루에 3~4개 정도
- 16. 많으면 2~3개 정도요. 많이 안 써요
- 17. 한 2~3개정도 써요

□ 댓글을 거의 쓰지 않음

- 2. 1개 아니면 안달 때도 있어요
- 18. 한 0.5개. 자주 쓰는 편이 아니예요
- 19. 한번 쓸까 말까해요. 거의 안써요
- 20. 댓글 잘 안 쓰고, 잘 안 봐요. 미니홈피도 안 해요

청소년들이 댓글을 쓰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크게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로 구분되어졌다. 20명의 학생들 중 9명의 학생들이 네이버를 이용하였으며, 이와 같이 싸이월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7명이었다. 하지만 네이버나 싸이월드를 동시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중에서도 개인 블로그나 카페, 미니홈피에 댓글을 쓴다고 응답하였다. 한 청소년은 “싸이월드의 미니홈피하구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다른 학생은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헤드라인 있는 거랑 심심하면, 애플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보구

요...(중략)...싸이월드 들어가서 연예인 게시물에다가도 하고, 그런 것 보고 댓글 달고”있다고 답했다. 또한 특이한 응답으로는 “휴대폰 네이트”로 댓글을 쓴다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다.

질문: 댓글을 쓰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는?

□ 네이버

1. 네이버나 싸이월드요
2. 네이버, 싸이월드
5. 네이버 카페나 웹툰이요
6. 네이버요
7. 휴대폰 네이트하구요. 네이버 정도
8. 네이버나 싸이요
9. 싸이월드와 네이버
10. 싸이월드의 미니홈피하구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
13.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헤드라인 있는 거랑 심심하면. 애플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보구요. 심심하면 해외 얘기를 많이 보고, 신기한 그런 것들 보고, 싸이월드 들어가서 연예인 게시물에다가도 하고, 그런 것 보고, 댓글 달고

□ 다음

3. 다음이요
10. 싸이월드의 미니홈피하구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
14. 힙합 플레이아 닷컴,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음 뉴스 그런데요.
19. 저는 다음 카페이용해요.

□ 싸이월드(미니홈피)

1. 네이버나 싸이월드요
2. 네이버, 싸이월드
4. 싸이월드
9. 싸이월드와 네이버
10. 싸이월드의 미니홈피하구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
12. 싸이월드
14. 힙합 플레이아 닷컴,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음 뉴스 그런데요.

□ 기타

7. 휴대폰 네이트하구요. 네이버 정도
11.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 무비’라고.. 싸이월드...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서 청소년들이 하는 활동’은 크게 4가지로, 블로그 운영과 미니홈피관리, 카페활동, 검색으로 구분되어졌다.

블로그와 미니홈피의 경우에는 “블로그에 스크랩해 놓은 걸 모아놓아요”와 같이 타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을 스크랩⁸⁾하거나, “싸이월드 홈페이지나 둘러보는데, 그냥 사진 있으면 남기구요”와 같이 웹서핑을 하거나 사진과 같은 게시물에 댓글을 단다고 응답했다.

카페활동의 경우에는 주로 취미나 관심, 팬클럽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학생은 “게임 카페요. RPG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카페활동하고” 있다고 답했고, 다른 학생은 “카페, 제가 흥미 있어 하는 것… (중략)… 제 취미로 비트박스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권상우 팬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색의 경우에는 “그냥 뉴스 기사만 봐요. 자료만” 찾는 정도의 이용만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고, 한 학생은 “검색어 1위부터 보고, 댓글도 달고 그래요”라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질문 :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 개인 블로그, 미니홈피

1. 블로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2. 블로그에 스크랩해 놓은 걸 모아놓아요
5. 블로그하고 있어요. 카페는 닌텐도 카페 같은데 가서 정보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닌텐도가 온라인 되는 것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7. 카페활동이요. 미니홈피도 하구요. 엠프쓰리 다운 받을 수 있는 카페하구요. 게임 카페요. RPG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카페활동하고 그랬어요.
8. 검색하구요. 웹툰 보고, 축구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사이월드에서 미니홈피하고 있어요.
9.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싸이월드 홈페이지나 둘러보는데 그냥 사진 있으면 남기구요. 블로그하고 카페활동도 해요. 게임 카페요. 심즈나 써든 어택이나 권상우 팬클럽요.
10. 싸이월드에서는 미니홈피하구요.
12. 싸이월드 밖에 안하는데요. 클럽하고, 미니홈피요.
18. 네, 미니홈피에 댓글 달고, 그냥 기사요. 근데 읽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

8) 스크랩 기능 : 타인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게시물을 복사해서 자기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옮기는 기능을 뜻한다.

들이 제 것에 댓글을 달아도 그냥 보고 넘겨요. 따로 찾아가서 남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19. 좋아하는 연예인 카페나, 싸이월드 미니홈피 정도요.

□ 카페(취미, 팬클럽)

5. 블로그하고 있어요. 카페는 닌텐도 카페 같은데 가서 정보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닌텐도가 온라인 되는 것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7. 카페활동이요. 미니홈피도 하구요. 엠피쓰리 다운 받을 수 있는 카페하구요. 게임 카페요. RPG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카페활동하고 그랬어요.

9.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싸이월드 홈페이지나 둘러보는데 그냥 사진 있으면 남기구요. 블로그하고 카페활동도 해요. 게임 카페요. 심즈나 써든 어택이나 권상우 팬클럽

11. (카페에서) 그냥 그림을 공유하는 입장이구요. 올리고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입장이구요.

13. 카페, 제가 흥미 있어 하는 것, 사진, 제가 사진에 좀 흥미가 있고. 제 취미로 비트박스 같은 것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것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19. 좋아하는 연예인 카페나, 싸이월드 미니홈피 정도요.

□ 검색

3. 악플 담당, 저는 다음 곳곳 돌아다니면서 검색어 1위부터 보고 댓글도 달아요.

8. 검색하구요. 웹툰 보고, 축구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싸이월드에서 미니홈피하고 있어요.

20. 그냥 뉴스 기사만 봐요. 자료만 찾고,, 숙제할 때 나 요즘 이슈 같은거 찾는 거 외엔 없어요.

청소년들이 댓글을 쓰는 게시판은 크게 미니홈피, 카페, 뉴스 게시판으로 구분되어졌다.

인터뷰에 응한 20명의 청소년 중에서 7명이 미니홈피의 사진, 좋은 글, 방명록에 댓글을 남긴다고 응답했다. 미니홈피에 댓글을 쓴다고 답변한 학생들은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이나, 게시판, 사진첩에 달아주기도 했어요”와 같이 타인의 미니홈피에 쓰거나, “제 미니홈피에 애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답글을 써요. 하나하나 다 달아요”라고 자신의 미니홈피에 타인이 쓴 댓글에 다시 댓글을 쓴다고 응답했다.

뉴스 게시판의 경우에는 “뉴스에다가 많이 써요. 요즘 촛불시위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네이버 가서 뉴스 게시판보고” 혹은 “뉴스 보고 많이 써요”, “시사라 던지, 요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란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등과 같이 연예, 시사 관련한 뉴스 기사에 댓글을 많이 쓴다고 응답했다.

질문 : 어떤 게시판에 주로 댓글을 쓰나요?

□ 미니홈피

- 4. 댓글 같은 것은 싸이월드(미니홈피)에서 해요.
- 9. 싸이월드 미니홈피요. 카페나 제 미니홈피에 애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답글을 써요. 하나하나 다 달아요. 네이버는 제가 알고 싶은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누가 올려놓으면 댓글 쓰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 웃음’ 이런 거 쓰고
- 12. (미니홈피의) 친구 사진이나 좋은 글들 있을 때
- 15.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미니홈피죠,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익명으로 하는 공간에는 별로 안 남기는 편이에요. 블로그도 친구들이 하는 데만 남기고,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남겨요.
- 17. 미니홈피요.
- 19. 미니홈피나 다른 사람 블로그 정도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요. 그냥 들어가서 보는 정도예요.
- 20.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이나, 게시판, 사진첩에 달아주기도 했어요.

□ 카페(취미, 팬카페)

- 5. 일정적으로 다는 곳은 웹툰이나 카페 같은 곳이구요. 나머지는 들었을 때 좋은 정보 있으면 ‘잘보고 간다’고 달아요.
- 6. 아까 가입했던 카페하구요. 아니면 뉴스 같은 것 보고 써요. 스포츠는 별 관심 없구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사에 관심이 많아요.
- 14. 음악에 대해서 앨범 리뷰하는 데, 음악 얘기하는데, 모 거기 말고도 다음에서는 다음 뉴스 같은 것도 보고 달고, 그 정도요.
- 16. 연예인 관련된 것들이요. 드라마 같은 거요. 각 드라마별 게시판 들어가서 댓글 달아요.

□ 뉴스(연예, 스포츠, 시사)

- 1. 연예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요. 스포츠 쪽은 별로 안좋아하구요. 여자다 보니깐. 주로 가수들 다시 컴백했다 그런 거 보면 댓글 무조건 달구요. 요

새 집에서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쇠고기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개 많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서 댓글 보러 가고 그래요.

6. 아까 가입했던 카페하구요. 아니면 뉴스 같은 것 보고 써요. 스포츠는 별 관심 없구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사에 관심이 많아요.

7. 뉴스에다가 많이 써요. 요즘 촛불시위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네이버 가서 뉴스 게시판보고 과격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좀 심하네요’ 그런 댓글 달아요.

8. 뉴스에서 많이 써요. 유로 2008 같은 축구 보려고 쓰는데요. 제일 많이 뉴스 보고 많이 써요.

13. 뉴스 게시판도 있고, 그냥 거기 달잖아요. 뉴스에서 달잖아요. 뉴스 기사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제 의견을 많이 하지만 의견을 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한 말을 쭈욱 길게 많이 썼어요. ‘말도 안된다, 멍청한 소리하네’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저는 욕은 안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18. 시사라 던지, 요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란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어찌다가 댓글 쓰는 거정도요.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이용행태

(1)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①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요인분석

청소년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는 동기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이용동기와 관련한 24문항에 대해 베리맥스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요인 선별기준은 1.0이상의 아이겐값과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상호소통, 자기표현, 흥미, 익명이라는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상호소통은 22.04%, 자기표현 14.05%, 흥미 12.40%, 익명 9.86%의 변량을 설명하여 댓글 이용동기 전체변량의 58.35%를 설명하였다.

〈표 Ⅲ-14〉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대한 요인 분석

요인명	구분	성분			
		1	2	3	4
요인1 상호 소통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견(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0.754	0.249	0.148	0.152
	내 생각을 쓰고 싶어서 쓴다	0.704	0.220	0.191	0.111
	댓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0.692	0.257	0.185	0.206
	댓글 때문에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다	0.653	0.100	0.216	0.359
	다른 사람이 쓴 재미있는 댓글을 볼 수 있다	0.643	0.088	0.229	0.403
	잘못된 정보(뉴스, 토론게시판 등)를 지적하기 위해 댓글을 쓴다	0.624	0.234	0.040	-0.001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을 찾아 읽은 적이 있다	0.620	0.196	0.221	0.167
	댓글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0.570	0.267	0.342	0.107
요인2 자기 표현	내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다	0.525	0.319	0.388	0.118
	댓글은 인터넷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든다	0.301	0.708	0.055	0.134
	댓글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0.394	0.689	0.112	0.181
	댓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0.068	0.639	0.394	0.021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이 많을수록 좋은 게시물이다	0.196	0.609	0.224	0.200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다	0.500	0.546	-0.041	0.355
	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 기분 좋다	0.331	0.513	0.296	0.142
요인3 관심	댓글은 요즘 유행하는 문화이다	0.180	0.503	0.185	0.419
	댓글이 없는 글을 보면 아무런 댓글이나 쓴다	0.029	0.114	0.764	0.021
	재미 삼아서 댓글을 쓴다	0.268	0.143	0.730	0.170
	다른 사람도 내 글에 댓글을 달기 때문이다	0.475	0.209	0.601	0.144
	다른 친구들도 댓글을 쓰기 때문이다	0.425	0.218	0.539	0.041
요인4 익명성	남들이 내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0.467	0.246	0.516	0.147
	댓글을 쓸 때는 성별(남/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146	0.219	0.087	0.768
	댓글을 쓸 때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358	-0.023	0.278	0.681
	댓글을 쓸 때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0.086	0.327	-0.047	0.636
eigenvalue		5.291	3.371	2.976	2.366
설명력(%)		22.044	14.045	12.401	9.857

②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청소년들이 댓글을 쓰는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자기표현이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감, 네티켓, 재미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청소년

년들은 “자기의견을 나타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댓글을 쓰는 거 같아요. 표현하고 싶을 때요”라고 응답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 청소년들은 “댓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라고 응답했다. 게시물을 피가거나,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었을 때 네티켓으로 “일종의 매너, 스크랩 같은 것 할 때도 출처도 안 밝히고 그러면 ‘불펌’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오니깐”, “이 게시물 퍼감을 알리기 위해서요” 댓글을 쓴다고 응답했다. 또 댓글을 달고, 또 다른 사람이 달아주고, 다시 댓글을 쓰는 과정이 재미있어 댓글을 쓴다고 응답했다. 한 학생은 “이 댓글을 달므로 인해 상대방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해주면 상대방이 말해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라고 응답했다.

질문 : 댓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자기표현

1. 아까 말했듯이 정부 정책에 관한 댓글을 쓸 때는요. 자기의견을 나타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깐 좋은 것 같아요.
3. 자기 생각 남기려구요. 그리고 연예인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4. 제 의견을 남기려구요.
6. 남들이 제 의견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댓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7.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쓰다보면 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구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13. 음.. 제가 댓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기사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하고, 댓글을 쓴 사람이 달아주면 ‘내가 생각한 게 잘못 되었구나’, ‘이 사람 의견이 맞으니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체크할 수도 있고
15. 일단 댓글을 쓴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쓰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견 틀렸다, 아니다 싶은 것에만 써요.

16. 각자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댓글을 쓰는 거 같아요. 표현하고 싶을 때요.
18. 제 의견을 알리고자 써요. 각자 생각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혹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되면 반박 할 겸 제 생각을 써요.

□ 공감

8. 공감가거나 전혀 내 의견이랑 반대될 때요. 공감이 가며 공감 간다고 쓰고, 전혀 다른 의견이면 반박을 하려고 써요.
19.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아니면 말이 틀렸다 싶으면 반박하는 정도로요.

□ 네티켓

5. 일종의 매너, 스크랩 같은 것 할 때도 출처도 안 밝히고 그러면 '불펌'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오니깐
9. 이 게시물 퍼감을 알리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사람들이 음악 같은 것을 많이 올려놓는데 댓글 안남기고 퍼가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이거 뭐냐면 말하고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말 안하고 가져가는 건 기분 나쁘니깐 예의상
12.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미니홈피 상), 좋은 글이나 좋은 사진이 있으면 '이거 정말 잘 나왔다', '잘 썼다', '재미있다' 이런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 재미

11. 이 댓글을 달므로 인해 상대방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가, 내가 말해주면 상대방이 말해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①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요인분석

댓글을 이용하는 행태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18문항에 대해 베리맥스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요인 선별기준은 1.0이상의 아이겐값과 최소한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이라는 4개의 요인구조가 나타났다. <표 III-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존형은 23.93%, 관계형 16.07%, 방어형 11.86%, 익명형 9.92%로 댓글 이용행태 전체변량의 61.78%를 설명하였다.

〈표 III-15〉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성분			
		1	2	3	4
요인 1 의존형	댓글 사용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다	0.807	0.158	0.084	0.058
	댓글을 쓰거나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0.806	0.250	0.062	-0.007
	댓글하느라 밤을 세운 적이 있다	0.783	0.334	0.029	-0.058
	댓글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있다	0.744	0.353	0.026	-0.058
	악성 댓글 때문에 글을 잘 남기지 않는다	0.674	-0.154	0.264	0.147
	댓글을 통해 번개를 한 적이 있다	0.610	0.356	0.110	-0.068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댓글을 한 적이 있다*	0.567	0.558	0.064	0.019
	숙제 및 학업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0.517	0.513	0.015	0.137
요인 2 관계형	댓글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다	0.398	0.702	0.112	0.010
	마음 먹은 시간보다 오래 이용한다	0.368	0.671	0.087	0.120
	댓글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적이 있다	0.236	0.659	0.149	0.027
	댓글이 가능한 사이트에 자주 간다	-0.058	0.594	0.158	0.361
요인 3 방어형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할까봐 조심한다	0.072	0.035	0.752	0.303
	나는 내가 쓴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심한다	-0.024	0.023	0.738	0.331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글에만 댓글을 쓴다	0.098	0.126	0.704	-0.182
	나는 게임이나 동호회같이 목적이 같은 사람의 글에만 댓글을 쓴다	0.200	0.229	0.582	0.011
요인 4 익명형	나는 댓글을 할 때 실명을 밝히기를 꺼린다	0.116	0.045	0.094	0.824
	나는 댓글을 할 때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0.068	0.201	0.132	0.819
eigenvalue		4.308	2.892	2.136	1.786
설명력(%)		23.932	16.065	11.864	9.921

* 부적재값이 .04보다 높아 최종분석에서 제외

②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심층인터뷰를 통해 청소년들의 댓글 이용행태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우선 댓글을 쓰거나 볼 때 좋은 점은 상호소통, 자기표현으로 구분되어져 응답되었고, 서로 의견교환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상호소통’이 20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깐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와 같이

자신이 쓴 댓글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거나,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보고,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부분을 생각하는 게 많아서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고 자신의 생각과 비교한다고 응답했다.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대놓고 말 못하는 것을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처럼 댓글을 쓰는 이유와 유사하게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현실공간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자기표현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댓글을 쓰는 좋은 점이라고 지적인 청소년도 있었다. 몇몇 청소년은 댓글의 좋은 점이 없다고 답변했다.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다가 심심하니까 쓰고, 내 느낌만 잠깐 쓰고, 저는 이 점은 없다고 봐요”라고 응답했다.

질문 : 댓글을 쓸 때(혹은 볼 때) 자신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 자기표현

1.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3. 못하는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닉네임이잖아요. 실명이 아니라서 다 비판하기
11. 아무래도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는 표현할 수 있으니깐 더 잘 평가해주고 그러겠죠.
15. 일단 뭔가 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워요.
16. 대놓고 말 못하는 것을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 상호소통

2. 저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구요.
7. 댓글을 보다보면 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보고,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8.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요. 그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14. 제가 몰랐던 부분을 생각하는게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앨범을 하나 듣고도 되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걸 이런 관점 말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할 때 많은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12.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같아서 좋다, 보는 입장일 경우에는 그렇고, 쓰는 입장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7. 연예인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18. 싸이월드 방명록은 멀리 있는 친구들끼리 연락할 수 있어 좋구요, 시사 같은 건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9. 다른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느낀 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고요.

□ (좋은 점) 없다

10.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도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다가 심심하니깐 쓰고, 내 느낌만 잠깐 쓰고, 저는 이 점은 없다고 봐요.
20. 별로 그런 게 없어요.

청소년들은 본인의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을 때 20명 중 20명 모두가 “제가 올린 것에 대해 사람들이 봐주고, 그것에 대해 반응을 했다는 것이 좋죠”,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봐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요.”, “네. 몇 개라도 달리면 좋으니깐. 댓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라며 댓글에 달린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다고 응답했다.

댓글 내용에 따라서 악플이나 반박 내용의 댓글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지 않고, 긍정, 부정, 무관심 표현 형태로 구분되어졌다. 먼저 좋지 않은 댓글(악플, 반박)에 긍정하는 경우는 “그냥 반응 올라오면 기분 좋던데, 나쁜 말이 많으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싸이월드는 친구들끼리 달아주는 거니깐 욕을 해도 장난식이니깐 제 별명 가지고 그런 식이니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애들이 나한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구나”, “좋게 반박해 주면 저도 이거 쯤 더 생각해 보고 쓸 쥔 이란 생각해요” 등이 있었다. 몇몇 청소년들은 나쁜 말이든, 반박이든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정하는 경우에는 “악플 달면 짜증나고”, “안좋은 댓글이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와 같이 악플이 달릴 경우 자신의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했다고 응답했다. 무반응의 경우에는 댓글의 내용에 상관없이 자신의 글에 다른 사람에 반응을 보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다. “악플에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냥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반응을 보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댓글을 하나의 글로 들어주니깐 그게 고마워요. 반박해 주는 것도 고맙고, 지지해주며 좋게 평가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래요. 안 좋은 댓글을 볼 땐 그냥 그

런가 싫어요”, “만약 안 좋은 댓글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별 생각은 안해요” 등 몇몇 청소년은 악플에 개의치 않고 댓글로 반응을 해 준 자체에 호의적인 응답을 보였다.

질문 : 당신의 게시물(댓글)에 타인이 또 다른 댓글을 달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 긍정

6.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니깐 댓글을 다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7. 대개 재미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직접보고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로 제 얘기를 공감할 때도 있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재미있어요.
11. 좋죠. 제가 올린 것에 대해 사람들이 봐주고, 그것에 대해 반응을 했다는 것이 좋죠.
12.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봐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요.
13. 네. 몇 개라도 달리면 좋으니깐. 댓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20. 좋게 달아준 댓글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 반박, 악플

① 긍정

10. 저는 그냥 반응 올라오면 기분 좋던데 나쁜 말이 많으면 안좋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싸이월드는 친구들끼리 달아주는 거니깐 욕을 해도 장난식이니깐 제 별명 가지고 그런 식이니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이 애들이 나한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4.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한 건 했다?라는 뿌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괜히 욕 하는거 보면 아휴, 그건 옛날에 이외수의 ‘하악하악’ 이란 책을 보면 “악플을 달 때 뇌에 드릴을 뚫어서 개념을 주입한 후 다시 ‘다십시오’ 라는 경고창을 뜨게 하면 그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고요. 좋게 반박해 주면 저도 이거 좀 더 생각해 보고 쓸 걸 이란 생각해요.

② 부정

5. 그냥 보고 간 것보다는 좋고, 악플 달면 짜증나고
8. 안달린 것보다 기분이 좋죠. 특별히 욕만 안쓰면 상관은 안해요.
16. 좋은 이야기이면 기분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 잠시 인터넷 소셜카페 작가여서 소설을 올렸었는데 ‘되게 신선해요’, ‘재미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았는데, 약간 비판하는 글 보면 기분이 약간 나빴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글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17. 그냥 좋아요. 만약 안좋은 댓글이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③ 무관심

15. 음,, 당연히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없는 것 보다 낫자나요. 근데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악플에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냥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반응을 보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8. 고마워요. 무시하는 댓글도 있지만 제 댓글을 하나의 글로 들어주니깐 그게 고마워요. 반박해 주는 것도 고맙고, 지지해주며 좋게 평가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래요. 안 좋은 댓글을 볼 땐 그냥 그런가 싶어요.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쏘 별로인데 별거 아니라 면 그냥 넘겨요.

19. 일단 제가 쓴 것에 반응을 해줘서 기분은 좋아요. 공감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만약 안좋은 댓글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별 생각은 안해요.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있어 중독적인 성향⁹⁾이 있는지 심층면접을 통해 질문하였다. 심층면접의 결과 20명 중 13명의 청소년들 인터넷 댓글에 중독성이 있다는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들의 중독성이 있다는 응답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졌다.

첫째, 재미로 댓글을 쓰다 생기는 중독성이다. 한 학생은 “예를 들어서 릴레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달고 그게 재미있어지면 보통 한번 달고 끝나는데 새로 고침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달고”라며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보고 중독성이 있다고 말했다.

둘째, 타인의 반응을 의식해서 쓰다 생기는 중독성이다. “사람들이 반응 보여줄 때, 계속해서 올리게 되요”, “관심 받고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기고, 즐거워하니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달면 딴 사람이 보고 달 수 있잖아요. ‘내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서 또 들어가서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라며 타인의 반응에 주목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셋째, 습관적 반복으로 인한 중독성이다. 자신의 경우는 아니지만 “일단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

9) 중독성 : 본 연구에서 인터넷 댓글의 중독적인 성향은 기존의 중독 개념인 급단과 내성, 가상현실 혼동 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중독 척도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용어보다는 ‘중독 성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사람이 쓴 다른 글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이상한 내용이 예요”, “가끔 댓글 보면 같은 아이디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쓰는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계속 쓰는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면서 몇몇 학생이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중독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인터넷 댓글이 중독성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해요. 댓글은 어차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까 그걸 중독이라고 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응답하면서 댓글에 중독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질문 : 댓글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 있다

① 재미로 인한 사용

5. 네. 예를 들어서 릴레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달고 그게 재미있어지면 보통 한번 달고 끝나는데 새로 고침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심심해서 댓글을 그냥 달면 다른 사람이 다음 이야기를 생각한대로 달고,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7.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개 재미있거든요. 현실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얘기를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서는 익명성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11.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댓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면 댓글을 달고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다고 봐요.
16. 네. 자기 의견 다는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장난으로 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끼리 장난으로 댓글로 대화가 된 적이 있어요.

② 타인의 반응에 의한 사용

8. 달다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9. 네. 사람들이 반응 보여줄 때, 계속해서 올리게 되요.
10. 중독성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달면 딴 사람이 보고 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확인하러 갔다가 그것을 달면, 내가 달고 쪽쪽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아니면 내가 올리고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지 보면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을 쓰겠죠. ‘내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해서 또 들어가서 또 보고 그런 식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12. 답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알 수 있으니까 (질문 : 그런 경

- 힘이?) 온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쓰는 것도 재미있구요.
13. 아까 말했는데 (댓글) 관심 받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댓글 보면 10페이지 정도 댓글을 달더라고요. 다른 글 보기하면 1,2,3,4,...1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똑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보면 거기에 단 댓글은 사람들도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기고, 즐거워하니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14.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글을 보고 한 댓글을 달고, 한글을 보고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럼 글을 계속 보고 '아, 여기에 무슨 댓글을 쓰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바라기도 하니깐요.
18. 네,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박하다보면 다음날 글 썼는데 같이 반박하는 사람이 안들어와 있으면 다음날 커서 들어가서 확인 할 것 같고 이렇다보면 중독성이 생길 것 같아요.

③ 습관적 반복에 의한 사용

15. 네, 일단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가끔 댓글 보다보면요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 사람이 쓴 다른 글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이상한 내용이예요. 이상한 내용을 쓰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내용을 쓰는 것 같아요.
20. 네, 가끔 댓글 보면 같은 아이디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쓰는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으니깐 계속 쓰는 것 같아요.

□ 없다

6. 중독성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만약에 친구들하고 댓글 가지고 논쟁을 한다거나 그러면 중독성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의견만 달고 하는 거다 보니까 중독성 같은 것은 크게 못느껴요.
17. 아니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서 중독성 같은 것에 대해 확실히 모르겠어요.
19.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해요. 댓글은 어차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깐 그걸 중독이라고 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와 이용행태와의 관계 및 영향 댓글 이용동기 요인과 이용행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III-16>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요인과 댓글 이용행태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행태 \ 동기		이용동기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이용 행태	의존형	-0.185**	0.092**	0.254**	-0.054*
	관계형	0.241**	0.240**	0.344**	-0.014
	방어형	0.245**	0.164**	0.077**	0.083**
	익명형	0.240**	0.184**	0.000	0.355**

Pearson 상관계수, N=2,020, ** $p < .01$, * $p < .05$

이용동기 요인 중 상호소통과 이용행태 요인 모두에게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형(-0.185)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관계형(0.241), 방어형(0.245), 익명형(0.240)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기표현 요인에서는 이용행태의 의존형(0.092), 관계형(0.240), 방어형(0.164), 익명형(0.184)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관심 요인에서는 익명형을 제외한 의존형(0.254), 관계형(0.344), 방어형(0.077)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익명성은 의존형(-0.054)과 부적 상관관계가, 방어형(0.083)과 익명형(0.355)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가 댓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이용동기 \ 이용행태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상호소통	-0.183**	0.243**	0.246**	0.241**
자기표현	0.090**	0.238**	0.164**	0.186**
관심	0.253**	0.344**	0.078**	-0.001
익명성	-0.054**	-.012	0.084**	0.356**
R ²	0.110	0.234	0.100	0.218

이용동기 \ 이용행태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adjusted R ²	0.108	0.232	0.099	0.217
F	62.375**	154.805**	56.586**	141.306**

N=2,020, ** $p<.01$, * $p<.05$

댓글 이용동기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별로 선형회귀분석(동시입력방식)을 실시하였다. 세 개 이상의 변수들을 입력 시 발생하는 공선성 존재를 진단하여 공차한계값이 0.10보다 훨씬 크며 VIF(분산팽창요인)은 10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나타나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이용동기 요인 중에서 상호소통은 의존형($\beta=-0.183$)에는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관계형($\beta=0.243$), 방어형($\beta=0.246$), 익명형($\beta=0.241$)에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은 이용행태 모든 요인과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행태 요인 중에서 의존형($\beta=0.253$), 관계형($\beta=0.344$), 방어형($\beta=0.078$)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익명성은 의존형($\beta=-0.054$)에는 부적 영향을, 방어형($\beta=0.084$), 익명형($\beta=0.356$)에는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이용동기 4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관계형이었고, 그 다음은 익명형, 의존형, 방어형 순으로 나타났다.

4)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

(1)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가해, 간접경험

①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가해, 간접경험

청소년에게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가해, 간접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피해, 가해, 간접경험의 유형을 선행연구를 통해 사생활폭로, 공개적 모욕, 성희롱, 개인정보피해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가해, 간접경험의 유무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항목의 빈도는 <표 III-18>과 같이 나타났다. 또한 경험 분류에 따라 4항목의 빈도 평균치를 산출하였다.

<표 III -18> 피해-가해-간접경험 빈도분석

문 항		있다 (%)	없다 (%)	N (%)
피 해 경 험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사생활폭로)	87 (4.2)	1,988 (95.8)	2,075 (100)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를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공개적 모욕)	111 (5.5)	1,922 (94.5)	2,033 (100)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성희롱)	98 (4.8)	1,951 (95.2)	2,049 (100)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개인정보피해)	80 (3.2)	2,010 (96.8)	2,090 (100)
피해경험 빈도(%) 평균		94 (4.4)	1,967 (95.6)	2,061 (100)
가 해 경 험	나는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사생활폭로)	72 (3.4)	2,022 (96.4)	2,094 (100)
	나는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공개적 모욕)	125 (6.0)	1,942 (94.0)	2,067 (100)
	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성희롱)	67 (3.2)	2,044 (96.8)	2,111 (100)
	나는 댓글로 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 (개인정보피해)	85 (4.0)	2,019 (96.0)	2,104 (100)
가해경험 빈도(%) 평균		87 (4.2)	2,007 (95.8)	2,093 (100)
간 접 경 험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사생활 폭로)	571 (30.4)	1,310 (69.6)	1,881 (100)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공개적인 모욕)	415 (22.0)	1,472 (78.0)	1,887 (100)
	댓글로 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성희롱)	504 (27.0)	1,360 (73.0)	1,864 (100)
	다른 사람이 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개인정보피해)	263 (13.8)	1,648 (86.2)	1,911 (100)
간접경험 빈도(%) 평균		438 (23.3)	1,447 (76.7)	1,885 (100)

피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사생활폭로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7명(4.2%), 공개적 모욕은 111명(5.5%), 성희롱 경험은 98명(4.8%), 개인정보피해가 80명(3.2%)으로써 평균 94명(4.4%)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명(3.4%), 공개적 모욕이 125명(6.0%), 성희롱이 67명(3.2%), 개인정보피해 85명(4.0%)으로써 평균 87명(4.2%)이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접경험의 경우, 타인이 타인에게 하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71명(30.4%), 공개적 모욕은 415명(22.0%), 성희롱은 504명(27.0%), 개인정보피해는 263명(13.8%)으로써 평균 438명(23.3%)이 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인터넷 댓글상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유형별 피해-가해-간접경험 빈도분석

구분 \ 유형	사생활폭로 N(%)	공개적 모욕 N(%)	성희롱 N(%)	개인정보피해 N(%)
피해경험	87(4.2)	111(5.5)	98(4.8)	80(3.2)
가해경험	72(3.4)	125(6.0)	67(3.2)	85(4.0)
간접경험	571(30.4)	415(22.0)	504(27.0)	263(13.8)

인터넷 댓글상에서 청소년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는 공개적 모욕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간접경험에서는 사생활폭로가 57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성희롱, 공개적 모욕 순이었다.

(2)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가해, 간접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청소년들이 댓글을 쓰거나, 볼 때 나쁜 점에 대해 심층인터뷰를 통해 질문했을 때, 청소년들의 답변은 피해경험과 간접경험으로 구분되었다.

피해경험은 기분이 상했을 경우로 “평가를 하다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싸움이 나요. 댓글로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 댓글 때문에 하루에 한번 씩은 봐요. 그러다가 짜증나면 제가 안해버리죠”, “악플이죠. 솔직히 제가 얼굴이 좀 커서 얼굴 작은 애랑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애가 얼굴 크다고 해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라고 나쁜 점에 대해 언급했다. 대부분의 청소년 간접경험을 “사람들이요.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면서요. 반말 쓰고, 욕하는 거요”, “대개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만화가 재미없다고 욕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것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계속 욕으로 리플을 달아요. ‘그럴 꺼면 왜 보냐’라는 식으로”라고 타인이 쓴 댓글 내용에 대한 간접경험에 대해서 답했다.

질문 : 댓글을 쓸 때(혹은 볼 때) 자신에게 나쁜 점은 무엇이나요?

□ 피해경험

10. 아까 말했듯이 평가를 하잖아요. 노래 같은 것, 음악을 듣고 평가를 하다보면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싸움이 나요. 댓글로 ‘네가 뭘데 나한테 그려냐고... 그 댓글 때문에 하루에 한번 씩은 봐요. 그러다가 짜증나면 제가 안해버리죠. 그런 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낀 걸 쓴 것뿐인데 굳이 싸움까지 할 필요는
11. 악플이죠. 솔직히 제가 얼굴이 좀 커서 얼굴 작은 애랑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애가 얼굴 크다고 해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16.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뜻으로 말 한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밑에다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달자나요. 그때 짜증나요.

□ 간접경험

2. 저는 잘 안쓰고 보기만 하는데요. 댓글을 복사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뭘지 궁금해서 보게 되는 대부분 이상한 글들이에요. 누구 욕하거나
5.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려서 올렸는데 어떤 사람이 만화가 재미없다고 욕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것에 관심이 쏠려가지고 계속 욕으로 리플을 달아요. ‘그럴 꺼면 왜 보냐’라는 식으로
6. 사람들이요.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면서요. 반말 쓰고, 욕하는 거요.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병신을 바, 사 그런 식으로 쓰던지,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욕을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9. 익명성. 왜냐하면 네이버서 지금 그런거 해주기도 하지만 대개 질문을 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대개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 그리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도 많잖아요.
12.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깐 욕도

그냥 막 쓰고, 보는 사람은 신경 안쓰고 그냥 자기만족으로 하다 보니깐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3. 너무 기사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충분히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쓸 때, 잘 아는 것 같이 쓰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들은 게 많으니깐,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들은 것을 이것은 맞다라고 단정 짓고, 쓰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것 볼 때도 제가 들은 것에서만 한정 되가지고 그 사람이 ‘틀렸다’, ‘아니다’ 단정 지으니깐

자신의 댓글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겪은 청소년들의 응답은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으로 구분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으로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공감 가는 사람들은 공감 간다고 올리고, 자기들도 전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건 뭐 글이냐’라고 하면서 올리죠”라고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가해의 경우 “저는 다시 악플, 연예인 욕하면 그 연예인 팬이 와서 악플 달고”라는 악플과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식으로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댓글을 단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라고 본인의 댓글에 타인이 피해를 겪은 사례에 대해 말했다.

질문 : 자신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댓글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 피해경험

8.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공감 가는 사람들은 공감 간다고 올리고, 자기들도 전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건 뭐 글이냐’라고 하면서 올리죠.
9. 쓸데없는 댓글을 올렸다고 하면 제 아이디가 만일 123이에요. ‘123님 좀 어이없네요’ 좀 그런 건 하는데 그런데 피갈게요. 이런 건 반응을 안하는데 특이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카페에다가 ‘저도 저번에 여기에 권상우 온 거 봤는데’ 그러면 ‘123님 보셨어요?’ 이런 거

13. 몇 번 댓글을 썼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욕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별로 욕한 적은 없어요.

□ 가해경험

3. 저는 다시 악플. 연예인 욕하면 그 연예인 팬이 와서 악플 달고
15. 네.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댓글을 단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16. 네, 옛날에 연예인 주지훈 사진이 되게 많았는데, 웃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 왜그래, 되게 웃긴다’ 라고 글 쓴 적이 있었는데 옆에 팬이 있었나봐요. ‘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이러면서 거의 한 5개가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 팬들이 과민반응 보여서 어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을 쓴 것을 본 경우는 모두 간접경험에 해당하였으며, 이것은 피해와 가해로 구분되어졌다.

먼저 댓글로 피해를 당한 경우는 “**좋게 좋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요. ‘특 년 뭐냐’ 이런 식으로**”, “**연예인 사진 찍어서 올린 것 밑에 욕 써놓은거요**” 라고 쓰여진 댓글로 반응되어진 것을 보았다고 응답했다. 또 가해의 경우는 “**블로그에 이웃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붙었는데 계속 블로그 안부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러를 해요. 그럼 원래 일대일 싸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맥을 불러서 범위가 커지면서 대규모로 공격해서 이웃이 블로그를 폐쇄했어요**”와 같이 자기에게 친밀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희야’ 보니까 못생겼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 수십명 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 라고 쓴 걸 많이 봤어요**”와 같이 피해의 대상은 댓글의 내용과 진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댓글들이 가해하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질문 : 남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 쓴 것을 본 적이 있나요?

□ 피해경험

10.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좋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요. ‘툭 년 뭐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번 것은 정말 별로인데’, ‘이건 아닌데’라고 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을 쪽쪽 달다가 싸워요.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 중에서도요.
15. 네, 진지하게 토론 하는 건 괜찮은데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해지면 사람들이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식이 없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17. 네. 연예인 사진 찍어서 올린 것 밑에 욕 써 놓은거요.
18. 네. 뉴스기사 중 의상 패션쇼 같은 거에서 본적 있어요. 한쪽은 ‘멋지다, 멋있다’ 이렇게 남기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 뭐가 예쁘냐, 촌스럽다’ 이렇게 써 놓은 거 본적 있어요.
20. 네. 연예인에 관한 거요. 요새 연예인이 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에 관해해서 기사가 뜨자나요. 그 밑에 달려있는 악플들 본적 있어요.

□ 가해경험

4. 기사 같은 거 쓰면요 기자가 어이없는 거 쓰잖아요. 미니홈피 보고 기사 쓰잖아요 기자 안티라고 해서 기자 욕하는 거 쓰는 거 봤어요.
5. 블로그에 이웃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붙었는데 계속 블로그에다가 안부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러를 해요. 그럼 원래 일대일 싸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맥을 불러서 범위가 커지면서 대규모로 공격해서 이웃이 블로그를 폐쇄했어요.
6. 많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회야’가 피아니스트로 나왔을 때요. 어떤 사람이 ‘회야’ 보니까 못생겼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수십 명 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말을 썼는데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나’ 라고 쓴 걸 많이 봤어요.
12. 친구들끼리 장난 식으로 하는 걸 봤어요. 만약에 사진을 보고서 ‘정말 잘 나온 것 같지 않냐?’ 하면 다른 친구가 욕하고
19. 네, 제가 연예인 좋아하다 보니 다른 팬들과 충돌이 있는데 댓글로 싸우거나 그런 정도요.

(2)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

① 피해 후 생활변화에 대한 빈도분석 및 요인분석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피해경험) 후에 표준오차(SE) $\pm 5\%$ 이내 항목은 ‘화가 났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평균을 나타냈다. 평균이 가장 높은 항목은 ‘화가 났다’(2.79), 그 다음이 ‘우울했다’(2.25), ‘불안하거나 초조’(2.18),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어졌다’(1.97),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성적이 떨어졌다’(1.90),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1.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20> 참조).

〈표 Ⅲ-20〉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항목별 평균

항 목	M	SE	SD
우울했다	2.25	0.05	1.31
화가 났다	2.79	0.06	1.49
불안하거나 초조했다	2.18	0.05	1.29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86	0.05	1.12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시도했다	1.73	0.04	1.08
건강이 나빠졌다	1.74	0.04	1.05
생활에 의욕이 없어졌다	1.81	0.05	1.13
대인관계가 두려워지고 위축됐다	1.80	0.05	1.12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성적이 떨어졌다	1.90	0.05	1.18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강해졌다	1.72	0.04	1.07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졌다	1.97	0.05	1.25
내가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	1.82	0.05	1.16

N=583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통한 피해 후, 생활의 변화에 대한 11개 항목에 대하여 베리맥스 직각회전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1이상의 아이겐값 큰 순으로 행동·인식 변화(5.95), 감정 변화(2.77)라는 2가지 요인구조가 추출되었고, 행동·인식 변화는 49.60%, 감정 변화는 23.08%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요인의 전체 변량 설명력은 72.68%이다.

〈표 Ⅲ-21〉 인터넷 댓글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분석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분석		성분	
		1	2
요인 1 행동·인식	건강이 나빠졌다	0.887	0.164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분석		성분	
		1	2
변화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강해졌다	0.847	0.073
	대인관계가 두려워지고 위축됐다	0.836	0.309
	생활에 의욕이 없어졌다	0.826	0.327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성적이 떨어졌다	0.822	0.277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시도했다	0.813	0.258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0.726	0.424
	내가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	0.704	0.112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졌다	0.655	0.301
요인 2 감정변화	화가 났다	0.038	0.881
	우울했다	0.310	0.847
	불안하거나 초조했다	0.427	0.785
eigenvalue		5.952	2.770
설명력(%)		49.597	23.080

(2) 피해 후 생활변화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결과

청소년들이 쓴 온라인의 댓글이 오프라인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묻기 위한 질문에서 20명의 청소년 중 6명의 친구들이 영향(갈등)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응답은 가해경험과 간접경험 형태로 구분했고, 가해로 인한 갈등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다. 가해경험 사례로는 “누나랑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누나의 블로그에 글을 쓸게 있어서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안좋은 내용을 달아가지요”, “조금 말다툼했어요. 그냥 다들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가 있었다. 피해의 경우는 ‘권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간접경험 사례로는 “친구가 되게 장난식으로 악플을 다는 것 보고 쯤 ‘그러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과 “남동생이 여기저기 그냥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거보고 엄청 혼냈는데 동생이 재미있는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나가 무슨 상관이나고 뭐라고 하는거

예요. 그래서 그때 혼냈던 적”이 있다면서 몇몇 청소년은 다른 사람이 댓글로 가해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어 응답했다.

질문 : 댓글 때문에 부모(가족) 친구와 갈등(혹 문제)이 생긴 적이 있나요?

□ 온라인의 행동이 오프라인의 상황에 영향(갈등)을 준 경우

① 가해경험

5. 누나랑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누나의 블로그에 글을 쓸게 있어서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안좋은 내용을 달아가지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심심해서 (누나 블로그에) 아무 게시판에 욕을 써놓았어요. 집에 왔더니 누나가 때려가지고 그래서 싸웠어요.
8. 말다툼까지는 아니구요. 그냥 하지 말라는 식으로
9. 선생님 홈페이지에 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말하고, 그 때는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은 이해 가요. 그 때는 애들이 많이 올렸거든요.
16. 조금 말다툼했어요. 그냥 다들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② 간접경험(가해에 대한)

14. 네, 친구가 되게 장난식으로 악플을 다는 것 보고 좀 ‘그러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15.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이 많았어요. 아무리 장난이여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된다, 이런거요. 동생 이었는데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그 때 동생이 철이 좀 덜 들었어나봐요. 막 여기저기 그냥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악플도 아니고 그냥 욕하는 그런? 제가 그거 보고 엄청 혼냈는데 동생이 재미있는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나가 무슨 상관이나고 뭐라고 하는거 예요. 그래서 그때 혼냈던 적이 있어요.

(3)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와 실명제도입과의 관계

① 실명제 도입에 대한 양적 조사

사이트 특성에 따른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여 질문한 결과, 모든 사이트(3.07)에 실명제 도입이 가장 높았고, 뉴스게시판(2.98), 포털사이트(2.85)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사이트별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

항목	N	M	SE	SD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 도입	2,228	3.067	0.029	1.361
포털 사이트만 실명제 도입	2,216	2.846	0.028	1.312
뉴스게시판만 실명제 도입	2,213	2.979	0.029	1.364
전체	2,212(유효)	2.964		

〈표 Ⅲ-23〉 사이트 특성에 따른 실명제 희망정도와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사이트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모든 사이트 실명제 도입	-0.030	0.213**
포털사이트만 실명제 도입	0.107**	0.167**
뉴스게시판만 실명제 도입	0.082	0.170**

Pearson 상관계수, N=576, ** $p < .01$, * $p < .05$

사이트 특성에 따른 실명제 도입 희망정도와 댓글로 인한 피해 경험자들의 심리상태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인식변화에서는 포털사이트만 도입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감정변화에서는 모든 사이트 실명제 도입(0.213), 포털사이트만 도입(0.167), 뉴스게시판 도입(0.170)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실명제 도입에 대한 문화기술적 접근 결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전체 20명중 찬성 11명, 반대 4명, 중립 5명으로 구분되었다.

실명제를 찬성한 청소년의 경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욕 같은 거 쓰는 거 막으려면 실명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니깐 조심하게 되죠”, “네이버나 다음보다 싸

이월드는 실명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악성 댓글이 별로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실명제가 되게 괜찮다고 느꼈어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새 연예인들 그런걸로 상처 많이 받고, 또 너무 막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 이름을 쓰니 대놓고 아무 말이나 못하잖아요”라고 응답했다. 실명제를 찬성한 청소년의 공통 된 의견은 욕과 비방성 글을 막고 그로 인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명제를 반대한 경우는 “실명제 해도 쓸 사람은 쓰잖아요”, “인터넷 실명제 되어도 지금이랑 변함이 없을 꺼라고 생각해요”라며 실명제를 해도 소용이 응답한 경우가 있었고, “그렇게 까지 실명제 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보가 공개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건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깐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인터넷의 자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있었다. 중립의 경우에는 실명제의 장, 단점을 말하며 “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안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이라고 응답했다.

질문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찬성

1.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실명으로 하고 있구요. 이상한 욕 같은 거 쓰는 거 막으려면 실명제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2. 실명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
6. 사람들이요. 자꾸 가명으로 인터넷을 쓰니까요. 심한 욕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난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쓰는데 덜해질 것 같아요.
12. 싸이월드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1촌 아니면 별로 피해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보완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완되어 있지 않으면 좀 그런데 보완되어있으니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13. 좋은 것 같아요. (질문 : 어떤 면에서?) 앎튼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니까 조심하게 되죠. 이상한, 쓰잘때기 없는 글을 달

- 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해보고 달겠죠.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올건가.
14. 처음엔 적극 찬성이었는데요. 솔직히 같은 이름이 되게 많자나요. 그것 때문에 굳이 큰 효과를 볼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그걸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댓글 다는데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적어도 찬성.
15. 괜찮은 것 같아요. 익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말을 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이버나 다음보다 싸이월드는 실명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악성 댓글이 별로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실명제가 되게 괜찮다고 느꼈어요. 자기 이름 달고 쓰는건데 아무렇게나 쓸 수 없잖아요.
16.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새 연예인들 그런 걸로 상처 많이 받고, 또 너무 막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제 친구가 싸이를 하는데 다른 친구 위로해 준다고 댓글로 개 왜 그러니라고 썼는데 다른 친구가 분겨예요. 그랬더니 로그오프로 들어와서 욕을 하고, 누군지도 모른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니홈피를 일촌,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런적이 되게 많아서 실명제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너무 막말해요. 부모님 욕도하고.
17. 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 이름을 쓰니 대놓고 아무 말이나 못하잖아요.
18. 네. 물론 좋은 쪽으로 쓰이게 개방하면 함부로 사람들에게 욕설이라든지, 이상한 글을 쓴다든지 하는 것이 자제될 것 같아요. 당당하다면 자기 마음껏 글을 쓴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별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19. 실명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실명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악플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구요, 자기가 쓴 댓글엔 책임을 져야하니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 반대

3. 실명제 해도 쓸 사람은 쓰잖아요.
4.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욕할 애들은 다 욕해요.
9. 인터넷 실명제 되어도 지금이랑 변함이 없을 꺼라고 생각해요.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옆에 달려 있어야 좀 효과가 있지, 실명제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20. 그렇게 까지 실명제 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보가 공개되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건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중립

5.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 생활 침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실명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7. 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무턱 대고 비난을 하는 사람은 관리자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괜찮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8.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욕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욕을 쓸 때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욕을 써도 누군지 모르니깐 IP 모르면 반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깐 그럼 심리에 의해서 막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 이름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니깐 좀 막말을 자제하겠죠.

10. 그것은 하면은 댓글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깐 자기별명 같은 닉네임을 했으면 아예 못 바꾸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실명제 보다는 못 바꾸게 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닉네임을 쓰는데 그 사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요.

11.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점은 개인 정보가 새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유출할 수 없고,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익명성을 이용해 악플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게 나쁜 것 같아요.

5)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과 인권침해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1)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행태와 ‘피해 후 생활변화’와의 관계 및 영향 이용동기와 이용행태가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나타나는 변화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용동기 요인이 행동·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관심($\beta=0.155$)이었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호소통($\beta=-0.09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심이 상호소통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가 피해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용동기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상호소통	-0.098*	0.196**
자기표현	0.070	0.120**
관심	0.155**	-0.041
익명성	-0.031	0.037

이용동기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R ²	0.038	0.055
adjusted R ²	0.031	0.047
F	5.185**	7.653**

N=529, ** $p < .01$, * $p < .05$

댓글로 인한 피해로 나타나는 변화 요인, 감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 요인은 상호소통($\beta = 0.196$)과 자기표현($\beta = 0.120$)으로서 정적인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있었다.

이용행태가 댓글로 인한 피해로 발생하는 생활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용행태의 의존형 요인($\beta = 0.371$)과 익명형 요인($\beta = -0.103$)으로, 의존형 요인은 정적인, 익명형 요인은 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행태 요인은 의존형($\beta = -0.120$), 관계형($\beta = 0.101$), 방어형($\beta = 0.152$) 요인이었는데, 의존형 요인은 부적인 인과관계를 보였고, 관계형, 방어형 요인은 정적인 인과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감정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방어형, 의존형, 관계형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가 피해 후 생활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용동기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의존형	0.371**	-0.120**
관계형	0.067	0.101*
방어형	-0.035	0.152**
익명형	-0.103**	0.080
R ²	0.159	0.052

이용동기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adjusted R ²	0.152	0.045
F	25.217**	7.276**

N=536, ** $p < .01$, * $p < .05$

(2)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행태, 피해 후 변화와의 차이, 관계 및 영향

사회적지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적별, 부모양육태도별에 따른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부모양육태도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적별에서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누나/언니, 친한 친구의 지지를 제외하고 상위권이 중, 하위권에 비해 사회적지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6〉 성적별 집단 간의 인터넷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의 차이

항 목	M	SE	성적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내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	3.03 (N=2,106)	0.03	3.16	2.94	3.00
			F=6.37**		a>b,c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6 (N=2,010)	0.03	3.12	2.91	2.88
			F=8.18**		a>b,c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9 (N=1,996)	0.03	3.15	2.91	2.91
			F=9.30**		a>b,c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7 (N=1,475)	0.03	3.10	2.91	2.92
			F=3.74*		a>b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9 (N=1,475)	0.03	3.07	2.92	3.00
			F=1.91		-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6 (N=1,479)	0.03	3.08	2.94	2.87
			F=3.86*		a>c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2.94 (N=1,428)	0.03	3.09	2.91	2.87
			F=4.15*		a>c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	3.27 (N=2,060)	0.03	3.37	3.22	3.25
			F=2.52		-

** $p < .01$, * $p < .05$

사회적지지와 댓글 이용동기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익명과 남동생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계수가 높은 이용동기 요인은 상호소통과 자기표현이었고, 그에 비해 낮은 상관관계 계수를 보인 요인은 관심과 익명성이었다.

〈표 III -27〉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간의 상관관계

항목	이용동기 요인			
	자기표현	상호소통	관심	익명성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59**	0.187**	0.170**	0.161**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56**	0.204**	0.166**	0.185**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56**	0.212**	0.163**	0.174**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46**	0.185**	0.199**	0.189**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48**	0.174**	0.193**	0.185**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50**	0.179**	0.191**	0.167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65**	0.167**	0.202**	0.170**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366**	0.159**	0.196**	0.164

Pearson 상관계수, N=1,112, ** $p < .01$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소통에서 중요한 사람의 지지와 친한 친구, 여동생의 지지에서 정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표현에서는 어머니의 지지에서 정적인 인과관계를 보였고, 관심과 익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었다.

〈표 III -28〉 사회적지지가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 이용동기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50**	0.094	0.032	0.025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29	0.014	-0.024	0.126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62	0.221*	-0.121	-0.070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06	0.034	0.146	0.123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18	-0.056	0.010	0.078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93	0.060	-0.081	-0.117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77*	-0.104	0.170	0.029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32*	-0.044	0.080	0.009
R ²	0.158	0.050	0.049	0.040
adjusted R ²	0.152	0.043	0.042	0.033
F	25.878**	7.273**	7.075**	5.729**

N=1112, ** $p < .01$, * $p < .05$

사회적지지와 댓글 이용행태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존형 요인을 제외하고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요인에서 사회적지지 모든 변인에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관계형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 -29〉 사회적지지와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 간의 상관관계

항목	이용행태 요인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3	0.221**	0.242**	0.226**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3	0.221**	0.202**	0.199**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20	0.231**	0.176**	0.215**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0	0.242**	0.199**	0.216**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4	0.240**	0.196**	0.192**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8	0.222**	0.209**	0.190**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18	0.241**	0.208**	0.19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40	0.240**	0.213**	0.197**

Pearson 상관계수, N=1,115, ** $p<.01$, * $p<.05$

사회적지지와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동·인식 변화에서는 모든 사회적지지의 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감정 변화에서 모든 변인과 낮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중요한 사람의 지지(0.220)였고, 나머지 변인에서는 대체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Ⅲ-30〉 사회적지지와 ‘피해 후 생활변화’ 간의 상관관계

항 목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	
	행동인식변화	감정변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50	0.200**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11	0.118*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20	0.110*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13	0.148**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0	0.125*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29	0.132*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0	0.137*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07	0.149**

Pearson 상관계수, N=340, ** $p < .01$

사회적지지 변인 중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 후 감정변화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사람의 지지($\beta = 0.231$)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1〉 사회적지지가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54	0.231*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51	-0.061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19	-0.105

나의 형/오빠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15	0.140
나의 누나/언니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69	-0.066
나의 남동생은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35	-0.012
나의 여동생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114	0.021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029	0.039
R ²	0.018	0.047
adjusted R ²	-0.005	0.024
F	0.770	2.035*

N=340, ** $p < .01$ * $p < .05$

심층인터뷰를 통한 청소년들의 댓글을 다는 행동에 주위사람들의 반응은 두드러지게 구분되어지는 점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의 긍정은 없었으며, 부정의 경우와 무관심으로써 구분되어 응답되어졌다. 부정의 경우 ‘하지말라’, ‘혼냄’ 등의 반응으로써 “엄마가 가끔제가 이런 것(댓글)을 하는 것을 보면요. 비판적인 글을 쓰면요. 뭐라고 하세요”, “마음에 안드는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익명으로... 그런데 큰 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어이없게도.... 너인 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우라고”라며 자신의 사례를 들며 설명했다. 또한 무관심의 경우는 “그냥 별말 안해요”, “나쁘게 달지만 않으면 그렇게 상관은 안하는 것 같아요”, “별로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는 인터넷 사 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관여를 안해요”, “아니요. 그냥 별 이야기 안해요”라며 자신이 댓글행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예를 들어 응답했다.

질문 : 부모/형제/친구들이 학생이 댓글 다는 것에 뭐라고 생각을 표현한적 있나요?

□ 긍정

없음

□ 부정

- 6 있어요 동생이요. 제가 댓글 다는 것을 보더니 '왜 그런 식으로 다냐'는 거예요 제가 그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농담한 걸 가지구요. 다른 애들은 '뭐 이런 짓을 하나'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바른 말 썼더니 그 애(동생)가 비판하려면 '약하게 하지 말고, 딱딱 해야지' 더 센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구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보세요. 신경을 안쓰세요.
8.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시니깐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 잘 모르시죠. 엄마가 가끔 제가 이런 것(댓글)을 하는 것을 보면요. 비판적인 글을 쓰면요. 뭐라고 하세요.
9. 딱 한번 있어요. 3년 전쯤예요. 마음에 안드는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익명으로 그런데 큰 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어이없게도 너인 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우라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쳐서 결국 못 지웠죠.
16. 아빠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시면서, 신조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빠는 못 알아들으시니까. 욕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나고, 다 되돌려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어요.

□ 무관심

10. 그냥 별말 안해요. 그럼 친구도 같이 달아요. '나도 해야지' 그런 적은 있는데 댓글 단다고 '중독자냐. 그런 거 왜 하나' 하는 것은 없어요.
11. 나쁘게 달지만 않으면 그렇게 상관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말하는 거면 별로 상관은 하지 않아요.
15. 근데 별로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는 인터넷 사용하는데 있어서 서로 관여를 안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제가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 아니라 별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부모님은 인터넷 하는 거 보면 인터넷 하지 말라고 하시고 혹시 댓글을 달면 말 조심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18. 아니요. 그냥 별 이야기 안해요. 만약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에 쓰는 것에 뭐라고 나오긴 하는데 별로 없어요.

(3) 자아상과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행태, 피해 후 변화와의 관계
 청소년 자아상에 관련한 16개 항목으로 베리맥스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5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가족만족의 설명력은 21.30%, 현실적응
 13.63%, 친구사귀 12.06%, 부모만족 10.89%, 감정조절은 10.47%으로
 5개 요인이 전체변량의 설명력은 총 68.37%였다.

<표 III-32> 청소년 자아상에 대한 요인분석

자아상 요인분석		성분				
		1	2	3	4	5
요인 1 가족 만족	부모님은 대체로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0.762	0.030	-0.088	0.033	-0.022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	0.753	-0.142	0.163	-0.106	-0.096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0.738	-0.106	-0.051	-0.014	-0.090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로 사이가 좋다	0.697	-0.068	-0.154	0.247	-0.035
	남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0.678	-0.366	0.174	-0.039	-0.151
	내가 커서 가정을 이루면 적어도 우리집과 비슷할 것이다	0.641	-0.096	-0.362	0.087	-0.082
요인 2 현실 적응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다	0.056	0.743	0.345	0.073	0.101
	나는 길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0.361	0.661	-0.083	0.197	0.153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0.024	0.660	0.374	0.045	0.111
	삶이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	-0.404	0.650	0.007	0.058	0.157
요인 3 친구 사귀	친구 사귀기가 심하게 힘들다	-0.026	0.150	0.829	0.204	0.140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힘들다	-0.119	0.192	0.812	0.171	0.110
요인 4 부모 만족	우리 아버지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0.045	0.098	0.150	0.878	0.119
	내 부모님을 대체로 믿을 수 없다	0.073	0.130	0.192	0.856	0.123
요인 5 감정 조절	나는 쉽게 이성을 잃는다	-0.116	0.123	0.124	0.167	0.880
	나는 대체로 화를 잘 낸다	-0.167	0.231	0.144	0.084	0.850

자아상 요인분석	성분				
	1	2	3	4	5
eigenvalue	3.408	2.181	1.930	1.742	1.677
설명력(%)	21.300	13.634	12.063	10.890	10.479

응답자의 자아상 요인과 댓글 이용동기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상요인에서 가족만족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상호소통(0.230)이었고, 나머지는 유의미하지만 낮은 상관관계 값을 보였다. 현실적응에서는 상호소통이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친구사귀에서는 상호소통이 정적 상관관계, 자기표현과 익명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만족에서는 자기표현과 관심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감정조절에서는 상호소통과 관심에서 부적인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III-33〉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요인과 자아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이용동기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자 아 상 요 인	가족만족	0.230**	0.099**	-0.064**	0.074**
	현실적응	-0.162**	-0.042	-0.065**	-0.081**
	친구사귀	0.071**	-0.049*	-0.028	-0.045*
	부모만족	-0.015	-0.085**	-0.128**	-0.007
	감정조절	-0.060**	0.013	-0.090**	-0.026

Pearson 상관계수, N=1,959, ** $p<.01$, * $p<.05$

자아상 요인 중에 상호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만족($\beta=0.232$)과 친구사귀($\beta=0.070$), 감정조절($\beta=0.062$)이었고 현실적응($\beta=-0.165$)은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자기표현에서는 가족만족($\beta=0.100$)이 정적 영향력을 보였고, 친구사귀($\beta=-0.051$)과 부모만

족($\beta = -0.085$)은 낮은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관심에는 가족만족($\beta = -0.063$), 현실적응($\beta = -0.063$), 부모만족($\beta = -0.129$), 감정조절($\beta = -0.091$)이 부적인 영향력을 보였고, 익명성에서는 가족만족($\beta = 0.075$)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현실적응($\beta = -0.082$), 친구사귀($\beta = -0.045$)에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자아상 요인이 댓글 이용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상 \ 이용동기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가족만족	0.232**	0.100**	-0.063**	0.075**
현실적응	-0.165**	-0.042	-0.063**	-0.082**
친구사귀	0.070**	-0.051*	-0.030	-0.045*
부모만족	-0.013	-0.085**	-0.129**	-0.007
감정조절	0.062**	0.013	-0.091**	-0.026
R ²	0.089	0.022	0.034	0.015
adjusted R ²	0.087	0.019	0.031	0.012
F	38.150**	8,583**	13.612**	5.911**

N=1959, ** $p < .01$, * $p < .05$

이용행태와 자아상 요인 간에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요인 간에 낮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가족만족에서는 의존형(-0.164) 요인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방어형(0.163), 익명형(0.062) 요인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현실적응에서는 관계형(-0.088), 방어형(-0.111), 익명형(-0.068)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의존형(0.078) 요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친구사귀에서는 의존형(-0.119)과 익명형(-0.066)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부모만족에서는 의존형(-0.140), 관계형(-0.120)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정조절에서는 관계형(-0.100), 익명형(-0.052)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방어형(0.053)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Ⅲ-35〉 댓글 이용행태 요인과 자아상 요인 간의 상관관계

변인		이용행태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자 아 상 요 인	가족만족	-0.164**	0.017	0.163**	0.062**
	현실적응	0.078**	-0.088**	-0.111**	-0.068**
	친구사귀	-0.119**	0.024	-0.041	-0.066**
	부모만족	-0.140**	-0.120**	0.003	-0.024
	감정조절	-0.002	-0.100**	0.053*	-0.052*

Pearson 상관계수, N=2,018, ** $p<.01$, * $p<.05$

자아상 5가지 요인이 이용행태의 각 요인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존형 요인에서는 현실적응($\beta=0.078$)은 정적 인과관계가, 가족만족($\beta=-0.163$), 친구사귀($\beta=-0.118$), 부모만족($\beta=-0.141$)과는 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 요인에는 현실적응($\beta=-0.087$), 부모만족($\beta=-0.121$)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형 요인에는 가족만족($\beta=0.164$)과 감정조절($\beta=0.053$)은 정적인 영향을, 현실적응($\beta=-0.112$)은 부적 영향력을 보였다. 익명형에서는 가족만족($\beta=0.062$)은 정적인 영향을, 현실적응($\beta=-0.069$), 친구사귀($\beta=-0.067$), 감정조절($\beta=-0.052$)에서는 부적 영향이 있었다.

〈표 Ⅲ-36〉 자아상 요인이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자아상 \ 이용동기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가족만족	-0.163**	0.016	0.164**	0.062**
현실적응	0.078**	-0.087**	-0.112**	-0.069**
친구사귀	-0.118**	0.022	-0.042	-0.067**
부모만족	-0.141**	-0.121**	0.003	-0.024

자아상 \ 이용동기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감정조절	-0.004	-0.101	0.053*	-0.052*
R ²	0.067	0.033	0.044	0.016
adjusted R ²	0.064	0.031	0.041	0.014
F	28.713**	13.759**	18.360**	6.619**

N=2,006, ** $p < .01$, * $p < .05$

자아상의 5가지 요인과 댓글로 인해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 변화에서는 친구사قم, 부모만족, 감정조절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 변화에서는 가족만족만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현실적응, 부모만족과 감정조절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표 III-37> 자아상과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자아상요인 \ 생활변화요인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자 아 상 요 인	가족만족	0.011	0.220**
	현실적응	-0.025	-0.231**
	친구사قم	-0.327**	0.017
	부모만족	-0.371**	-0.056**
	감정조절	-0.116**	-0.133**

Pearson 상관계수, N=565, ** $p < .01$

자아상 요인이 피해 후 변화 요인 중 행동·인식 변화에 친구사قم, 부모만족, 감정조절 요인이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냈고, 감정변화에는 가족만족은 정적 영향력이, 현실적응과 감정조절은 부적 영향력을 나타냈다.

〈표 Ⅲ-38〉 자아상 요인이 피해 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자아상 \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가족만족	-0.067	0.184**
현실적응	-0.016	-0.187**
친구사귀	-0.283**	0.050
부모만족	-0.317**	-0.034
감정조절	-0.102**	-0.108**
R ²	0.222	0.101
adjusted R ²	0.215	0.093
F	31.834**	12.505**

N=565, ** $p<.01$, * $p<.05$

(4) 인터넷의존과 인터넷 댓글 이용동기 및 행태, 피해 후 변화와의 관계
 인터넷의존에 관련한 20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이용동기, 이용행태, 피해 후 변화와 각각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터넷의존의 20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지만 요인이 1개로 묶여 추출되었고, 의존정도에 따라 3집단으로 구분되어 상관관계 분석이 불가능하여 20개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39〉 이용동기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변인	이용동기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
인터넷의존평균	0.173**	0.228**	0.209**	0.154**

Pearson 상관계수, N=1,960, ** $p<.01$, * $p<.05$

이용동기의 4가지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기표현

(0.228)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0.209), 상호소통(0.173), 익명(0.154) 순으로 상관관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0〉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변인	이용행태			
	의존형	관계형	방어형	익명형
인터넷의존평균	0.130**	0.332**	0.071**	0.208**

Pearson 상관계수, N=2,045, ** $p < .01$, * $p < .05$

이용행태 모든 요인에서 인터넷의존 평균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은 관계형(0.332) 요인이었다. 모든 요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댓글 피해 후 변화와 인터넷의존 간의 상관관계

변인	피해 후 변화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인터넷의존평균	0.305**	0.271**

Pearson 상관계수, N=565, ** $p < .01$, * $p < .05$

댓글로 인한 피해 후 생활변화 요인과 인터넷의존 평균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 변화(0.305)에서 정적인 상관관계 값이 컸고, 감정 변화(0.271)는 그보다 작게 나타났다.

6)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및 대책

(1)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에 대한 법의식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 관련하여 항목별 법적인 처벌 강도를 살펴보았다. 댓글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유형인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협박, 성희롱,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스토킹, 음란·폭력물 배포에 대한 처벌강도 정도가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높은 평균을 보인 것은 스토킹(4.29)이었고, 그 다음이 성희롱(4.27), 명예훼손(4.22), 음란·폭력물 배포(4.14), 협박(4.04),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3.66)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전체 침해유형을 합산한 평균은 4.10이었다.

5점 척도에서 처벌 희망정도가 높은 순으로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스토킹은 85.8%, 성희롱 85.3%,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은 84.4%, 폭력, 음란물 배포는 82.8%,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은 73.3%로 나타났다.

〈표 III-42〉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

항목	N	M	SE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2,205	3.66	0.02
협 박	2,206	4.04	0.02
성희롱	2,203	4.27	0.02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	2,205	4.22	0.02
스토킹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2,204	4.29	0.02
음란, 폭력물 배포	2,204	4.14	0.02
전체	2,195(유효)	4.10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처벌 강도와 관련한 문제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집단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ANOVA Tur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학교별에서는 모욕, 협박, 성희롱, 명예훼손, 스토킹, 음란·폭력물 배포

모든 침해유형 변인에서 중학교와 인문고가 전문고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욕에서 전문고가 3.49점으로 중학교가 3.68점, 인문고 3.71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협박에서 중학교가 4.07점, 인문고가 4.08점으로 전문고 3.7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에서는 중학교와 인문고 4.30점, 전문고 4.04점이었고, 명예훼손에서는 중학교가 4.25점, 인문고는 4.26점, 전문고는 4.01점이었다. 스토킹에서는 중학교와 4.31점, 인문고 4.34점, 전문고는 4.06점으로 나타났고, 음란·폭력물 배포에서 중학교는 4.23점, 인문고는 4.08점, 전문고는 3.98점으로 중학교와 인문고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지역별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욕에서는 특별시가 3.78점으로 광역시 3.59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협박에서도 특별시 4.06점, 광역시 3.95점이었고, 성희롱에서는 특별시 4.28점, 광역시는 4.17점이었다. 명예훼손에서는 특별시가 4.24점, 광역시가 4.14점으로 나타났고, 스토킹에서는 특별시가 4.29점, 광역시가 4.19점이었다. 음란·폭력물 배포에서도 특별시가 4.18점으로 광역시 4.07점보다 높은 평균 수치를 보였다.

〈표 III -43〉 인구통계학적인 변인과 성적 및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해 법적 처벌 강도

항목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중학교	인문고	전문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잘사는편	보통호조준	못사는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3.68	3.71	3.49	3.73	3.59	3.72	3.70	3.68	3.59	3.71	3.65	3.64	3.75	3.55	3.66	3.37
	F=4.93*		a,b>c	F=3.98*		c>b	F=1.49		-	F=0.74		-	F=7.24**		a>b,d , c>d	
협박	4.07	4.08	3.79	4.06	3.95	4.10	3.93	4.07	4.00	4.06	4.07	3.98	4.11	3.97	4.03	3.69
	F=10.02**		a,b>c	F=4.62*		c>b	F=3.29*		b>a	F=1.59		-	F=8.25**		a,c>d	
성희롱	4.30	4.30	4.04	4.28	4.17	4.34	4.09	4.33	4.22	4.30	4.32	4.18	4.35	4.17	4.27	3.90
	F=8.00**		a,b>c	F=6.18**		c>b	F=7.95**		b>a	F=4.02*		b>c	F=9.11**		a,c>d	

항목	학교별			지역별			경제수준별			성적별			부모의 양육태도별			
	중학교	인문고	전문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	잘사는 편	보통수준	못사는 편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민주적	독재적	허용적	방임적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	4.25	4.26	4.01	4.24	4.14	4.29	4.11	4.28	4.13	4.28	4.29	4.10	4.32	4.12	4.20	3.87
	F=7.47** a,b>c			F=4.77* c>b			F=6.41** b>a,c			F=7.43** a,b>c			F=10.23** a>b,d, c>d			
스토킹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4.31	4.34	4.06	4.29	4.19	4.36	4.15	4.35	4.23	4.35	4.34	4.19	4.38	4.22	4.27	3.92
	F=8.72** a,b>c			F=6.32** c>b			F=6.89** b>a			F=5.42** a,b>c			F=10.37** a,b,c>d			
음란, 폭력물 배포	4.23	4.08	3.98	4.18	4.07	4.20	3.98	4.22	4.05	4.17	4.19	4.08	4.24	4.09	4.12	3.72
	F=7.68** a,b>c			F=3.60* c>b			F=9.31** b>a,c			F=2.00 -			F=10.89** a,b,c>d			

** $p<.01$, * $p<.05$

경제수준별에서는 모욕을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협박에서는 보통수준(4.07)이 잘 사는 편(3.93)에 비해 컸고, 성희롱에서도 보통수준(4.33)이 잘 사는 편(4.09)보다 크게 나타났다. 명예훼손에서는 보통수준(4.28)이 잘사는 편(4.11)과 못사는 편(4.13)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평균 수치를 나타냈다. 스토킹에서는 보통수준(4.35)이 잘 사는 편(4.15)보다 컸고, 음란·폭력물 배포에서는 보통수준(4.22)이 잘 사는 편(3.98)과 못 사는 편(4.05) 모두에게서 높은 평균 수치를 보였다.

성적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인 변인은 성희롱, 명예훼손, 스토킹이었다. 성희롱에서 하위권(4.18)이 중위권(4.32)보다 낮게 나타났고, 명예훼손에서는 상위권(4.28), 중위권(4.29)이 하위권(4.1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스토킹에서도 상위권(4.35)과 중위권(4.34)이 하위권(4.19)에 비해 높았다.

부모의 양육태도별에서는 모든 변인에서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욕에서는 민주적 태도(3.75)가 독재적(3.55), 허용적(3.66) 태도에 비해 높았고, 방임적 태도(3.37)는 허용적(3.66) 태도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에서는 방임적 태도(3.69)가 민주적(4.11), 허용

적(4.03) 태도보다 작았고, 마찬가지로 성희롱에서 방임적 태도(3.90)가 민주적(4.35), 허용적(4.27) 태도보다 평균 수치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훼손에서는 민주적 태도(4.32)가 독재적(4.12), 방임적(3.87) 태도 보다 높았고, 방임적 태도(3.87)가 허용적 태도(4.20)보다 작았다. 스토킹에서는 방임적 태도(3.92)가 민주적(4.38), 독재적(4.22), 허용적(4.27) 태도에 비해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음란·폭력물 배포에서도 방임적 태도(3.72)가 민주적(4.24), 독재적(4.09), 허용적(4.12) 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4〉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에 대한 법의식과 피해 후 변화 요인 간의 상관관계

항목	피해 후 일상생활 변화 요인	
	행동인식 변화	감정 변화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0.071**	0.236**
협박	-0.110**	0.274**
성희롱	-0.164**	0.334**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	-0.151**	0.300**
스토킹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0.165**	0.331**
음란, 폭력물 배포	-0.143**	0.268**

Pearson 상관계수, N=569, ** $p < .01$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과 댓글로 인해 피해 후 겪게 되는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변화에서는 전체 변인에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감정변화에서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감정변화 요인이 댓글로 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처벌 강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인식변화와 감정변화 두 요인이 각각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준회귀계수(β)를 채택하였다.

〈표 III-45〉 댓글을 통한 피해 후 일상생활 변화가 댓글 인권침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피해 후 변화 처벌강도	행동인식변화 β	감정변화 β	R ²	adjusted R ²	F
모욕	-0.071	0.236**	0.061	0.057	18.33**
협박	-0.111**	0.271**	0.086	0.083	26.779**
성희롱	-0.165**	0.311**	0.137	0.134	45.212**
명예훼손	-0.152**	0.297**	0.112	0.109	35.809**
스토킹	-0.164**	0.328**	0.135	0.132	44.338**
음란·폭력물 배포	-0.145**	0.268**	0.093	0.090	29.191**

N=572, **, $p < .01$, * $p < .05$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변화 요인과 문제별 처벌 강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인식변화에서는 협박($\beta = -0.111$), 성희롱($\beta = -0.165$), 명예훼손($\beta = -0.152$), 스톱킹($\beta = -0.164$), 음란·폭력물배포($\beta = -0.145$)에서 부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변화에서는 모욕($\beta = 0.236$), 협박($\beta = 0.271$), 성희롱($\beta = 0.311$), 명예훼손($\beta = 0.297$), 스톱킹($\beta = 0.328$), 음란·폭력물배포($\beta = 0.268$) 변인에서 정적인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2) 청소년이 생각하는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

청소년들은 인터넷 댓글의 문제점을 20명 모두 ‘모욕(악플, 비방형의 글)’이라는 의미로 응답했다.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과, 여론조성의 모욕으로 구분되어졌다.

특정 대상에 대한 모욕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댓글로 인한 연예인의 자살을 예를 들었다. “심한 댓글이요.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악플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상처 받고 자살할 정도”, “악성댓글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

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악플이 안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보면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 죽고 그러잖아요” 또 여론조성의 모욕은 자신의 뚜렷한 주장에 의한 댓글이 아니라 대중심리, 공감대 형성 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여론을 조성하여 다는 댓글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테러, 댓글 테러요”,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괜히 이거 뭐 쓴다고 공감대가 형성 되가지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쪽 이어가면서 이 애의 말만 믿고”, “내 의견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보니깐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써놓았는데... ‘그럼.. 어 그러네’ 하고 나도 악플을 써요, 그런 게 쪽쪽 이어지다 보면은 악플이 대개 많아지거든요”, “사람들이 아무생각 없이 되게 가볍게 쓰고 그게 하나의 여론 조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질문 :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특정 대상 모욕(부모님, 친구, 연예인 등)

1. 심한 댓글이요.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든 악플 들이 초등학생들이 단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연예인들은 상처 많이 받잖아요.
3.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연예인) 나오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들, 왜 컴백했냐고 욕하는 거 있잖아요.
4. 부모 욕하고 알지도 못하는 연예인들의 인격을 욕하는 거요. 잘못도 없는데 기사만 보고 욕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5. 악플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상처 받고 자살할 정도
6. 사람들이요. 연예인 기사 같은 거 올라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을 동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슬픈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이런 것 까지 한다고, 지난번에 연예인이 자살하고 했잖아요.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악플 다는 것
11. 악플이요. 악성댓글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악플이 안좋은 것 같아요.
13.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보면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 죽고 그러잖아요. 김다빈인가, 유니도 그렇고 ‘애로 배우나’ 하면서 진짜 심한 욕하잖아요. 그런데 실명으로 하면 누가 그렇게 심한 욕

을 하겠어요. ‘싫다’ 이 정도지. ‘떠떠’ 욕하면서 무슨 년 하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실명제를 하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비방하는 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17. 상대방을 생각안하고 자기 생각만 쓰다 보니 말을 막 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20. 공인들에 대한 악플들과, 댓글 쓰는 사람들끼리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심한들 말까지 써가면서 싸우는 거요.

□ 여론조성의 모욕

7. 테러, 댓글 테러요.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을 사람들끼리 댓글로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심리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10.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괜히 이거 뭐 쓴다고 공감대가 형성되가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쪽 이어가면서 이 애의 말만 믿고. 갑자기 만약에 뭘하는데요. 내 의견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보니까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써놓았는데, 딱 보면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 그러네’ 하고 나도 악플을 써요, 그런 게 쪽쪽 이어지다 보면은 악플이 대개 많아지거든요.

14. 사람들이 아무생각 없이 되게 가볍게 쓰고 그게 하나의 여론 조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요즘은 리리플 쓸 수 있자나요. 한사람이 되게 가볍게 ‘아, 싫다.’ 이러면은 ‘22,333,444’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또 ‘222, 3333, 444’ 이런 식으로 하는게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상처 되는 말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쓰는데 좋은 것 같아요.

7) 청소년이 생각하는 댓글로 인한 문제에 대해 개인 및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

댓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대한 질문에 청소년들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하였다. 실명제, 사이버수사 강화, 경고·처벌강화, 선플, 의식교육실시 등을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실명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명제 도입도 하고, 기사도 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사도 악성 댓글을 유발하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지금 하려고 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도요. 실행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 말고 모든 사이트에서요”라고 답변했다. 사이버수사 강화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하면 처벌 받는다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인식이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라며 한 청소년은 사이버수사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조했다. 경고·처벌강화에 대해서는 “사이버 테러나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처벌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관련 된 글을 올리면 바로 경고 당하든지, 바로 삭제당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안되잖아요”라고 답했다. 좋은 댓글을 달자는 선플 관련에서는 “일단 나라도 좋은 댓글을 달아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일단 악플을 단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야겠죠”라고 응답했다. 의식교육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교육적으로 윤리책이나 그런 곳에 자세하게 깊이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과 같이 교육을 통해 댓글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몇몇 청소년이 응답했다.

질문 :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실명제

1. 인터넷을 쓸 때는 실명으로 하구요. 악성 댓글 같은 거 안쓰는 거예요.
2. 실명제요.
3. 인터넷 실명제요.
8. 저는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13. 당연히 실명제 도입도 하고, 기사도 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사도 악성 댓글을 유발하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허접한 뉴스도 그렇고, 기자들이 돈 벌려고 대충 기사를 몇 개 때워야 되고, 빨리 기사도 써야 되는데 대충대충 쓰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그것을 알잖아요. 그게 언론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러니까 기자들도 잘 선별하고, 정부에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7. 인터넷 실명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19. 지금 하려고 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도요. 실행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 말고 모든 사이트에서요.

□ 사이버수사 강화

1. 악플 같은 거 달면 사이버 수사대가 있잖아요. 그런 악플 못달도록 수사해서 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2. 사이버 수사대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하면 처벌 받는다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 심하게 하는 사람은 사이버 조사에 잡아 가는 거죠.
9. 이름 옆에, 아니 그게 우리 못 봐도 상관은 없는데 사이버 경찰들은 볼 수 있게 해놓아서 주소랑 번호를 옆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경찰들을 많이 해서 비방글 그런 글 올리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봐서 전화해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12. 사이버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안 된다고 심하지 않게, 간단하게, 피해가지 않도록(질문자 :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인식이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 경고, 처벌강화

4. 벌금하는 것을 2-3만원 하지 말고 더 크게 하는 거죠. 2-3만원이니깐 또 하잖아요. 심한 벌금을 매기면 안할 것 같아요.
7. 사이버 테러나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처벌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캠페인을 꾸준히 해서 깨끗하게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10.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메일이나 msn 같은 쪽지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이버 수사대가요. 사비어수사대가 경고를 대응이 안되다 그러면 강한 처벌을 가해야겠죠. 댓글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한다던가, 이쪽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한다던가
16. 댓글 많이 달아서 피해가 생기면 적은 사람에게 벌점을 줘서 많이 받으면 벌금 내기요. 인터넷 실명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 이름이 있으니 막말 못할 것 같아요.
18. 그런 것에 관련 된 글을 올리면 바로 경고 당하든지, 바로 삭제 당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곳에서 글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요.

□ 선פל

6.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올리면은요. 맞장구 쳐주는게 아니구요. 그 사람을 반대를 해주는 거죠.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악플을 계속 맞장구 쳐주고, 이어지지 않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8. 일단 스스로부터 막말을 하면 안되겠죠.
11. 일단 나라도 좋은 댓글을 달아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일단 악플을 단 사람을 비판하고 그래야겠죠.
13. 저라도 비방을 하지 않겠다, 저라도 제 이름 대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달겠다.

□ 의식교육

4.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어린 애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욕 쓰고 그러잖아요.
14.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나라가 인터넷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량이 되게 안 따라 주는 것 같구요. 형식적이라고는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배워놔야 그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15. 일단 가까운 사람들부터, 제 동생의 경우처럼 막 댓글을 생각 없이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틀렸다고 말해주고 주위 사람부터 바꿔 나가야죠. 제가 인터넷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는지 그런 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20. 명제까지는 안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악플을 다는 사람을 보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윤리책이나 그런 곳에 자세하게 깊이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법제

1. 인터넷 댓글 현황과 이슈 : 정의, 기능, 본질을 중심으로
2. 인터넷 악플 관련 법규의 해석
3.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
4. 소결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관련법제

1. 인터넷 댓글 현황과 이슈 : 정의, 기능, 본질을 중심으로

인터넷 댓글이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글에 대해 반응(reply)한다는 의미이다.¹⁰⁾ 이런 면에서 인터넷 댓글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의 이용자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표현의 교류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댓글은 통상적으로 특정 게시물의 본문 아래에 첨부된 평가적 내용으로서 제목이나 목록 없이 본문만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댓글의 종류는 쓰인 내용에 따라, 선플(게시판 등에 올려진 내용이 칭찬이나 호감 등으로 구성될 경우)과 악플(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헐뜯는 경우)로 대별된다. 최근 악플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가시화됨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 선플 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나, 메시지가 자극적이고 폭로적이어야 네티즌의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다양한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댓글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된다. 인터넷 댓글의 순기능은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공론장이란 숙의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와도 직결되는 개념으로서, 인터넷은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다른 매체와 달리 효과적인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시민에 의한 액세스나 제작 참여 등에 상당한 제약 요인을 가지고 있는 신문이나 방송과 달리 인터넷 매체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사상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2002년 6월 27일, 선고 99헌마480 판결) 역시 인터넷이 효과적인 공론의 장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로운 아이디어나 사상의 흐름을 용이케 하고 궁극적으로 진실 발견 및 여

10)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문화 분석보고 07-01에서 댓글을 사이버공간에서 게시물에 대한 수용자의 응답행동의 결과물이자 메시지 형태로 나타나는 글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론 수렴 등 민주화 초석의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마디로 인터넷 댓글은 사회적 공론장으로써 이용자들 간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촉진시키고 여론을 형성하며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반면 인터넷은 정제되지 않은 사실·허위사실의 표현과 의견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공간으로서도 인지되기도 한다. 소위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부작용은 인터넷 이용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¹¹⁾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들은 통신 언어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악성 댓글과 명예훼손 등 악플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디지털타임즈(2007. 2. 1) 역시 네티즌의 80.8%가 악성 댓글을, 54.2%가 명예훼손을 댓글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다. 악성 리플의 준말인 악플은 연예인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비방, 모욕을 일삼는다. 최근 들어 연예인 자살 동기가 악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련의 사건 사고들¹²⁾로 악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하고 있다(<표 VI-1> 참조).

<표 IV-1> 최근의 주요 연예인 관련 악플 일지

2006. 2. 가수 비 ‘라디오괴담’ 유포한 악플러 4명에게 70만원 벌금
2006. 3. 임수경씨 아들 사망 기사에 악플을 단 4명에게 70만-100만원 벌금
2006. 6. 이명박 전 서울시장 관련 악플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2006. 8. 노현정 전 KBS 아나운서 악플 유행
2006. 9. 김태희, 고현정씨 등에 대한 악플 올린 네티즌 11명 불구속 입건

- 11)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만6세 이상 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은 77.1%, 이용자수는 3,536만 명으로 전년대비 0.8% 약 54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 0.47 , 95% 신뢰수준).
- 12)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수 비 라디오괴담, 김태희, 정다빈, 고소영, 하리수, 김형은, 유니, 정다빈, 최진실 등을 겨냥한 악플을 들 수 있고 이중 김형은, 유니, 정다빈, 최진실 등은 악플 등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7. 1. 개그우먼 故 김형은, 故 가수 유니, 악플러 테러 시달려

2007. 2. 텔런트 故 정다빈 성형관련 악플 테러 발생

2008. 10. 텔런트 최진실 악플로 자살

(출처: 매일경제신문, 2007. 2. 27 기사 보완)

이러한 악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현상이 심각하다. 선진국의 경우, 아직 댓글 문화는 초기 생성 단계에 있고, 악플의 경우는 포탈 사업자 관점에서 불허되거나 다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추방되기 때문이다. 결국 악플은 그 나라의 토론 문화 수준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교육적, 법적·제도적 대응이 사회 각계에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소위 ‘최진실법’이라고 명명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 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극구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인터넷 댓글 관련 법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인터넷 댓글이 관련법 차원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고 허용되지 말아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인터넷 악플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를 둘러싼 쟁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법리적 평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인터넷 악플 관련 쟁점들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일반법에서의 접근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국내외 판례 등을 기초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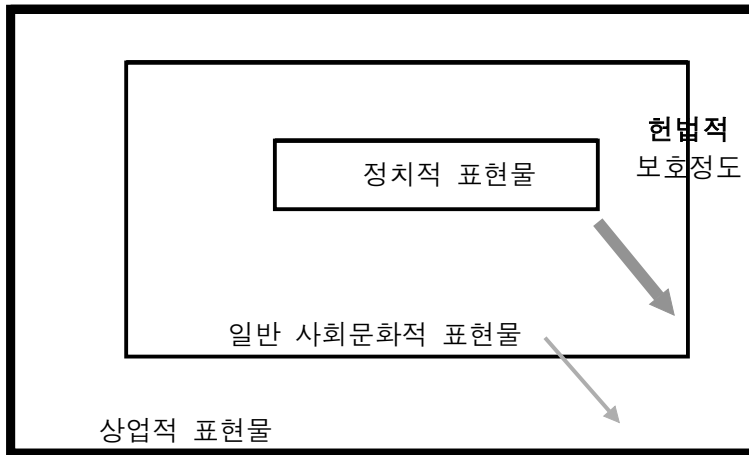
2. 인터넷 악플 관련 법규의 해석

1) 헌법적 해석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책임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물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을 대별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그림 VI-1> 참조). <그림 VI-1>은 헌법적 차원에서 가장 많은 보호를 받는 것이 정치적 표현물임을 시사한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는 이유가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발견, 진실추구 등 여러 가치가 언급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여론수렴, 민주주의 초석 등이 중시되므로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의 보호는 민주주의 초석의 기초로서 매우 중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 사회문화적 표현물이나 상업적 표현물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 다만 순수한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광고물 등 상업적 표현물은 정치적 표현에 비해서 덜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은 소위 표현물의 속성/분야에 따른 헌법적 보호 정도를 정리한 것이다. 반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위법적 표현물이나 외설/음란물, 즉각적이고도 회복 불가능한 폐해(imminent and irreparable harm)를 야기하는 비방이나 모욕(fighting words) 등은 헌법적 표현의 자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림 IV-1] 표현 범주에 따른 헌법적 보호 정도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물
(외설/음란물,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표현,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해를 야기하는 표현물: fighting words)

그러면 인터넷 악플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을 것인가? 인터넷 악플은 한마디로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증오적 표현물(hate speech)이라고 할 수 있다. 증오적 표현물이나 선동적 표현물에 대한 헌법적 보호 여부의 판단은 미국의 경우, 1969년 *Brandenburg v. Ohio* 판례¹³⁾를 기초로 (1) 표현물이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폭력의 행사를 주창하거나 지지하고 있는가? (2) 표현물이 불법적 행동을 실질적으로 선동하고 있는가? (3) 불법적 행동이 즉시적으로 야기될 것인가? 등을 가지고 고려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증오 표현물 등은 홈즈 판사가 제시했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¹⁴⁾이 존재하는지

13) *Brandenburg* 판례는 KKK(ku Klux Klan)가 행한 연설문 (미국 흑인이나 유대인에 대한 비하적 발언을 하면서, 미국 정부나 의회 등이 계속 미 백인을 탄압하면 폭력적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기초로 KKK 지도자를 기소한 것을 미 연방대법원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Brandenburg v. Ohio* (1969)을 참조할 것.

1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칙이란 1927년 *Whitney v. California* 사건에서 Brandeis 판사와 이에 동석한 Holmes 판사에 의해 주창되었다. 이 기준은 표현 자체가 규제되

여부에 따라 표현의 위법성 여부가 판별되는 것이다. 인터넷 악플의 경우, 악플이 정치적 표현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거나 타인의 상업적 이윤 추구 행위를 제약하기 위해 벌이는 것인지에 따라, 그리고 표현물 자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2) 민·형사법적 해석

표현물 자체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판단 외에 우리 형법 및 민법에서는 표현물이 남에게 해를 주는 것에 대한 위법성 판단에 있어 행위 자체에 고의성이나 과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우선 우리 민법의 구조를 보면, 민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인 경우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 등을 따지게 된다. 따라서 행위능력이 부재하다고 간주되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는 권리의 주체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 행위에 있어서도 사기, 강박 등과 같은 상황에 기초한 하자 있는 의사¹⁵⁾ 표시가 아닌 한 그리고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유효한 법률 행위로서 구속받게 된다.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일반적 민법상 불법행위는 행위자의 고의¹⁶⁾나 과실¹⁷⁾이 존재하고, 책임능력이 있으며, 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기 전,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폐해가 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불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동 판결에서 이 기준은 채택되지 않았다. 오히려 Whitney에게 캘리포니아 범죄 조직에 관한 법(California Criminal syndicalism Act)에 의거하여 유죄 판결을 내린다. 미 연방대법원은 그 당시 Brandeis 판사 등에 의해 제기된 다소 진보적인 표현의 자유 지지 노력을 채택할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하다.

- 15) 우리 민법 제110조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 16) 고의라 함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또한 일부러 이것을 한다고 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 17)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통인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 일반인이 아니고, 동일 업무 및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과실 유무를 논하고 그러한 주의 의무를 심하게 결여시 중대한 과실로서 정의한다. (참고, 민법 제750

및 그에 따른 타인의 이익 침해 시 발발하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 특수한 불법행위로서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이 거론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불법행위의 효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¹⁸⁾하거나 그 예방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상으로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정상의 주의를 태만하는 행위)이나¹⁹⁾ 사실의 착오(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한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으면 책임성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된다. 형법상으로 공범의 구성은 공동정범, 교사범, 중범으로서 방조범, 간접정범 등으로 구분된다. 이중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죄를 범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형법 제30조),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의미하고(형법 제31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로서 중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 행위를 의미하는 방조범과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간접정범으로 구분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 제307조부터 제310조까지는 명예훼손에 관한 조항이 적시되어 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적 위법성 구성요인(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명시

조 불법행위의 내용).

- 18) 이것의 법률적 근거로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므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19) 업무상 과실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 먼저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1960.7.13.대법4293형상336). 통상적으로 과실은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legal duty)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the defendant owed a legal duty to use due care this duty exists whenever there is a reasonably foreseeable risk of direct harm to others), 의무에 대한 태만이 발생하였으며 (the legal duty was breached-negligence), 태만이 발생한 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을 때 (the breach was the proximate cause of the resulting injury) 구성된다.

하고 있으며, 형법 제308조는 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형법 제 309조는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적시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310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으로서 제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11조(모욕)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동법 제312조는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법 조문으로서 제1항은 제308조(사자에 관한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친고죄 조항을, 제2항은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적시한 민형사적 제 법률 논리를 검토할 때, 인터넷 악플과 관련하여 주로 논할 수 있는 논제는 불법행위의 주체로서 악플러와 소위 OSP라고 하는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유책 범위 및 그에 따른 피해구제 방식과 피해산정 방식 등이다. 한 예로, 책임 능력이 있는 악플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는 형법 제307에서 311조에 명시된 법규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관한 범죄가 발생하였는지, 민법 제751조에 의해 피해자가 악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나 실제적인 재산상 피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특히 고의적인 악플을 가한 가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선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 자유형에 귀속되는 금고나 징역형 보다는 민법 제751조에 기초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등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가해자의 악플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1) 일반적 명예훼손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명예를 해할 목적으로 악플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기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

고, (2) 모욕의 경우는 가해자가 부정다중이 견문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피해자를 경멸할 목적으로 사회 상규를 벗어난 모욕적인 언사나 행동 등을 공연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아닌 의견의 경우는²⁰⁾ 명예훼손 위법성 구성이 안되고 모욕죄에 해당될 수는 있다.²¹⁾ 이처럼 모욕죄 구성의 광범위성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위험성을 야기하기도 한다. 우리 형법의 공범에 관한 규정을 고찰 시,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경우는 상황에 따른 법리적 해석에 따라 방조나 사용자 책임 등이 문제될 수 도 있다.²²⁾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거 개정 전의 전기통신사업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망법”)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이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20) 사실/허위의 사실과 의견의 차이는 입증 가능한가 여부이다.

21)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의건을 발표하는 행위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논평도 모욕죄 성립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가해자가 다소 흥분 상태에 있었다 할 지라도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22) 우리의 경우, 미국과 달리 기여책임(contributory liability)이나 대위책임(vicarious liability)에 부합하는 정확한 유책 사유 법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범행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상황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였는지, 비통제로 인해 금전적 이익을 구했는지에 따라 방조나 사용자 책임 법리가 원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각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 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제5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항: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 5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2) 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44조의 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1항: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인터넷 댓글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적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동 법규는 인터넷 공간이 가지는 제 특성을 고려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보다 다양한 피해구제 및 예방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망법 제44조에 명시된 제한 본인확인제나 삭제 요청이 들어온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권 등은, 인터넷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정보통신제공사업자의 작위의무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망법의 가장 큰 문제는 우선 해당정보의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체없이”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법에 명시된 요구사항 결여시²³⁾ 이를 지체없이 삭제해야 한다는데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에게 부여된 즉시 삭제권이나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을 참조할 것

임시조치권은 소위 망법이나 약관에 근거를 둔 법률적 행위인데, 이것이 과연 헌법적 관점에서 타당한지는 별도로 하더라도, 삭제나 임시조치 발동의 절차나 기준 등이 불분명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물론 제44조의 2, 제4항에서는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될 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정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명시되어 있으나 30일 이후에도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어떠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가 법률상에 불분명하다.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보다는, 과연 정보통신제공사업자가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발행인 또는 준 발행인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 접속매체로서 전송매체 역할만 하고 있는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법 등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재한 채 단순히 이용자 규모에 따른 작위의무구분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상기 기술한대로 구성된 것은, 본안 소송에 따른 시간지체 및 비용 부담의 문제점과 더불어 점차 늘어나는 사이버 공간상의 문제점에 대한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1차적으로 부여해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러면 상기한 인터넷 악플 관련 법규 및 관련 조항 내용들은 실제적인 사건 해결에 어떻게 기능하고 있을까? 다음은 인터넷 댓글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판례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법규가 특별한 보완의 필요없이 흠결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완전 실명제를 기초로,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인 작위 의무를 강제하는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현행 법규로 충분히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가늠코자 한다.

3. 주요 판례 및 사례 분석²⁴⁾

2000년 이후, 인터넷 표현물과 관련된 대부분 판결은 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이 많았고, 모욕죄로 기소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참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판례 검색결과,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4.do> 인용).

1) 대법원 2008.4.24선고 2006다53214 판결: 언론사가 정치강연회에서 초청연사가 한 발언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사안.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기능의 수행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범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행위가 악의적이고 현저한 상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된다.

3)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를 근거로, 사실관계나 조사 확인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해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

(1)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

24) 에스러 종합정보법률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 등을 인용하였음.

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트집 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34 판결: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구체적인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처: 대법원 2004.6.25.선고 2003도4934 판결).

(1)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6.15.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2) 모욕죄의 경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게시판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동요관련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던 게시판인 점,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동요인이라는 가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게 공소외 1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공소외 1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관계, 인터넷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

게 된 동기 및 경위, 게시한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형법 제310조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모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으므로, 행위자가 피해자를 대면할 때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대법원 2003.6.27.선고 2002다72914판결: 인터넷상의 전자게시판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방치함으로써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원고의 내용증명에 의한 명시적인 삭제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이러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

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즉시 삭제하거나 원고와 그 글들의 처리에 대한 의논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약 52일 가량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고 따라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 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비영리 군정(군정) 홍보사이트의 게시판에 익명의 이용자가 임의로 게시한 게시물에 관하여 게시된 것을 알게될 때마다 원고가 반론까지 게시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그 게시물의 삭제를 공식 요청하자 즉시 피고측 담당자가 그를 삭제하기에 이르렀던 이 사건에서, 원심으로서 앞서 본 관련 사항들을 모두 심리한 다음 거기서 밝혀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에게 그 게시물에 대한 삭제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못한 단계에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었고 그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그 게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치중한 나머지 전자게시판 관리자로서 게시물의 즉시 삭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

였으니, 거기에는 앞서 본 관련 사항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겠고 그런 취지가 담긴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6) **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는 언론매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을 때, 당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믿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법률정보 에스로 종합법률정보, <http://law2.naralw.co.kr/print/print.php>).

(1) 여러 언론사와 제휴를 맺고 기사를 제공받아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는 송고된 기사의 단순한 전달자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재, 편집 및 배포 기능을 두루 갖춘 언론매체에 해당하므로, 언론사로부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전송받은 네이버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요 뉴스란에 배치하여 네이버 접속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면 해당 언론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2) 제휴언론사가 전송해 주는 기사의 오보 가능성,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언론매체로서 갖는 막강한 영향력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해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언론사로부터 송신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게재한 기사가 타인의 명예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내용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송신기사가 정평있는 언론사로부터 송신된 것이고, 그 기사를 문면상 일견하여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고 알 수 없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 자신이 별도의 확인 작업 없이는 그것이 오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사를 게재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당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확실한 자료 내지 근거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실하다고 믿은 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다.

7) 형사(사건번호 2008도1433):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및 위법성 조각사유를 밝힌 형사 판례(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사안에서, 게시의 동기와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8) 형사 (사건번호 2003도4128): 인터넷 포털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과 위 오락채널 내 만화사업의 운영 직원인 피고인들에게,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게재하는 음란만화의 삭제를 요구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위반 방조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여기서는 더불어 형법상 방조행위가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형법상 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출처: <http://law2.naralaw.co.kr/print/print.php>).

(1) 7)-(1)에서 언급한 모욕죄를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3)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그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여기서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9) 임수경 사건 (서울중앙지법 2006.3.10.선고 2006고정885 판결): 인터넷 신문상의 특정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그 기사에 등장하는 특정인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모욕죄(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처: 서울중앙지법 2006.3.10.선고 2006고정885 판결).

(1) 【주 문】 피고인 이홍빈, 임재식, 서명길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희관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범죄사실]

① 피고인 서명길은 2004.7.22.21:23경 아이디 myunggil200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빨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임수경의경우사고체계가왜곡되어있으니정상적인결혼생활이가능할수없다...”는글을게재하여공연히피해자임수경을모욕하고,

② 피고인 이희관은 2004.7.22.21:21경 아이디 leehg21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고,

③ 피고인 임재식은 2004.7.23.02:35경 아이디 ljslim82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ㄱ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ㄱ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수경이한테는 인과응보, ㄱ미국을 웬쭈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ㄱ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ㄱ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수경이한테 고소하다, ㄱ얼굴은 지금도 그 때처럼 표독스럽다. 예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고,

④ 피고인 이홍빈은 2004.7.23.13:55경 아이디 03651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 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 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채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 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조선일보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 해라, 임수경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임수경”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수경을 모욕하였다.

10) 기타: 자살한 최진실씨의 경우, 사채 루머 유포자인 백모 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경찰의 ‘사채업 괴담’ 최초 유포자 추적은 실패하였다. 또한 한 유명 중견가수는 최근 자신이 받은 재판이 기사화 되자 각종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기사 삭제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http://www.donga.com/news/print_web.php?n=200810110191).

4. 소결

1) 개요 : 앞서 적시한 인터넷 댓글이나 표현물 관련 국내 사례나 주요 판례 태도 등을 해석하면, 지금까지의 이 분야에서의 소송은 보통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서 명예훼손죄가 가장 많이 열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욕죄가 적용된 경우는 명예훼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많지 않았다. 통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위법성 구성 요건이다. 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위법성이 구성되나 모욕죄의 경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말, 행동, 문자로 타인을 비방할 때 발생한다. 둘째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해 사실이거나 (또는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적 증거가 있거나) 공익적일 때 위법성 조각 사유가 발생하나 모욕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사회상규 위배에 대한 법적 범주 판단이 중요하다. 셋째, 명예훼손은 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진실하고도 분명한 불처벌 의사가 있지 않는 한²⁵⁾ 형사적, 민사적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라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권리를 승계한 가족 등의 고소가 있지 않는 한 기소되지 않는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모욕죄의 경우 당사자 적격 요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고소 없이 법적 처벌을 받기가 용이하지는 않으나 일단 고소를 하게 되면 명예훼손에 비해 비방의 메시지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만 표시되었으면 족하므로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는 한 법적 처벌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판단된다. 여기서 사회상규라 함은 우리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처럼 (1)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존재하고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발견되며 (3)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4) 긴

25)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여기서 진실성과 명백성, 신뢰성 등은 피해자의 의사가 표현되게 된 상황이라든가 태도의 지속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대법원 2001.6.15선고 2001도1809 판결을 참조할 것.

급성 (5)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이 충족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기초로 인터넷 댓글에 대한 우리 법의 정비 방향을 고민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2)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평가: 최근 여당인 한나라당은 텔런트 최진실의 죽음을 기화로 인터넷 악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위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실명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하겠다고 한다(동아닷컴, 2008. 10. 3). 이에 민주당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 자유 억압으로 이에 극구 반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 의해 구상 중인 사이버모욕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포털사업자에게 인터넷 악플을 제어하기 위한 상당한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둘째는, 친고죄인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법률 행위의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²⁶⁾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정보삭제의 요청 등)의 3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 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약관²⁷⁾에 기초한다.

26)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7) 예를 들어 <Daum>의 경우, 약관 제12조 (공개게시물의 삭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①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Daum"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여기서 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1) 과연 정부가 법적으로 민간 기업인인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적극적 작위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그러한 강제수단(작위의무)이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악플의 감소)와 합리적 인과관계를 구성하고 있는지 (3) 그리고 그러한 강제 수단은 다른 최소한의 대체 수단이 없이 부득이한 것이며 (4) 규제 폐해에 비해 합리적 규제 이익이 보장되는지 등이다. 상기 검토 사항 중 첫 번째 요건은 정보통신제공사업자가 가지는 편집재량권 (editorial discretion)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러한 논리는 미연방 대법원 판례인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²⁸⁾를 기초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판례는 방송과 달리 신문의 경우는 신문사가 가지는 편집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때 정보통신제공사업자가 신문사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가정하면²⁹⁾ 이 판례는, 비록 미국의 것이긴 하지만, 다소 법리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다. 더불어 민간 기업인에게 콘텐츠에 대한 삭제권이나 임시조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도 충돌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적시된 내용에 대한 법적 보완³⁰⁾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요건으로서, 정보통신제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② 이용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나 이용자 또는 "Daum"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Daum"은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2003년 1월 11일자 신설).

28) 이 판례는 신문사는 정치 사설이나 지지 광고에 있어 모든 선거 입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플로리다 주법을 뒤집는 것으로서 신문이 가지는 편집재량권 (editorial discretion)을 인정하고 있다.

29) 서울고등법원(2008.1.16)은 최근 인터넷포탈사이트 "네이버"가 명예훼손 행위의 주체인 언론매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포탈사업자가 (준)발행인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30) 여기서의 법적 보완이라 함은 콘텐츠 삭제 및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 및 절차의 합리성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삭제 요청시 즉시 문제가 되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공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적극적 작위 의무와 악플 감소의 합리적 인과성에 대한 검토이다. 이것은 정보통신제공사업자가 적극적 작위 의무 시행 시 기술적,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여 악플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여겨져 나름대로의 상호 인과성은 인정될 수 있다 추정된다. 세 번째 요건으로,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적극적 작위 의무가 악플 최소화라는 사이버 공간 상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 규제 수단인지, 아니면 다른 보다 덜 강제적인 대체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나라마다 입법 배경이 다르고 (특히 IT 강국인 우리의 경우, 외국과 달리 악플 문화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수단의 도입을 희망하기도 하지만,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볼 때 헌법상 과잉규제금지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정서적 접근 보다는 이에 대한 사려 깊은 판단이 필요하다. IP 추적이나 제한 본인확인제 등 현재의 입법 수단에 의한 처벌로 악플 최소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재 존재하는 규제 수단이 미약하여 보다 강력한 입법 수단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모욕죄라는 규제 수단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규제의 이익 (예: 악플의 감소)이 염려되는 규제의 폐해(예: 위축효과 등으로 인해 그간 참여조장 및 표현촉진매체로서 간주되던 인터넷 공론장 기능의 감소) 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임을 정부는 입증해야 법규 도입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에서 저작권 침해를 보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침해자의 IP 주소 요청시 이를 OSP는 받아 들여야 하고, COPA가 위헌 판결을 받은 주요 이유도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덜 강제적인 수단(예: 기술적 접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이고도 광범위한 규제가 가능한 정책 수단의 도입으로 야기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있어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도 제한적 본인 확인제보다 앞서 적시한 다양한 관점에서 상대적 이점이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현 시점에서 인터넷 악플을 방지하고

는 내용과 이해당사자간 분쟁 조짐시 30일간 임시조치로서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리적 기준 및 절차는 물론, 규제의 실질적 이익이 존재함을 정부는 입증해야 할 것이다.

피해를 최소화 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현행 법규가 가지고 있는 제 미비점을 보완하되(예: 망법 제44조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보다 강력한 악플 척결 의지로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악플러에 대한 엄격 책임제(strict liability) 도입, 법이나 약관 상 주어진 주의성실 의무를 게을리하여 악플의 피해를 확대시킨 정보통신제공사업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기소 및 보다 현실적인 피해보상액 부가, 제한 본인확인제의 확대, 분쟁조정제의 합리적 운영 등이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실행된다면, 악플러에 대한 교육적 계도나 네티즌 윤리 의식 신장과 더불어 보다 나은 인터넷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연구 주요 결과
2. 정책제언

V. 결론

1. 주요 결과

본 연구는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 2,3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아울러 서울·경기지역에 있는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들은 1주일 평균 8시간 15분, 1일 평균 1시간 18분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으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1위 온라인 게임, 2위 음악 감상 및 mp3 다운로드, 3위 메신저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의존 정도는 인터넷 사용으로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집단’은 전체의 4.46%였고, 인터넷 때문에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중집단’은 45.46%, 오랜 시간을 사용해도 통제가 가능한 ‘하집단’은 41.94%였다. 또한 남자가 여자보다 인터넷의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97.37%가 댓글을 이용한 적이 있었고, 인터넷 공간에 따라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가장 높았고, 1주 평균 3.68개 정도의 댓글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클럽·카페로 2.17개, 온라인 게임 사이트가 1.70개였다. 심층면접조사를 한 20명 학생의 절반 이상이 하루 평균 10개 이하의 댓글을 쓴다고 응답했다. 댓글을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명은 싸이월드가 47.9%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2.9%, 다음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인터뷰에서도 20명 중 18명의 청소년이 싸이월드, 네이버, 다음 사이트를 이용해서 댓글을 많이 쓴다고 응답했고, 댓글을 주로 쓰는 게시판은 미니홈피나, 카페, 뉴스(연예, 스포츠, 시사) 게시판으로 답했다.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개인블로그, 미니홈피, 카페활동, 검색 등을 한다고 응답했다.

셋째, 청소년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는 동기는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으로 나타났고,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로는 의존형, 관계형, 방

어형, 익명형으로 나타났다. 의존형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동기는 관심이었고, 관계형 이용행태에 영향을 주는 동기는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으로 나타났다. 방어형 이용행태는 상호소통과 자기표현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익명형 이용행태는 익명성, 상호소통, 자기표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댓글을 이용행태가 관계형, 방어형인 청소년들은 댓글을 통해 서로 소통하거나 자기표현 중심으로 댓글을 쓰고 있다. 반면에 의존형으로 댓글을 쓰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소통보다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관심 받는 것에 집중했다. 댓글을 쓸 때 익명형의 행태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익명성을 통해 댓글로 상호 간에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였다.

넷째,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사생활폭로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7명(4.2%), 공개적 모욕은 111명(5.5%), 성희롱 경험은 98명(4.8%), 개인정보피해가 80명(3.2%)으로써 평균 94명(4.4%)이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해경험의 경우, 댓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명(3.4%), 공개적 모욕이 125명(6.0%), 성희롱이 67명(3.2%), 개인정보피해는 85명(4.0%)으로써 평균 87명(4.2%)이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간접경험의 경우, 타인이 타인에게 하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71명(30.4%), 공개적 모욕은 415명(22.0%), 성희롱은 504명(27.0%), 개인정보피해는 263명(13.8%)으로써 평균 438명(23.3%)이 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에서는 공개적 모욕이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간접경험에서는 사생활폭로가 5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성희롱, 공개적 모욕 순이었다. 피해경험 사례로는 나쁜 의도 없이 쓴 댓글에 타인이 격한 반응을 하는 것이 주로 많았고, 가해경험 사례로는 서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옹호하다가 인터넷 상에서 다른 연예인 팬들을 욕하는 경우가 있었다. 간접경험으로는 연예인들에 관련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로 피해·가해·간접경험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다섯째,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 후 변화를 살펴보면 댓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크게 행동·인식과 감정에 변화가 나타났는데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생활에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고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등의 행동·인식 변화와 우울, 화가 나고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감정에 변화가 나타난 청소년들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는데 부분적인 실명제보다는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 댓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동기는 관심이었고, 감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동기는 상호소통이었다. 또한 행동·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행태는 의존형이었고, 감정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용행태는 방어형, 관계형 이용행태로 나타났다. 즉, 관심을 받기 위해 댓글을 쓰다가 피해를 받은 청소년들은 행동·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댓글을 쓰다가 피해를 받은 청소년은 감정에 변화가 있었다. 또한 댓글에 강한 집착을 나타내는 의존형 이용자들은 피해를 받은 후, 행동·인식에 변화가 있었고, 방어형, 관계형 이용자들은 댓글로 피해를 받은 후 감정의 변화가 나타났다.

여섯째, 댓글 이용에 관한 사회적지지, 자아상, 인터넷의존과 인터넷 댓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댓글 이용에 대한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상호소통, 자기표현, 관심, 익명성 동기가 높았다. 하지만 상호소통을 하려고 댓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만 사회적지지 높을수록 댓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이용 사회적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댓글로 피해를 입은 후 감정 변화가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가족만족, 현실적응, 친구사귀, 부모만족, 감정조절 요인 중에서 가족만족과 감정조절만이 댓글로 상호소통하려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만족은 댓글로 자신을 표현하려는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댓글 이용 동기가 관심을 받기위해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족만족, 현실적응, 친구사귀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소통하거나 자기 자신을 표현하려고 했고, 흥미나 익명의 동기를 갖고 댓글 이용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 있는 청소년들은 댓글에 집착하고 의존하거

나 댓글로 관계를 형성하거나 익명으로 댓글을 쓰지 않았다. 또한 댓글로 피해를 당한 후에 자아상이 부정적일수록 행동·인식과 감정에 변화가 나타났다. 인터넷의존이 높을수록 댓글을 통해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자기를 표현하려는 동기를 갖고, 댓글로 타인과 관계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에 대한 법의식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댓글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강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욕이나 비난 같은 모욕은 처벌강도가 스토킹이나 성희롱보다는 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댓글로 피해를 당해 감정의 변화가 있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처벌강도를 강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와 인문고 학생들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인 청소년들이 댓글로 인한 법적 처벌 강도를 높게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청소년이 생각하는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면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을 크게 특정 대상을 모욕하거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여론조성을 하여 모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고, 사이버수사 강화 및 처벌 강화, 선플운동, 의식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 정책제언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빚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탈행위들로 인해서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특히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제공하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이 올린 글이 개인이나 사회에 초래할 파장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그냥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최진실 사건만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최진실씨의 죽음에 댓글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당사자는 댓글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댓글로 인한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대처방안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기술적 측면, 사회문화적인 측면, 가정 및 학교에서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제도적 대책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일명 악플)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과 실명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같은 야당에서는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양쪽 주장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여당은 기존의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를 현재 가상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행위를 처벌하기에는 알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즉 현행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고소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사건을 법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명예훼손사건이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는다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사법적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최진실씨를 비방하는 댓글 사건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본인의 수사의뢰 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나설 수 없는 것이 현행 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 처벌의 한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새로운 사이버 모욕죄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즉 가상공간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그 사안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경찰이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수사대에서 댓글을 검토하여 그 댓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협조를 받아 그 개인의 정보를 파악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명예훼손 관련법들을 하나로 모아서 법 적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사이버 모욕죄의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기존 형법의 명예훼손 규정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법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나름대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피해 사실을 숨기고 싶은 개인이 원하지 않는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이버 모욕죄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개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당사자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 전체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자인 청소년은 또래 압력이나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정신적 발달 특성상 경찰이나 검찰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를 매우 꺼린다. 그래서 수사하기가 더욱 더 어렵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경우 그 피해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은 악성 댓글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노출될 경우 자신의 또래집단으로부터 따돌림당할까봐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 사실이 노출될 경우 제3 제4의 피해가

뒤따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기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댓글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는 효과적일 수 있다. 피해 청소년의 신고 없이도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그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악성 댓글 피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고하는 것을 꺼리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각 포털이나 인터넷 사이트 초기화면에 ‘신고’ 꼭지를 만들어 활성화시키면 효과적일 것이다. 악성 댓글을 발견한 청소년 피해자가 ‘신고’ 꼭지를 누르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연결이 되도록 하여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한편 악성 댓글의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수사에 있어서 청소년 상담 및 치료 전문가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가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심각한 반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연구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댓글을 다는 청소년들은 남의 블로그나 카페를 방문하여 그냥 재미나 심심풀이로 또는 남들이 하니까 장난삼아 따라 하기도 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다시 부상한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싸이월드는 2005년부터 누리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요청에 의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여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효과를 보았다. 회사측에서 실명제를 먼저 도입한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느낀 나머지 실명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회사측에 요청한 것이다. 회사 경영진들은 처음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심히 염려했다. 그러나 오히려 실명제 실시로 인하여 악성 댓글이 줄어들자 사이트가 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사이트를 이용하게 되었다.

실명제 확대 실시를 놓고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한창이다. 실명제

확대실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바탕으로 발생하는 무책임한 악성 댓글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명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실명제에는 완전 실명제와 부분 실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명제’ 하면, 댓글을 달 때 마치 자신의 실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실명이 아닌 필명 즉 가명을 사용하는 부분 실명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완전실명제는 그야말로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때 자신의 실제 이름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분 실명제의 경우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악성 댓글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웹사이트는 당연히 익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필명을 사용하는 경우 익명보다는 악성 댓글이 덜 올라오는 경향이 있지만 악성 댓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완전 실명제를 사용할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글을 손쉽게 올리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 심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실명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완전 실명제를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완전 실명제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발달기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즉 책임 있는 비평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익명성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남을 헐뜯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건설적인 비평을 하는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다.

한편, 청소년의 댓글 가해행위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포털들이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악성 댓글 방지 캠페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2) 기술적 대책

악성 댓글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으로는 ‘거름장치(filter)’의 확대 활용을 들 수 있다. 거름장치는 일부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는 검색창에 특정 단어, 이를테면 ‘야동(야한 동영상)’과 같은 단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정보검색을 차단하는 장치이다.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거름장치를 활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모욕적인 단어를 입력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 운영자들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단어를 ‘실시간으로 점검(monitoring)’하여 차단하면 댓글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일부 포털들이 악성 댓글이나 불법적인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점검 활동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과 실시간 점검 활동을 강화하거나, 보다 정교한 기술적 장치를 개발한다면 사람에 의하지 않고서도 실시간 점검이 가능하다.

한편, 인터넷 개인식별장치(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가 악성댓글 방지를 위한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언급되고 있다. 인터넷 개인식별장치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개발하여 현재 5개 민간회사에서 이를 보급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에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개발한 것이다. 이 장치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상의 13자리 번호를 부여하여 누리꾼들이 인터넷에서 활동할 때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본인 확인 실명제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나 도용을 방지하는 장치는 될 수 있지만, 악성 댓글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문화적 대책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

다.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익명성을 바탕으로 나의 실체를 숨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은 누리꾼이 그 사용에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이용자인 청소년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인터넷 PC방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여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 바로 인터넷 가상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다보니 타인의 존재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결여되고 타인과의 관계도 매우 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피부에 닿지 않는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적인 발언 즉 댓글을 다는 행위는 자신의 의식과 양심에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기 쉽다.

아울러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른들의 댓글문화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올바른 토론방식을 배우지 않고 자란 기성세대들이 무한 자유지대인 것처럼 자신 앞에 다가선 가상공간 앞에서 무한의 자유를 느낀 나머지 자신의 속도도 조절하지 못한 채 무한 질주하듯 타인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인터넷 환경이다. 신문이나 방송의 기사나 프로그램에 올라온 댓글들을 보면 이러한 일그러진 단면을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청소년들이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올바른 토론 문화와 댓글문화를 가꾸고 다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이러한 잘못된 댓글문화를 보고 배우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댓글로 인해 타인의 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회적 현실도 악성 댓글이 확산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인종차별적 행위로 인한 범죄(hate crime)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분명히 갖고 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사회에서 인종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누리꾼들의 행위는 법에 의하여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가상공간에서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악성댓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라온 세대의 일부는 인터넷 공간이 마치 무한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인간의 표현행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 가상공간 속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무엇이든지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즉 타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행위들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화는 한 시대 한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 신념체계, 규범 및 행위양식으로서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 태어나고, 자라며, 죽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 인터넷 댓글문화는 오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댓글문화도 이와 같이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함께 가꾸고 나눌 때 비로소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청소년들이 가상공간에서 보여주고 있는 잘못된 댓글문화는 앞에서 지적한 사회적 환경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터넷 댓글로 인한 청소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인터넷 공간은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무한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가상공간에서 행하는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한 타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과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초·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무작정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비평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토론문화의 기본이다. 댓글문화는 토론문화와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올바르게 토론을 잘 하는 청소년은 댓글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토론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사설학원에서는 청소년들을 학원으로 받아들여 한 달 동안 아무런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이 하는 말을 듣는 것만 허용하는 훈련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말만 내뱉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한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댓글문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내뱉는 댓글문화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은 대학이나 입사시험을 볼 때에도 집단토론을 시켜 설득력과 논리력 등 다양한 능력과 품성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토론 습관을 길러주고 이것이 가상공간에서 댓글문화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릇된 댓글문화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셋째,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 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그 구성원들을 이끌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여론 지도자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댓글문화를 형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댓글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모임이 필요하다. 그 모임의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 청소년들이 올바른 댓글문화를 이끌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 비록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는 아니지만, 그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BANK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구촌에서 찾아내 바로잡겠다는 이 BANK의 ‘자율적인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잔잔한 물결을 일으켰고 이 물결은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인터넷 댓글문화 운동도 이와 같이 뜻이 있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율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알찬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본다.

일단 형성된 올바른 댓글문화는 자생력을 갖고 점차 확산되어 나아갈 수 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다.

넷째,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성세대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자신과 ‘다른’ 타인의 모습을 참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신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고 이는 고쳐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자유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위를 인정하고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이를 답습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청소년 문제들 가운데 하나인 따돌림(‘왕따’) 현상이 바로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자신과 조금만 다르거나 자신보다 잘 낮거나 못 낮으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척하고 무시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실공간 속에서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공간 속에서는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악성 댓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홍보 캠페인 활동을 보면 대부분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홍보 캠페인 효과는 광고처럼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그 결실을 맺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방지 홍보활동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그 효과를 측정하여 홍보 캠페인 전략을 수정해가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네티켓 또는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몇 가지 이론들이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무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한계는 바로 타인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곳까지이다.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그 자유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인권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인권도 소중함을 알릴 필요가 있다. 개인의 자유와 이익이 타인이나 사회 공동체 모두의 이익 즉 공익과 충돌할 때 그 형평성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표현의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표현의 자유인가를 잘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권익과 행복을 지켜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고자 할 때 자신의 댓글이 나만의 권리가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또 자신의 댓글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청소년의 올바른 댓글문화도 마찬가지다.

4) 가정에서의 대책

첫째,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이 속한 사회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그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한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미디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와 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2살 이전부터 아이들은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인지하고 습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손에 그 무엇인가를 잡을 수 있게 될 때부터 부모들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린아이에게 그림 그리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서 컴퓨터 마우스를 처음으로 손에 쥐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순간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부모의 육아교육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릴 때 기른 디지털 미디어 습관이 미래에 그 아이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행태의 밑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일탈행위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비해 컴퓨터나 인터넷을 다루는 기술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올바른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방법을 교육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1995년에 PC통신 시대

를 마감하고 1996년부터 인터넷 시대를 맞이한 지 이제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 세대에 비하여 아직도 컴퓨터나 인터넷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해줌으로서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일찍부터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성운숙, 2007).

둘째, 이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부모의 자녀양육태도는 자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독재적이거나 방임적일 수록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로 인권침해를 많이 하고 피해경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태도나 방임적인 태도로 자녀를 기르게 되면, 아이들은 정보습득이나 학습보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오락적인 목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교육을 위해서는 부모가 올바르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치고 먼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테면, 가정에서 컴퓨터 사용규칙을 정할 때 부모들이 독단적으로 사용원칙을 정하고 강요하거나 무관심하기 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상의하면서도 충분히 설득하여 사용원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디지털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윤리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테면,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댓글의 경우, 예의를 갖추어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보여주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인터넷 댓글을 달 때 상대방이 실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실제 존재를 항상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댓글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무례한 욕설을 퍼붓는다거나 근거 없는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임을 명심시켜야 한다. 인터넷 댓글을 달 경우, 상대방 의견 글에 공감을 하거나 칭찬할 줄 알고, 또 상대방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이 다를지라도 인간의 생각은 다양하게 때문에 남과 다를 것을 인정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도록 가정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인터넷 댓글을 다는 도중 모르는 상대방이 불필요한 개인 정보 이

를테면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와 실제 이름을 물어올 경우 절대로 알려주지 말도록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실제로 악플을 달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청소년들을 찾아가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녀들에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캐나다는 악플보다는 사이버 왕따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³¹⁾ 미국 8학년의 약 30%가 인터넷상에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는 면대면 왕따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사이버 왕따는 주로 인터넷 메신저, 블로그, 휴대폰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Lost Mountain 중학교의 경우 Xanga 블로그 사이트에 학교 사진과 왕따 리스트가 올라와 있었다. 미국에서는 사이버 왕따 방지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왕따 발견시 운영 중인 핫라인 등을 통해 선생님 등 어른에게 알리도록 유도한다든지, 평소 왕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있다. 사이버 왕따에 대응하기 위한 학부모 지침을 살펴보면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성적인 위협을 감지하게 될 경우 즉시 경찰에게 알릴 것, 그것이 이메일을 통한 위협이라면 서비스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할 것, 특정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SBS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고생이 40kg 감량으로 화제가 된 후, 모 스타와 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각종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2007년 6월 자살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미디어 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보여준 끔찍한 부작용이다. 악플이 한 인격을 말살하는 흥기로 변한 것이다.

넷째, 가정에서 부모를 믿고 존경하며 만족스러운 생활 속에서 자라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한 청소년들은 건전하게 인터넷 댓글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 이것이 이 연구가 보여준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신적·신체적 발달 시기에 놓

31) 11Alive.com :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지역 인터넷 신문

여 있는 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이 이들의 인터넷 댓글 이용행태에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가정교육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청소년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부모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항을 어떻게 부모가 잘 관리하느냐 또한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친구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첫걸음은 아마도 자녀가 부모를 믿고 자신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열어놓는 첫걸음은 부모에 대한 신뢰이므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부모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단계는 자녀가 자신의 고민을 설득력 있게 부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논리적 사고와 조리 있는 발표 능력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터득할 수 있는 인간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공부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마음을 터놓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지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5) 학교에서의 대책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터넷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의식교육을 손꼽았다.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학교는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중요한 장이며, 이러한 교육의 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댓글로 피해를 당했어도 친구들의 또래 압력이나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있고, 인터넷 댓글 가해자의 경우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로 법적 처벌

을 받을 경우 이들도 충격이 크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상담과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댓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나 몰입은 학업이나 수면을 방해하고 신체적 발달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학기 초와 학기 말에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내용과 방법을 재점검하고 보다 더 흥미롭고 학생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성하여 교육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수업시간에 인터넷 댓글 등을 사용하면 직접 체험했던 경험을 좋은 점과 나쁜 점으로 나누어서 생각해보도록 하고, 이를 모둠별로 토론한 후에 조별 발표를 하도록 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과 아이디어에 흥미를 느끼고 신나게 발표할 것이다.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업 과정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쌍방향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인다면 학습효과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N세대의 미디어 교육방법으로 상호작용 학습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쌍방향 하이퍼미디어 교육, 학생이 중심이 된 참여적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가 인터넷 댓글의 좋은 점과 부작용을 지적하면 자칫 수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지만, 학생들이 서로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은 재미있어 하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기의 특징인 또래문화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디지털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곳을 직접 방문하여 그곳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을 현장 담당자로부터 직접 교육받는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교와 산업계가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칭 '청소년미디어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의 매체이용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시간 할당제를 제도화하거나 교대·사대 재학생이나 청소년 시설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연간 1회 이상 청소년 매체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제언을 토대로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로드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V-1>참조).

〈표 V-1〉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정책 로드맵

구분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기본목표	-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단거적 원인 제거 - 청소년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청소년들의 인터넷 댓글의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 강화 - 사이버수사활동 강화	- 인터넷 댓글 인권침해 방지 협력체제 구축과 네트워크 강화 - 인터넷 댓글 중독에 대한 예방 및 상담 - 미디어교육 정규 교과목 채택	-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의 다양화 및 활성화 -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을 포괄하는 인터넷 정책 수립 - 디지털격차 해소
추진전략	- 실명제 확대실시: 주요포털과 인터넷사이트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악성 댓글 방지 위한 '신고' 기능 활성화 -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악성댓글 방지 캠페인 활동 - 포털사이트의 1인 1ID 정착화 운동 - 포털사이트 등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 인터넷 문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강화 캠페인 진행	- 청소년보호를 위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도 제제할 수 있는 제도 설립 - 학교 미디어교육 실시: 인터넷활동에 대한 윤리교육, 건전한 토론문화정착을 위한 비평교육 실시 - 가정 미디어교육: 부모를 위한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교육 - 피해자가 사이버수사대로 직접 연결, 신고할 수 있는 조치 장치 마련	- 청소년 매체이용교육 위한 가칭 '청소년 미디어교육센터' 설치 운영 - 인터넷상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교육 의무시간 할당제 제도화 - 청소년시설근무자, 예비 교사(대학생)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청소년 매체이용교육 의무화 - 전국 미디어교육 주간 실시: 교사, 학생에게 미디어교육 지원, 장려

구분 \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2009년	2010년~2011년	2012년~
세부정책 추진 흐름	◆————→	◆————→	◆————→
정책 추진 주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Ⅵ. 참고문헌

VI. 참고문헌

- 강동범(2007).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형법적 대책. 형사정책, 제19권 제1호, pp.39-62.
- 강효민·이장영(2006). 프로야구 인터넷 문자중계 댓글에 나타난 네티즌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리서치, 제17권 제5호, pp.1113-1122.
- 권기덕·최병삼·이성호(2007). 웹 2.0이 주도하는 사회와 기업의 변화.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권상희(2007). 인터넷 미디어의 상호작용성 차원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2호, pp.46-97.
- 권영성(2006).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강민(2006). 웹2.0과 소셜 네트워크. 인터넷 이슈리포트, 4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김병철(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4권 제2호, pp.147-180.
- 김성천·김형준(2001). 형법각론. 서울: 동헌출판사. p.303.
- 김은경(2001). 사이버 성폭력의 현실과 쟁점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7권, pp.72-117.
- 김은미·선유화(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33-64.
- 김종길(2006). 시민참여 미디어로서의 인터넷 미디어 토론방. 담론201, 제9권 제3호, pp.33-79.
- 나은영(2002).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서울: 하나래. pp.294-297.
- 나은영(2006). 뉴미디어 시대의 청소년과 인터넷 문화.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p.19.

- 박정순(2004). 익명성의 문제와 도덕규범의 구속력. 정보통신연구원, 세미나 및 공청회 2004.
- 박진애(2006). 인터넷에서의 악플에 관한 헌법적 고찰. 안암법학, 제23권, pp.33-66.
- 방승주(2002). 헌법소송사례연구. 서울: 박영사.
- 백주진(2007). 인터넷 포털의 ‘의견 글’과 ‘댓글’에 관한 분석연구. 광주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영창(2006).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윤숙(1999). 인터넷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향. 한국가족복지학, 제4권 제2호, pp.135-151.
- 성윤숙(2002). 사이버 청소년문화에 관한 이해. 단국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7권, pp.41-62.
- 성윤숙(2007).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이버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 강원교육통권, p.51.
- 성윤숙(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 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4권 제4호, pp.181-197.
- 성윤숙·박한우·박상희(2006). 청소년의 뉴미디어 이용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손경한 외(2006). 사이버폭력지수 개발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KISCOM 2006-08.
- 심영희(2002). 사이버 성폭력과 윤리. 유네스코·숙명여대 공동 주최, 여성의 인권과 사이버 권리 심포지엄 자료집.
- 안동근(2002). 정보통신과 인권. 김성재 외, 인권시대를 향하여. 서울: 나남.
- 안명규(2003). 인터넷신문 뉴스형식(News Form)이 뉴스학습과 의제지각에 미치는 영향연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논문, pp.43-47.

- 안종묵·박광순(2007). 인터넷 미디어의 뉴스서비스에 관한 비교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7권 제2호, pp.335-372.
- 어기준(2000). 청소년 PC 중독의 유형과 문제점, 청소년 상담문제연구 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p.18.
- 엄명용·김미량(2007). 사이버공간에서 정보보호 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보화정책, 제14권 제1호, pp.123-143.
- 오경식(1999). 사이버공간에서의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문제점, 한국사회와 정보통신윤리세미나 자료집. 서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윤영민(2001). 사이버공간의 청소년 행동.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pp.199-228.
- 이명진(2006). 웹2.0 시대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방안 연구. 인터넷 이슈인사이드, 12호, 한국인터넷진흥원.
- 이성식(2003).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pp.12-14.
- 이성식(2007). 청소년 사이버비행의 동기, 기회와 통제요인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검증, 학술정보.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이양수(2007).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명예훼손에 관한 책임성 연구.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진(2007).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5호, pp.127-164.
- 이춘재(199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간의 차이와 부·모내의 차이.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1권 제1호, pp.29-45
- 정대관(2003).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 제2호, pp.905-928.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7).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

- 정완(2006).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일권·김영석(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4호, pp.302-327.
- 정진욱(2006). 인터넷 윤리 ; 인터넷 역기능의 현황과 인터넷 윤리. 한국정보처리학회, 제13권 제1호, pp.7-14.
- 정태석·설동훈(2004), 사이버범죄와 보안의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p.25-33.
- 조국현(2006). 인터넷 ‘댓글’의 텍스트유형학적 연구. 텍스트언어학, 제23권, pp.203-230.
- 조동기(2001). 사이버공간에서의 여론형성과 집합행동. 학술기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조수선(2007). 온라인 신문 댓글의 내용분석: 댓글의 유형과 댓글 게시자의 성향.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5권 제2호, pp.65-84.
- 홍영두(2005). 일상적 전자감시와 정보통신윤리: 프라이버시, 정체성, 익명성. 시대와 철학, 제16권 제2호, pp.131-153.
- 황상민·한규석(1999). 사이버공간의 심리. 서울: 박영사. p.471.

- Balsamo, A. (1995). 사이버공간의 가상육체. 서울: 문화과학사.
- Braidotti.(1996). Cyber-feminism with a difference. In New Formations: Technoscience, No.29(summer). http://www.let.rut.nl/womens_studies/rosc/cyberfem.htm
- Giddens, A.(1991). 사적 유물론의 현대적 비판. 서울: 나남.
- Haraway, D.(1991). *A Manifesto for Cyborg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ist Feminism in 1980s. Simians. Cyborgs and women: the Reinvention of Nature*, New York: Routledge. pp.149-181. <http://www.legendstandford.edu/dept/HPS/Haraway/CyborgsManifesto.html>.

- Heeter, C.(1989). Implications of new interactive technologies for conceptualizing communication, In Salvaggio, J. & J. Bryant, eds., Media Use in the Information Age, NJ: LAWENCE erlbaum Associates.
- Herring, S.(1992). *Gender and participation in computer-mediated linguistic discourse*.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http://www.ericae.net/ericdb/ED345552.htm>.
- Herring, S.(2002). *Gender violence: Recognizing and resisting abuse in online environments*.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women's right, cyber right.
- Hitchcock, J.(2002). *The wild, wild web: Cyberstalking*. UNESCO International Symposium. women's right, cyber right.
- Hogg, M.A. & Vaughan, G.M.(2002). *Social Psychology* (3rd ed.) London: Prentice Hall.
- Massy, B. & Levy, M.(1999). The use of on-line journalism in Asian countrie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Spring, pp.138-151.
-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 Morris, M. & Ogan, C.(1996). The Internet as Mass Medium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46, pp.39-50.
- O'Reilly, Tim(2005). *What Is Web 2.0? Design Patterns and Business Models for the Next Generation of Software*.
<http://www.oreillynnet.com>
- Perry, M.(1998). Deindividuation. 1-7.
- Rafaeli, S.(1986). The electronic bulletin board: A computer-driven mass
<http://www.units.muohio.edu/psybesite/fans/deindividuation>
medium. *Computers and the Social Science*, Vol. 2, pp.123-136.

- Rafaeli, S.(1988). Interactivity: From new media to communication. In R. Hawkins et al. (Eds.), *Advancing communication science: Merging mass and interpersonal processes*, Vol. 16, pp.110-134.
- Raney, R. F.(1999.4.29). Internet stalking case ends in plea. *The New York Times*.
- Shade, R. (1996). *The wired world according to woman*. CMC Magazine. <http://www.ai.mit.edu>.
- Smith. M.(2001).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서울: 나남, p.361.
- Spertus, E.,(1996). Social and ethnical means for fighting on-line harassment. <http://wllww.ai.mit.edu>.
- Tajfel, H. & Turner, J. C.(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and L. W. Austi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Chigago: Nelson-Hall.
- Teich, A., Frnkel, M.S., Kling, R., & Lee, Y.(1999). Anonymous Communication Policies for the Internet: Results and Recommendations of Civil Liberties. *SIGKDD Explorations*, Vol. 4, pp.1-5.
- Wallace, J. & Mangan, M.(1996). *Sex, laws, and cyberspace*. New York: Henry Holt and Co.
- Young, Kimberly S.(1998). *Caught in the NET*. New York: Published by John Wiley & Sons, Inc. pp.30-33.

□ 인터넷 자료

조선일보(2008.10.7)“인터넷 실명제, 악플 줄인다.”
 “인터넷 실명제”, <http://hannaholic.egloos.com/1881497>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안내”,
<http://www.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html?type>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7480.html
 “제한본인확인제”, <http://www.segye.com/articles/components/func/print.asp>

<http://www.safetyed.org>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4.do>
http://www.donga.com/news/print_web.php?n=200810110191
<http://law2.naralaw.co.kr/print/print.php>
<http://www.une.edu/courses/law357c/cyberprojects/spring00/cyberstalking>
<http://wiredpatrol.org>
<http://whoisshe.com>
<http://www.police.go.kr>(경찰청)

□ 신문자료

대한매일 2002. 9. 12일자
동아닷컴 2008. 10. 3일자
디지털 타임스 2007. 2. 1일자
문화일보 2002. 9. 17일자
조선일보 1999. 9. 27일자
중앙일보 2006. 3. 6일자
중앙일보 2007. 5. 16일자
중앙일보 2008. 2. 18일자
프레시안 2006. 1. 25일자

□ 관련법규 및 판례

사이버권리 피해구제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3214
대법원 2007.10.25. 선고2007도5077
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66806
대법원 2004.6.25. 선고 2003도4934
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다72914
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도1809
고등법원 2008.1.16. 선고 2006나92006
서울중앙지법 2006.3.10. 선고 2006고정885
*형사 (사건번호 2008도1433)
*형사 (사건번호 2003도4128)

부 록 I 청소년 인터넷 댓글 설문조사지

부록 1 청소년 인터넷 댓글 설문조사지

□□□-□□-□□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원에서는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지의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따로 없고 조사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자동 전산 처리되므로 응답에 따른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연구와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사주관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책임 연구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연구위원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다음 질문은 인터넷 댓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 표시하여 주시거나
() 속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댓글이란?

인터넷(뉴스, 토론방, 미니홈피, 카페, 클럽 등) 상에서 올려진 글, 이미지(사진, 그림), 영상(UCC 등) 등에
꼬리말, 리플, 덧글 등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당신은 인터넷을 통해 댓글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쓴 댓글을 읽은 적
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최근 인터넷 댓글을 쓴 적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썼습니까? 1주일
동안 이용하는 횟수도 적어주세요.

	질 문	전혀 쓰지 않는다	거의 쓰지 않는다	보통 이다	가끔 쓴다	매우 자주 쓴다	1주 평균 이용 횟수
1	클럽·카페 등의 동아리, 동호회 홈페이지	①	②	③	④	⑤	()번
2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토론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번
3	정치적인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번
4	스포츠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번
5	연예인 관련 뉴스 기사 (혹은 뉴스 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번
6	다른 사람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①	②	③	④	⑤	()번
7	EBS같은 교육 관련 홈페이지	①	②	③	④	⑤	()번
8	정부 기관, 관공서의 홈페이지 (정부부처, 사·도·군청 등)	①	②	③	④	⑤	()번

9	온라인 게임 사이트	①	②	③	④	⑤	()번
10	학교 홈페이지/학급 홈페이지 및 게시판	①	②	③	④	⑤	()번
11	기타 (자세히 :)	①	②	③	④	⑤	()번

3. 인터넷 댓글을 쓴 적이 있다면 주로 어디에서 쓰는지 사이트 주소, 게시판 종류를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

4. 인터넷에서 댓글을 쓰는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 기분 좋다	①	②	③	④	⑤
2	댓글을 쓰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댓글은 인터넷 문화를 민주적으로 만든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 게시물에 댓글이 많을수록 좋은 게시물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댓글 활동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댓글은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댓글에는 내 이름(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댓글은 요즘 유행하는 문화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댓글을 쓸 때는 성별(남/여)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내 글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댓글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친구들도 댓글을 쓰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댓글이 많이 달린 글을 찾아 읽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견(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잘못된 정보(뉴스, 토론게시판 등)를 지적하기 위해 댓글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내 생각을 쓰고 싶어서 쓴다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사람이 쓴 재미있는 댓글을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댓글을 쓸 때는 나이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19	댓글 때문에 좋은 정보를 알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도 내 글에 댓글을 달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재미 삼아서 댓글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22	남들이 내 댓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댓글이 없는 글을 보면 아무런 댓글이나 쓴다	①	②	③	④	⑤
24	댓글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인터넷 댓글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댓글이 가능한 사이트에 자주 간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댓글을 할 때 실명보다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댓글을 할 때 실명을 밝히기를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실명이 밝혀질까봐 댓글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쓴 댓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할까봐 조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글에만 댓글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게임이나 동호회같이 목적이 같은 사람의 글에만 댓글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9	댓글을 통해 번개를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댓글을 통해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댓글을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댓글 때문에 부모님에게 혼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해야 할 일을 하기 전에 댓글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마음 먹은 시간보다 오래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숙제 및 학업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댓글하느라 밤을 세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댓글 사용을 끊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댓글을 쓰거나 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악성 댓글 때문에 글을 잘 남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인터넷 댓글 사용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실태**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를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사람이 댓글로 나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른 사람이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댓글로 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댓글로 남을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댓글로 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댓글로 남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른 사람이 남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댓글을 남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다음은 귀하가 하는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부모·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해당 없음” 칸에 V표시해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2	나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3	나의 어머니께서는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4	나의 형(들)/오빠(들)는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5	나의 누나(들)/언니(들)는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6	나의 남동생(들)은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7	나의 여동생(들)은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8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내가 댓글을 달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V표시하여 주시거나
() 속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을 1주일에 몇 시간 몇 분 정도 이용하십니까?

1주일에 ()시간 ()분 사용

2. 인터넷을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음 중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
|----------------------|---------------------|
| ① 숙제나 공부를 위한 지식검색 | ② 온라인 게임 |
| ③ 메신저(네이트온, MSN 등) | ④ 인터넷 강의 청취 등의 학습활동 |
| ⑤ 전자우편, 이메일 이용 | ⑥ 댓글 달기 |
| ⑦ 미니홈피 꾸미기 및 친구홈피 방문 | ⑧ 카페 및 커뮤니티 활동 |
| ⑨ 동영상 및 UCC 만들기 및 감상 | ⑩ 인터넷 채팅사이트 이용 |

- ⑪ 음악감상 및 MP3 파일 다운로드 ⑫ 연예·스포츠 정보 검색
 ⑬ 뉴스나 생활정보 검색 ⑭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⑮ 인터넷 쇼핑몰 및 공연, 영화 예약

3. 당신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
 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의도했던 것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인터넷을 하느라고 내가 할 일을 미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이나 친구들과 있는 것보다 인터넷을 하는 것이 더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인터넷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을 너무 오래 한다고 부모님한테 야단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6	인터넷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숙제나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성적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7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8	인터넷 때문에 학교공부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일도 소홀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람들이 내게 인터넷을 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물었을 때 사실보다 줄여서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인터넷에 대한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인터넷을 하지 않을 때에도 다시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인터넷이 없는 세상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인터넷을 하는 도중에 방해받았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인터넷을 하느라 늦게 잠이 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인터넷을 안 할 때도 그에 대한 생각으로 짝 차 있거나 하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인터넷을 할 때 “몇 분만 더”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인터넷을 얼마나 오래했는지를 남에게 숨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 인터넷을 하며 시간 보내는 걸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기분이 우울하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인터넷을 하고 나면 괜찮아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당신은 인터넷 댓글사용에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일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처벌의 정도를 찾아 V표해 주십시오.

유형		전혀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보통 이다	처벌해야 한다	매우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1	욕이나 비난 등의 모욕	①	②	③	④	⑤
2	협박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4	허위사실이나 비밀·사진·동영상 등의 사생활 유포 등의 명예훼손	①	②	③	④	⑤
5	스토킹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	①	②	③	④	⑤
6	음란·폭력물 배포	①	②	③	④	⑤

5. 당신이 인터넷 댓글을 통해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실 중 한 가지라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해당번호에 V표해 주세요. ➡ **피해 입은 적이 없으면 8번 질문으로**

- 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② 가족 ③ 친구나 선후배 ④ 선생님
⑤ 상담실 ⑥ 경찰 ⑦ 기타

6. 당신은 이러한 피해사실을 알린 후 많은 도움을 받았나요? 해당번호에 V표해 주세요.

- ① 많은 도움이 됐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똑같았다
④ 오히려 더 피해를 보게 되었다

7. 당신은 이러한 피해를 당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질 문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2	화가났다	①	②	③	④	⑤
3	불안하거나 초조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시도했었다	①	②	③	④	⑤
6	건강이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생활에 의욕이 없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8	대인관계가 두려워지고 위축됐다	①	②	③	④	⑤

9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거나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성적 호기심이나 충동이 강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했다	①	②	③	④	⑤

8. 당신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유형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모든 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포털 사이트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뉴스게시판만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채팅사이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 질문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것 하나만을 골라 해당번호에 V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음은 여러분의 자아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의 내용은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일들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자신에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V표시하여 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쉽게 이성을 잃는다(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우리 아버지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부모님을 대체로 믿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로 사이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	새 친구를 사귀는 것이 매우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커서 가정을 이루면 적어도 몇 가지는 우리 집과 비슷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 사귀기가 심하게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8	가족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나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체로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10	남들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길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삶이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아무 재능도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부모님은 대체로 나를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즐겁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당신은 당신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을 읽고 오른쪽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를 찾아 V표해주세요.

문 항		전혀 아니다	아닌 편이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족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친구관계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한국사회 전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당신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해본 것을 모두 골라 해당번호에 V표해 주세요.

- ① 음주
- ② 음란물 보기
- ③ 청소년출입금지업소(나이트클럽, 비디오방 등) 출입
- ④ 흡연
- ⑤ 성관계
- ⑥ 폭행, 금품빼기, 패싸움 등의 폭력
- ⑦ 가출
- ⑧ 집단따돌림(왕따)

4. 여러분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5. 여러분의 학급과 학년은? 자신과 일치하는 번호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중학교	①	②	③
2	일반계 고등학교	④	⑤	⑥
3	실업계 고등학교	⑦	⑧	⑨

6.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귀하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사는 편
- ② 대체로 잘 사는 편
- ③ 보통 수준
- ④ 대체로 못사는 편
- ⑤ 매우 못사는 편

7. 귀하가 살고 있는 곳은?

- ① 특별시(서울)
- ② 광역시(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 ③ 시·군

8. 귀하의 최근 학교 성적은?

- ① 상위권(매우 잘 하는 편이다)
- ② 중상위권(잘 하는 편이다)
- ③ 중위권(중간 정도이다)
- ④ 중하위권(잘 하지 못하는 편이다)
- ⑤ 하위권(아주 못하는 편이다)

9. 귀하가 생각하는 귀하 부모님의 자녀양육태도는 어떻습니까?

- ① 민주적(자녀의 의견 존중하고 상의한 후 결정)
- ② 독재적(자녀의 의견 무시, 부모 의견대로만 함)
- ③ 허용적(자녀의 의견 존중하고 허락)
- ④ 방임적(자녀가 하는 일에 별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둠)

10. 부모님의 학력은?

학 력		아버지	어머니
1	사망 등의 이유로 계시지 않는다	①	①
2	중졸이하	②	②
3	고졸	③	③
4	대졸(전문대 포함)	④	④
5	대학원졸 이상	⑤	⑤

♣ 끝까지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 !!

부 록 Ⅱ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조사지

부록 II

청소년의 인터넷 댓글 이용현황과 문제점 심층면접조사 질문지

※ 인터뷰 시작 전에 댓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인터넷 댓글이란?

인터넷(뉴스, 토론방, 미니홈피, 카페, 클럽 등) 상에서 올려진 글, 이미지(사진, 그림), 영상(UCC 등) 등에 꼬리말, 리플, 덧글 등을 쓰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댓글을 자주 쓰나요? 대략 하루에 몇 개 정도(평균)
2. 댓글을 쓸 때 이용하는 장소는?(자기방, pc방, 친구집, 학교 등)
3. 댓글을 쓸 때 주로 이용하는 ID는?(이름, 별명, 연예인 등)
4. 댓글을 쓰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는?
5. 댓글을 읽으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는?
6. 주로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7. 어떤 게시판(뉴스, 토론방,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주로 댓글을 쓰나요?
8. 대체로 어떤 게시물(시사/스포츠/연예 등)에서 댓글을 쓰나요?

9. 사이트에서 댓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 댓글을 쓸 때(혹은 볼 때) 자신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재미, 익명, 자신감 있는 표현, 반말 등)
11. 댓글을 쓸 때(혹은 볼 때) 자신에게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반말, 비난, 욕설, 격한 성적 표현 등)
12. 자신이 쓴 댓글에 다른 리플러들이 반응(댓글)을 보인 적이 있나요?
(사이트/게시판/내용/반응 : eg 논쟁, 욕설 등)
13. 남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이 반응(댓글)을 표현한 적이 있나요?
(사이트/게시판/내용/반응 : eg 논쟁, 욕설 등)
14.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게시물(댓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감정변화, 기분 등)
15. 부모/형제/친구들이 당신의 댓글 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좋다? 나쁘다?) 혹시 친구들이 (악성) 댓글이 다는 것에 대해?
16. 댓글 때문에 부모(가족)/친구와 갈등이 생긴 적이 있나요?
17. 자신이 혹은 남이 쓴 댓글 때문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1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한적 본인 확인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19.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0.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21.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22. 댓글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④ 개인 신상 질문

1. 성별 :

2. 학교 / 학년 : 학교 / 학년

3. 나이 : 19 년 월생

4. 아버지 직업 :

어미니 직업 :

5. 거주 지역 :

부 록 Ⅲ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내용

부록 III 청소년 인터넷 댓글 심층인터뷰 내용

□심층인터뷰 대상자(총 20명)

사례	학교	학년	성별	생년	부모 직업		거주지역
					아버지	어머니	
1	광신정보산업고	1	여	1992년		미용사	서울 구로구 신림동
2	광신정보산업고	1	여	1992년	사업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	광신정보산업고	2	여	1991년 5월	자영업		서울 관악구 봉천2동
4	광신정보산업고	2	여	1991년 11월	자영업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5	광신정보산업고	3	남	1991년	자영업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6	광신정보산업고	3	남	1991년	자영업	간호사	서울 금천구 시흥5동
7	선린중학교	1	남	1995년	자영업	교육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8	선린중학교	1	남	1995년	회사원	자영업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9	능곡고	2	남	1991년	자영업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0	목동고	2	여	1991년		자영업	서울시 양천구 신정7동
11	일산동고	2	남	1991년	회사원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2	고양예술고	2	남	1991년	사업가		고양시 장항2동
13	영국 Tasis American School	1	남	1991년	사업가	교육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14	목동고	2	여	1991년	회사원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5	목동고	2	여	1991년	회사원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6	목동고	2	여	1991년	공무원	공무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7	목동고	2	여	1991년	자영업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18	목동고	2	여	1991년	한의사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19	목동고	2	여	1991년	자영업	약사	서울시 양천구 신정3동
20	목동고	2	여	1991년	사업가	주부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 댓글을 자주 쓰나요? 대략 하루에 몇 개 정도(평균)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루에 10개 정도 2. 1개 아니면 안달 때도 있어요. 3. 하루에 3-4개 정도 4. 3-4개 정도 써요 5. 1-2개 정도 6. 하루에 1-2개 정도 달아요. 7. 10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8. 20개 정도요. 9. 2-30개 10. 10개에서 15개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1. 대략 3-4개 정도 밖에 안쓰는 데요 12. 2개 13. 하루에 5개 정도 14. 하루에 10개쯤 쓰는 것 같아요. 15. 한 하루에 3~4개 정도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6. 많으면 2~3개 정도요. 많이 안 써요. 17. 한 2~3개정도 써요. 18. 한 0.5개. 자주 쓰는 편이 아니에요. 19. 한번 쓸까 말까해요. 거의 안 써요. 20. 댓글 잘 안쓰고, 잘 안봐요. 미니홈피도 안해요. |
|---|---|

㉮ 댓글을 쓸 때 이용하는 장소는?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에서... 저는 제 방에 있어요 2. 집에서... 저희 집은 거실에 있어요 3. 집이요 4. 집이요 5. 집이요.... 거실에 있어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집에서요. 거실에 있어요. 7. 제 방에서 주로 컴퓨터를 하구요.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많이 해요. 8. 집에 컴퓨터요. 9. 집이요 |
|---|---|

10. 집에서 쓸 때도 있고, 피시방은 게임하다가 시간 남을 때... 학교에서 자유시간 줄 때 검색 같은 것 하다가
11. 집에서도 하구요. 학교 컴퓨터 쓰는 시간에... 피시방에서도 하구요. 주로... 집에서
12. 집이죠. 제 방에서
13. 집, 피시방
14. 집에서 주로 인터넷을 하고,

- 언니 방? 언니 방에서 주로 이용해요
15. 집에서 쓰죠.
16. 집에서만 해요.
17. 집이요... 혼자쓰는 방에 있어요.
18. 집의 서재요
19. 집에서 하거나, PC방이요.
20. 집이요.

㉠ 댓글을 쓸 때 주로 이용하는 ID는?

1. 이름을 많이 써요.
2. 제 이름을 써요.
3. 광신얼짱이요
4. 저는 실명으로 나와요.
5. 네이버 계정을 많이 써요... 영어로 칸타빌레라 하구요. 언더바 한다음 02가 제 아이디예요.
6. dlkgsthf635라구요.... '한영' 누르고 치면 제 이름 000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7. 저는 제 이름을요. 영어 키를 누르고 쳐요. 그리고 뒤에 제가 태어난 해인 91을 붙여요.
8. 한글 이름을 영어로 해놓고 쳐요. 저는 이름으로 안하고 그냥 별명으로 해요... 발굽이요.

9. 한글 존중을 영자 누르고 친 거예요. 어렸을 만든 id예요.
10. 저는 제 별명을 써요... 게임 아이디를 쓰는데요. 그냥... 접둥이라고... 닉네임 하나를 정해놓고 쓰고 그래요.
11. 나이스 샷을 영어로 쓰던가... 제 별명을 써요. 백곰이나...그런 곰류...
12. 제 이름이 태원인데 원래 taewon인데 그냥 영어로 tawon이라고 해서 써요.
13. 네이버 같은 데는 그냥 ID잡아요. 그래서 kim91sub이요
15. 아이디요? 제 이니셜을 따서

chi씨요, 안되면 뒤에 생일 붙여서 쓰고 그 정도로 써요.	쓰던 것 그대로 써요. 'gocherin (고채린)' 이렇게요.
16. 모퉁이. 영어로 해놓고 한글로 쳐요. 아니면 미령이 이렇게 써요.	19. 쓰는데 마다 다 달라요. 한글로 산소녀요,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써요.
17. 제 이름이요. 이름을 영어로 써요. nxlxl123 이요.	20. chr91221 이요. 제 이니셜하고요 제 생년월일이요.
18. 제 이름이요. 제 이름 옛날에	

📌 댓글을 쓰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는?	
1. 네이버나 싸이월드요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보구요.
2. 네이버, 싸이월드	심심하면 해외 얘기를 많이 보고, 신기한 그런 것들 보고, 싸이월드 들어가서 연예인 게시물
3. 다음이요	에다가도 하고, 그런 것 보고, 댓글 달고
4. 싸이월드	
5. 네이버 카페나 웹툰이요	
6. 네이버요	14. 힙합 플레이야 닷컴, 싸이월드 미니홈피, 다음 뉴스 그런데요.
7. 휴대폰 네이트하구요. 네이버 정도	15.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뉴스 같은 데는 댓글을 다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연예인 좋아하는 모임 같은데서 몇 번 쓰고, '이번에 방송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써요.
8. 네이버나 싸이요	16. 네, 다음 많이 들어가요. 텔레비존 같은 곳이요.
9. 싸이월드와 네이버	17. 아니요.
10. 싸이월드의 미니홈피하구요. 다음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곳...	18. 음,, 딱히 그런 곳은 없어요.
11.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 무비'라고.. 싸이월드...	
12. 싸이월드	
13.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헤드라인 있는 거랑 심심하면... 애프터	

19. 저는 다음 카페이용해요.

20. 아니요, 없어요.

☞ 댓글을 읽으려고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 주소는?

1. 네이버요
2. 네이버요
3. 똑같아요(네이버, 싸이월드)
4. 똑같아요(네이버, 싸이월드)
5. 거의 거기를 가요(네이버 카페 나 웹툰)
6. 똑같죠. 남들이 쓴 걸 본 다음에 제가 댓글을 써요(네이버).
7. 거의 같구요. 네이버에서 많이 읽는 것 같아요
8. 대문이 네이버니깐요. 거의 네이버에서 읽구요. 관련 기사 따라가다 보면 다음, 야후, 싸이도 가는데 거의 네이버에서 봐요.
9. 네이버랑 웃대... 웃대라고 아세요?
10. 딱히 이용하는 것은 없구요. 구경하다가 내려가다 보면 '이글 좀 재밌네'하면 쪽 읽어보고 그런 식이에요.
11. (싸이월드) 아무래도 제 미니

홈피요.

12.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13. 싸이월드 클럽이나 애들이 사진에다 댓글 달고, 의견 하는 데 가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거...
14. 읽으려고,,, 리더머라고 혹은 음악 사이트가 있거든요.
15. 다음 카페에서 많이 이용해요, 아니면 아고라 같은데요.
16. '웃대 (웃긴대학)' 이런데 많이 들어가요.
17. 가끔씩 싸이월드 해요.
18. 네, 미니홈피에 댓글 달고, 그냥 기사요. 따로 찾아가서 남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19. 아니요, 그런거 없어요. 저는 댓글을 별로 안봐서요.
20. 그냥 신문기사만 보고 그래요.

☞ 주로 댓글을 쓰는 사이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1. 블로그 관리를 하고 있어요

2. 블로그에 스크랩해 놓은 걸 모

아놓아요

3. 악플 담당... 저는 다음 곳곳 돌아다니면서 검색어 1위부터 보고 댓글도 달아요.
4. 기사보고, 댓글 다는 정도... 미니홈피도 하구요.
5. 블로그하고 있어요... 카페는 닌텐도 카페 같은데 가서 정보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닌텐도가 온라인 되는 것이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6. 할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가입은 되어 있어요... 음악 듣는 데요. 가수 팬 클럽 같은 데요.... 노래 다운 받고, 듣고, 댓글 다는 정도
7. 카페활동이요. 미니홈피도 하구요... 엠피쓰리 다운 받을 수 있는 카페하구요. 게임 카페요. RPG 게임 같은 거 좋아해서 카페활동하고 그랬어요.
8. 검색하구요. 웹툰보고, 축구 동영상도 보고 그래요... 사이월드에서 미니홈피하고 있어요.
9. 그냥 사이트 들어가서 싸이월드 홈페이지나 둘러보는데... 그냥 사진 있으면 남기구요... 블로그하고 카페활동도 해요. 게임 카

페요. 심즈나 씨든 어택이나...

권상우 팬클럽

10. 싸이월드에서는 미니홈피하구요. 네이버나 다음은
11. (카페에서) 그냥 그림을 공유하는 입장이구요. 그냥 올리고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하는 입장이구요.
12. 싸이월드 밖에 안하는데요. 클럽하고, 미니홈피요
13. 카페, 제가 흥미있어 하는 것, 사진, 제가 사진에 좀 흥미가 있고. 제 취미로 비트박스 같은 것도 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이런 것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14. 주로 리플 달고, 글 쓰는데 있으면, 제가 주로 음악 사이트에 가기 때문이에요 앨범 나오면 앨범 듣고 앨범 리뷰 쓰고, 자유게시판에다 사람들 이야기 하는 거 그런 정도 글 써요.
15. 아니요, 그닥 별로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해요. 참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마녀 사냥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16. 아니요. 그냥 보고 웃기만하고, 쓰고 나와요.

17.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고 쓰진 않아요.
18. 네, 미니홈피에 댓글 달고, 그냥 기사요. 근데 읽고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제 것에 댓글을 달아도 그냥 보고 넘겨요. 따로 찾아가서 남기거나 그렇지 않아요.
19. 좋아하는 연예인 카페나, 싸이 월드 미니홈피 정도요.
20. 그냥 뉴스 기사만 봐요. 자료만 찾고,, 숙제할 때 나 요즘 이슈 같은거 찾는 거 외엔 없어요.
15.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미니홈피죠, 친구들과하고 얘기하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익명으로 하는 공간에는 별로 안 남기는 편이에요. 블로그도 친구들이 하는

- 데만 남기고,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남겨요.
16. 연예인 관련된 것들이요. 드라마 같은거요. 각 드라마별 게시판 들어가서 댓글 달아요.
17. 미니홈피요.
18. 시사라 던지, 요즘 쇠고기 수입에 대한 논란기사라든지 이런 것에 어찌다가 댓글 쓰는거 정도요.
19. 미니홈피나 다른 사람 블로그 정도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거요. 그냥 들어가서 보는 정도예요.
20. 친구 미니홈피 방명록이나, 게시판, 사진첩에 달아주기도 했어요.

☞ 어떤 게시판에 주로 댓글을 쓰나요?

- 대다수가 '대체로 어떤 게시물에 댓글을 쓰나요?'

1. 연예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달아요... 스포츠 쪽은 별로 안좋아하구요. 여자다보니깐. 주로 가수들 다시 컴백했다... 그러거 보면 댓글 무조건 달구요. 요새 집에서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쇠고기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 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대개 많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 많아서 댓글 보러 가고 그래요.
2. UCC에 많이 달아요... 엽기나 노래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구요. 바이올린 연주자 피아노 연주 같은 거. 그리고 팬

비트 아세요?

3. 카페는 잘 안가요... 텔존이라고... 연예인들 사진들 여러개 뜨고... 그런 데가 있어요. 주로 연예인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 같은 거요.
4. 댓글 같은 것은 싸이월드(미니홈피)에서 해요.
5. 일정적으로 다는 곳은 웹툰이나 카페 같은 곳이구요. 나머지는 들었을 때 좋은 정보 있으면 '잘 보고 간다'고 달아요.
6. 아까 가입했던 카페하구요. 아니면 뉴스 같은 것 보고 써요.... 스포츠는 별 관심 없구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사에 관심이 많아요.
7. 뉴스에다가 많이 써요. 요즘 촛불시위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네이버 가서 뉴스 게시판보고 과격하게 시위대를 진압하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좀 심하네요' 그런 댓글 달아요.
8. 뉴스에서 많이 써요... 유로 2008 같은 축구 보려고 쓰는데요. 제일 많이 뉴스 보고 많이 써요.
9. 싸이월드 미니홈피요... 카페나 제 미니홈피에 애들이 댓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답글을 써요. 하나하나 다 달아요... 네이버는 제가 알고 싶은 네이버에 쳐보잖아요. 그런 거 해놓으면 누가 올려놓으면 댓글 쓰고 '좋은 정보 감사해요 웃음' 이런 거 쓰고

10. 만화책 같은 것도 읽구요. 제가 음악 같은 것 좋아해서요. 사람들이 음악을 막올려요. 그걸 듣고 평가해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댓글을 올리기도 하구요 싸이월드는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사진 올렸다고 봐주고, 동영상도... 싸이월에 제 친구가 UCC를 올려었는데요. 그것 보고 댓글 올려주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1. 그림나라요... 제가 손으로 직접 그린 캐릭터 같은 그림이요. 집에서 심심할 때 그린 거... 좀 잘 그렸네 하면 올려요... 그냥 평가 받고 싶어서요.... 서로 해주고 그래요. (미니홈피) 가서 사진 같은 거 보면 잘 나왔다, 안나왔다 이상하다 그런 거 쓰구요. 방명록에도 쓰고... (뉴스) 기사를 보기만 하고 쓰지는 않아요. 주로 신문으로 보고...

12. (미니홈피의) 친구 사진이나

좋은 글들 있을 때

13. 뉴스 게시판도 있고, 그냥 거기 달잖아요. 뉴스에서 달잖아요. 뉴스 기사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거기다가 제 의견을 많이 하지만 의견을 치는 사람의... 또 있잖아요. 한 말을 쭉욱 길게 많이 썼어요. '말도 안된다, 멍청한 소리하네'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저는 욕은 안하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라'고...
14. 음악에 대해서 앨범 리뷰하는데, 음악 얘기하는데, 모 거기 말고도 다음에서는 다음 뉴스

같은 것도 보고 달고, 그 정도요.

17. 친구들이 요구해서요.
18. 제 의견을 알리고자 써요. 각자 생각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혹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되면 반박 할 겸 제 생각을 써요.
19.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아니면 말이 틀렸다 싶으면 반박하는 정도로요.
20. 누가 제 미니홈피에 댓글을 달아줘서 의무적으로 친구 홈피에 달아주는 적도 있고, 친구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 저와 관련 된 게 있으면 생각나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 사이트에서 댓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아까 말했듯이 정부 정책에 관한 댓글을 쓸 때는요. 자기의견을 나타내는 것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인터넷이 막 발달되지 않아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었잖아요. 인터넷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깐 좋은 것 같아요.
2. 무응답
3. 자기 생각 남기려구요. 그리고

연예인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4. 제 의견을 남기려구요.
5. 일종의 매너, 스크랩 같은 것 할 때도 출처도 안 밝히고 그러면 '불펌'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오니깐...
6. 남들이 제 의견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거죠. 댓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다양한 입

- 장에서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7.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쓰다보면 제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구요. 음... 다른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8. 공감가거나 전혀 내 의견이랑 반대될 때요... 공감이 가며 공감한다고 쓰고, 전혀 다른 의견이면 반박을 하려고 써요.
 9. 이 게시물을 알리기 위해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사람들이 음악 같은 것을 많이 올려놓는데 댓글 안남기고 퍼가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퍼갈 때 댓글 남기세요... 이거 뭐냐면 말하고 가져가는 것은 괜찮은데 말 안하고 가져가는 건 기분 나쁘니까... 그런 건 올려놓죠. 예의상...
 10. 그냥 저는 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쓰니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쓰면 제 느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난 이런 데, 너는 어떠니’ 이런 식으로...
 11. 이 댓글을 달므로 인해 상대방이 또 댓글을 달아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평가... 내가 말해주면 상대방이 말해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12. 친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미니홈피 상), 좋은 글이나 좋은 사진이 있으면 ‘이거 정말 잘 나왔다’, ‘잘 썼다’, ‘재미있다’ 이런 것을 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13. 음.. 제가 댓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의견을 말하고, 제가 기사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하고, 댓글을 쓴 사람이 달아주면 ‘내가 생각한 게 잘못이었구나’, ‘이 사람 의견이 맞으니깐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체크할 수도 있고...
 14. 사람들이 댓글을 보면 대개 하나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면 계속 그 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대개 짜증나는 의견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좀 막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아간 것 같아서 그래서 쓴것도 있고요, 또 칭찬하는 글이면 괜히 저도 같이 좋은 말 해주고 싶고,, 그래서 써요.
 15. 일단 댓글을 쓴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 쓰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 아니다 싶은 것에만 써요.

16. 각자 자기 말하고 싶을 때 댓글을 쓰는 거 같아요. 표현하고 싶을 때요.

17. 친구들이 요구해서요.

18. 제 의견을 알리고자 써요. 각자 생각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혹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생각되면 반박 할 겸 제 생각을 써요.

19. 다른 사람과 공감하거나, 아니면 말이 틀렸다 싶으면 반박하는 정도로요.

20. 누가 제 미니홈피에 댓글을 달아줘서 의무적으로 친구 홈피에 달아주는 적도 있고, 친구 사진첩에 있는 사진이 저와 관련 된게 있으면 생각나서 쓰는 것도 있고 그래요.

㉠ 댓글을 쓸 때 혹은 볼 때 자신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에서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2. 저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구요.

3. 못하는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닉네임이잖아요. 실명이 아니라서...다 비판하기

4. 저는 나쁘게 안써요. 싸이월드 방문자 수 늘리기?(웃음) 미니홈피 업데이트를 하면요. 사람들이 들어와요.

5. 읽은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서...

6. 감동적인 사연이 나왔을 때... 뉴스에서요. 그런 거 봤을 때 사

람들이 자기마다 본받아야겠다고 했을 때요.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따뜻한 소식을 보고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7. 댓글을 보다보면 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생각들도 보고, 내 생각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재미있어요.

8. 쓰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니까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 제 미니홈피에 다른 애들이 댓글 써줄 때... 예를 들어 제 얼굴(사진)을 올리면 '예쁘다' 이런 거 올려주면 기분 좋죠.... 일단

댓글 올려놓으면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안좋은 글들 있으면 바로바로 지워요. 좋은 거는 남겨놓는데 다른 애들이 보고 그러니까 좋죠.

10.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도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다가 심심하니깐 쓰고, 내 느낌만 잠깐 쓰고, 저는 이 점은 없다고 봐요.

11. 아무래도 말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글로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더 잘 평가해주고 그러겠죠.

12. 누군가 나를 봐주는 것 같아서 좋다... 보는 입장일 경우에는 그렇고, 쓰는 입장일 때는 커뮤니티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13. 댓글을 달 때 다른 사람처럼 흥분해서 욕하지 않고, 좀 한 번 더 생각해서 진지하게 다는 것, 장난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고 적고, 욕먹은 댓글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만한 댓글을 달지 생각해보고 적어요.

14. 제가 몰랐던 부분을 생각하게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앨범을 하나 듣고도 되게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걸 이런 관점 말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할 때 많은데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15. 일단 뭔가 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만족스러워요.

16. 내놓고 말 못하는 것을 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7. 연예인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아요.

18. 싸이월드 방명록은 멀리 있는 친구들끼리 연락할 수 있어 좋고요, 시사 같은 건 제 생각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9. 다른 사람들도 저랑 똑같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고.

20. 별로 그런게 없어요.

☞ 댓글을 쓸 때 혹은 볼 때 자신에게 나쁜 점은 무엇인가요?

1. 쓸 때 나쁜 점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막말하는
댓글이 쓰여져 있을 때는 좀 그
래요
2. 저는 잘 안쓰고 보기만 하는데
요. 댓글을 복사해서 여러 개의
댓글을 달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그게 뭔지 궁금해서 보
게 되는 대부분 이상한 글들이
예요. 누구 욕하거나...
3. 아직까지 불이익 본 거는 없어
요
4. 저두요(불이익 없음)
5. 어떤 사람이 만화를 그려서 올
렸는데 어떤 사람이 만화가 재
미없다고 욕을 올리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것에 관심이 쏠려
가지고 계속 욕으로 리플을 달
아요. '그럴 꺼면 왜 보냐'라는
식으로...
6. 사람들이요. 무조건 비판적으로
보면서요. 반말 쓰고, 욕하는 거
요.... 걸리지 않을 정도로 병신
을 비, ㅅ 그런 식으로 쓰던지...
좀 더 심한 사람들은 욕을 막
쓰기도 하고 그래요.
7. 댓글을 쓰다보면 시비 거는 사
람이 있고 그래서 감정이 격해
질 때도 많은데, 그렇게 싸우고
나면 기분 나쁜 것 밖에 없잖아
요. 그렇게 안좋아요.
8.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말이 괜히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깐 좀
그러면서 말을 막하게 되는 것
같아요.
9. 익명성... 왜냐하면 네이버서 지
금 그런거 해주기도 하지만 대
개 질문을 하면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대
개 기분 나쁘게 하는 것들...그리
고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
도 많잖아요.
10. 아까 말했듯이 평가를 하잖아
요. 노래 같은 것, 음악을 듣고
평가를 하다보면 그냥 어떤 사
람이 이렇게 해요. 저도 그럼 이
렇게 해용. 그럼 싸움이 나요.
댓글로... '네가 뭔데 나한테 그
러냐고... 그 댓글 때문에 하루
에 한번씩은 봐요. 그러다가 짜
증나면 제가 안해버리죠. 그런
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것은 굉
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낀 걸 쓴 것뿐인데 굳이 싸움

까지 할 필요는....

11. 악플이죠.... 솔직히 제가 얼굴이 좀 커서 얼굴 작은 애랑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애가 얼굴 크다고 해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어요.

12.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상처 많이 받잖아요. 그거 보면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 좀 그래요. 너무 편하게 대하다 보니깐 욕도 그냥 막 쓰고, 보는 사람은 신경 안쓰고 그냥 자기 만족으로 하다 보니깐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13. 너무 기사를 자세하게 읽지 않고, 충분히 알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쓸 때, 잘 아는 것 같이 쓰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들은 게 많으니깐,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데 들은 것을 이것은 맞다라고 단정 짓고, 쓰는 게 있어요. 확실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 것 볼 때도 제가 들은 것에서만 한정 되가지고 그 사람이 '틀렸다', '아니다' 단정 지으니깐...

14. 그냥 자기 얘기를 하는데 반말, 욕 써서,, 두줄 '재수 없다, ㅋㅋ', ' 즐 ㅋㅋ ' 이런거 보면 짜증나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15. 나쁜 점은 아무래도 제가 쓴 말이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누가 제 말에 태클을 걸지 않을까? 이런 거요.

16.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나쁜 뜻으로 말 한건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밑에다 '그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달자나요. 그때 짜증나요.

17. 너무 대놓고 막말해요.

18. 그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고 늘어지고, 욕설 이런 댓글 남긴 거 볼 때 유치하다 생각 들어요.

19. 근거 없는 말이거나, 일방적으로 욕하는 거요.

20. 사람들이 제대로 상대를 알지도 못하면서 글을 쓰는것을 안 좋다고 생각해요.

☞ 자신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로)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요?

1. 거의 없었어요.
2. 그런 곳에서는 댓글은 잘 안남기고, UCC 같은 곳에만 남겨요. 주로 보기만...
3. 저는 다시 악플. 연예인 욕하면 그 연예인 팬이 와서 악플 달고...
4. 공감하고, 맞는 말이라고 댓글 달아줘요.
5. 닌텐도 '위'를 사가지고 후기를 올려놓았는데 인터넷에 떠가지고 '잘보고 간다'고 한 적도 있었고, '그 내용물에 어떤 것들이 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6. 특별히 그런 적은 없어요.
7. 네 댓글 쓴 걸 보면요. 베스트글, 베스트 댓글이 있거든요. 한번 됐었거든요... 어떤 정치인이 촛불집회에 대해서 비하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거 대해서 썼는데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줬더라구요.
8.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공감가는 사람들은 공감간다고 올리고, 자기들도 전혀 상반되는 의견을 갖고 있으면 '이건 뭔글이냐'라고 하면서 올리죠.
9. 쓸데없는 댓글을 올렸다고 하

- 면... 제 아이디어가 만일 123이에요. '123님 좀 어이없네요' 좀 그런 건 하는데... 그런데 퍼갈게요. 이런 건 반응을 안하는데 특이하거나 아니면 연예인 카페에다가 '저도 저번에 여기에 권상우 온 거 봤는데' 그러면 '123님 보셨어요?' 이런 거...
10. 그냥 공감, 공감대. '뭐 이러이러한 것 같다' 하면 '저두요', '저두요' 이런 식으로...
 11. 친구들이 장난 식으로 많이 해요... 만약 제가 사진을 '잘 나왔다'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다'를 이어서 '다람쥐'라고 써요.
 12. 없었어요.
 13. 몇 번 댓글을 썼는데... 그냥 단순해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한테 욕할 때도 있고, 그렇게 별로 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맞아맞아', 'ㅇ ㅇ ㅇ' 이렇게...
 14. 네..제가 어떤 의견을 내면 되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제가 한 쪽으로 몰아가는 댓글 중에서 쯔반대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해 '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

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런것 같아요.

15. 네. 음,,,,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그걸 보고 '사람이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댓글을 단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요.

16. 네, 옛날에 연예인 주지훈 사진이 되게 많았는데, 웃긴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 왜그래, 되게 웃긴다' 라고 글 쓴 적이 있었는데 옆에 팬이 있었나봐요. '님, 말 너무 심하게 하시네요'

이러면서 거의 한 5개가 댓글이 달린거예요. 그 팬들이 과민반응 보여서 어이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17. 네, 사진 같은 것에 '이쁘다' 이정도요.

18.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적이 있어요. 어찌다 한, 두명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써요.

19. 글썄요,, 전 확인을 안하는 편이라 잘 모르겠어요. 쓰긴 하는데 쓰고 지나가고 그래서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20. 저는 아는 친구들한테만 댓글을 달아서 그 친구들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아요.

▣ 남이 쓴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댓글 쓴 것을 본 적이 있나요?

1. 무응답
2. 무응답
3. 연예인 욕하면 똑 욕하고, 계속 이어져요
4. 기사 같은 거 쓰면요 기자가 어이없는 거 쓰잖아요. 미니홈피 보고 기사 쓰잖아요 기자 안티라고 해서 기자 욕하는 거 쓰는 거 봤어요.
5. 블로그에 이웃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붙었는데 계속 블로그에다가 안부 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테러를 해요. 그럼 원래 일대일 싸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인맥을 불러서 범위가 커지면서 대규모로 공격해서 이웃이 블로그를 폐쇄했어요.

6. 많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희야가 피아니스

- 트로 나왔을 때요. 어떤 사람이 ‘희야’ 보니까 못생겼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이...수십명 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말을 썼는데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네 엄마가 그런 식으로 가르쳤냐’ 라고 쓴 걸 많이 봤어요.
7. 위트 있고, 재치 있는 댓글 많잖아요. 비유나 그런 댓글에... 머리를 탁 치게 만드는 댓글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8. 주로 반대적인 의견이요... 여론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대 의견을 들고 나오는 그런 댓글을 주로 보는데요.
9. 맨날 보죠.... 촛불집회 관련된 거... 정권비판, 이MB 바이 이런 거...
10.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좋게 좋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태클을 걸어요. ‘특 년 뭐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번 것은 정말 별로인데’, ‘이건 아닌데’라고 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댓글을 쪽쪽 달다가 싸워요.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 중에서도.
11. 잘 못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쓴 게 아니라서...
12. 친구들끼리 장난 식으로 하는 걸 봤어요. 만약에 사진을 보고서 ‘정말 잘 나온 것 같지 않냐?’ 하면 다른 친구가 욕하고...
13. 이상한 사람들이 자기 관심 받으려고 터무니 댓글을 달아요. 정말 길게 썼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반어법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내용이고, 사람들이 댓글다는 것 보면 정신병원 전화번호를 복사해서 다는 거예요. ‘거기로 전화해 보라’고... 하여튼 사람들이 웃기게 달아요. (게시물 올린 사람의) ‘다른 글 보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의 그게 짝 나와요. 성격이 딱 나와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욕먹을 만한 댓글을 달아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즐겨하는 것’ 같아요.
14. 네, 많아요. 제 머릿속엔 거의 다 반박하고, 안 좋게 말하고, 욕하고 그런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나요. 반박하는 것은요... 동조하는 것은 ‘아 맞다.’ 이런식의

로 하는데 반박하는 것은 모 되
게 좋게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
고, 그냥 욕만 쓰는 사람들도 있
고요.

15. 네, 진지하게 토론 하는 건 괜
찮은데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
해지면 사람들이 욕도하고 그러
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상
식이 없냐?’ 이런 식으로 하는거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16. 네. 웃긴 댓글 달면 ‘님 짱이
셈’, ‘나도 공감’, ‘1빠, 2빠, 3빠’.
이런거요.

17. 네. 연예인 사진 찍어서 올린
것 밑에 욕 써놓은거요.

18. 네. 뉴스기사 중 의상 패션쇼
같은 거에서 본적 있어요. 한쪽
은 ‘멋지다, 멋있다’ 이리케 남
기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스타
일이 뭐가 예쁘냐, 촌스럽다’ 이
렇게 써 놓은 거 본적 있어요.

19. 네, 제가 연예인 좋아하다 보
니 다른 팬들과 충돌이 있는데
댓글로 싸우거나 그런 정도요.

20. 네. 연예인에 관한거요. 요새
연예인이 말 조금만 잘못해도
그에 관련해서 기사가 뜨자나요.
그 밑에 달려있는 악플들 본적
있어요.

㉮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게시물(댓글)에 댓글을 달았을 때 기분이 어땠
나요?

1. 당연히 좋죠. 그런데 주로 미니
홈피에서 일기 쓰거나 사진 같
은 것 올리고 네이버 같은 데는
뉴스기사 같은 거 보기만해요.

2. 저도 좋은데 제 친구들이 제 싸
이에 와서 사진 밑에 댓글 달아
주면 저도 좋아서 그 친구 싸이
에 가서 달아주고 그래요.

3. (무응답)

4. (무응답)

5. 그냥 보고 간 것보다는 좋고,
악플 달면 짜증나고...

6. 제가 올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람
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음
에 반영할 수 있으니깐... 댓글을
다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
는데요. 가끔 제가 올린 것에 대
해서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
거든요.

7. 대개 재미있어요 내가 말하는

- 것을 직접보고 듣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로 제 얘기를 공감할 때도 있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대개 재미있어요.
8. 안달린 것보다 기분이 좋죠... 특별히 욕만 안쓰면 상관은 안해요.
9. 댓글 내용에 따라서 다르죠. 재미있어서 웃으면서 한 적도 있어요.
10. 저는 그냥 반응 올라오면 기분 좋던데 나쁜 말이 많으면 안좋을 수도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싸이월드는 친구들끼리 달아주는 거니깐 욕을 해도 장난식이니깐 제 별명 가지고 그런 식이니깐 댓글이 많이 달려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애들이 나한테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1. 좋죠... 제가 올린 것에 대해 사람들이 봐주고, 그것에 대해 반응을 했다는 것이 좋죠.
12.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봐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요.
13. 네. 몇 개라도 달리면 좋으니깐. 댓글 아예 없는 것보다 낫죠.

14.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해주면 한 건 했다?라는 뿌듯한 기분도 드는데요. 괜히 욕 하는거 보면 아휴, 그건,,,, 옛날에 이외수의 ‘하악하악’이란 책을 보면 “악플을 달 때 뇌에 드릴을 뚫어서 개념을 주입한 후 다시 ‘다십시오’라는 경고창을 뜨게 하면 그대는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게 딱 떠오르고요. 좋게 반박해 주면 저도 이거 쯤 더 생각해 보고 쓸 걸 이란 생각해요.
15. 음,, 당연히 보면 기분이 좋아요. 없는 것 보다 낫자나요. 근데 저는 제가 쓴 글에 대해서는 악플에 별로 신경을 안써요. 그냥 누군가 내 글을 읽고 반응을 보인게 중요한 것 같아요.
16. 좋은 이야기이면 기분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 잠시 인터넷 소설카페 작가여서 소설을 올렸었는데 ‘되게 신선해요’, ‘재미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았는데, 약간 비판하는 글 보면 기분이 약간 나빴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글이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17. 그냥 좋아요. 만약 안좋은 댓글이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해요.
18. 고마워요. 무시하는 댓글도 있지만 제 댓글을 하나의 글로 들어주니깐 그게 고마워요. 반박해 주는 것도 고맙고, 지지해주며 좋게 평가해 주는 것도 고맙고 그래요. 안 좋은 댓글을 볼 땐 그냥 그런가 싶어요. 반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게 옳지

않은 거라면 좀 별로인데 별거 아니라면 그냥 넘겨요.

19. 일단 제가 쓴 것에 반응을 해서 기분은 좋아요. 공감해줄 때 기분이 좋아요. 만약 안좋은 댓글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로 별 생각은 안해요.
20. 좋게 달아준 댓글이라면 기분이 좋아요.

☞ 부모/형제/친구들이 학생이 댓글 다는 것이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는 표현한 적이 있나요?)

1. 무응답
2. 무응답
3. 무응답
4. 무응답
5.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이셔서 평소엔 컴퓨터 할 때 잘 없는 편이시고, 누나는 옆에서 좀 보기도 해요... (누나가) 보기만 하기도 할 때도 있고, 댓글 보고 초딩 같다고... 다르게 쓰라고 하기도 하고...
6. 있어요.... 동생이요. 제가 댓글 다는 것을 보더니 '왜 그런 식으로 다냐'는 거예요... 제가 그 때 친구들이 장난으로 농담한 걸 가

지구요. 다른 애들은 '뭐 이런 것을 하냐'면서 약간 비판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말라고 바른 말 썼더니 그 애(동생)가 비판하려면 '약하게 하지 말고, 딱딱 해야지' 더 센 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아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안보세요. 신경을 안쓰세요.

7. 아니요.
8. 아무래도 엄마, 아빠는 나이가 많으시니깐요.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대해 잘 모르시죠. 엄마가

- 가끔 제가 이런 것(댓글)을 하는 것을 보면요. 비판적인 글을 쓰면요. 뭐라고 하세요.
9. 딱 한번 있어요. 3년 전쯤예요. 마음에 안드는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익명으로... 그런데 큰 언니가 그것을 본 거예요. 어이없게도.... 너인 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우라고... 그런데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쳐서 결국 못지웠죠.
10. 그냥 별말 안해요. 그럼 친구도 같이 달아요. ‘어... 나도 해야지’ 그런 적은 있는데 댓글 단다고 ‘중독자냐. 그런 거 왜 하나’ 하는 것은 없어요.
11. 나쁘게 달지만 읽으면 그렇게 상관은 안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말하는 거면 별로 상관은 하지 않아요.
12. 없어요.
13.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뭐 그렇구나’ 정도, ‘아 그 때 기억난다’ 정도...
14. 아니, 없어요.
15. 근데 별로 부모님이나 형제들하고는 인터넷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서로 관여를 안해요. 그리고 친구들도 별로.. 제가 댓글을 많이 다는 편이 아니라 별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없어요. 부모님은 인터넷 하는 거 보면 인터넷 하지 말라고 하시고 혹시 댓글을 달면 말 조심해서 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16. 아빠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하시면서, 신조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빠는 못 알아 들으시니까. 욕 같은거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욕을 하냐고, 다 되돌려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 아니요, 없어요.
18. 아니요. 그냥 별 이야기 안해요. 만약 어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댓글에 쓰는 것에 뭐라고 나오긴 하는데 별로 없어요.
19. 아니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20. 아니요.

㉮ 댓글 때문에 부모(가족) 친구와 갈등(혹은 문제가)이 생긴 적이 있나요?

- | | |
|---|--|
| 1. 없어요. | 13. 대체 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
| 2. 없어요. | 14. 네, 친구가 되게 장난식으로 악플을 다는 것 보고 쯤 ‘그러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
| 3. 없어요. | 15.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이 많았어요. 아무리 장난이여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런거요. 동생 이었는데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그 때 동생이 철이 좀 덜 들었어나봐요. 막 여기저기 그냥 악플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악플도 아니고 그냥 욕하는 그런?,, 제가 그 거보고 엄청 혼냈는데 동생이 재미있는데, 내가 이러고 다니는거 아무도 모르는데 누나가 무슨 상관이냐고 뭐라고 하는거 예요. 그래서 그때 혼냈던 적이 있어요. |
| 4. 없어요. | 16. 조금 말다툼했어요. 그냥 다들 그러는데 왜 그래. 이러면서.. |
| 5. 누나랑 싸운 적도 몇 번 있었어요... 누나의 블로그에 글을 쓸게 있어서 댓글을 달고 그랬는데 안 좋은 내용을 달아가지구용. 예전에 제가 중국에 혼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심심해서 (누나 블로그에) 아무 게시판에 욕을 써놓았어요. 집에 왔더니 누나가 때려가지고... 그래서 싸웠어요. | 17. 아니요, 없어요. |
| 6. 그런 적은 없어요. | 18. 아니요 없어요. |
| 7. 그런 적도 없어요. | 19. 아니요, 없어요. |
| 8. 말다툼까지는 아니구요. 그냥 하지 말라는 식으로... | 20. 아니요, 없어요. |
| 9. 선생님 홈페이지에다가 욕을 올린 적이 있어요. ...(언니가) 엄마한테 말하고... 그 때는 이해가 안갔는데... 지금은 이해 가요... 그 때는 애들이 많이 올렸거든요. | |
| 10. 그런 것도 없어요. | |
| 11. 없어요. | |
| 12. 없어요. | |

㉮ 자신이 혹은 남이 쓴 댓글 때문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1. 없어요.
2. 없어요.
3. 네. 저는 혼자서 욕하고 잘 다녀요
4. 없어요.
5. 없어요.
6. 없었어요.
7. 없어요.
8. 그런 적은 없어요,
9.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니구요.
왜 너희도 욕 올렸는데..나만 뭐
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그냥 언
니 욕...
10. 없어요.
11. 없어요.
12. 없어요.
13. 없어요. 아... 다른 사람은 본
적 있어요. 제 친구가 연예인이
랑 이름이 똑같은데... 그런 것

- 본 적 있어요. 그런 것 많아요.
너무 유명한 연예인 말고, 어느
정도 유명한 연예인 이름하고
똑같은데 (미니홈피에서) 써가지
고 다른 사람을 오게 한 다음 투
데이 수(방문자수) 늘리게 하는
것 있죠. 그런 것을 막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욕을 하니
깐, 사람들이 너무 욕하니깐 게
시판 다 닫고, 그래서 1년 동안
못쓰고....
14. 아니요.
 15. 그런 적은 없어요.
 16. 그런 적은 없어요.
 17. 없어요.
 18. 아니요 없어요.
 19. 아니요, 없어요.
 20. 아니요, 없어요.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1. 당연히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실명으로 하고 있구요.
이상한 욕 같은 거 쓰는 거 막
으려면 실명제를 해야하지 않을
까요?
2. 실명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
으려면...
3. 실명제 해도 쓸 사람은 쓰잖아
요....
 4. 나쁘진 않는데 어차피 욕할 애
들은 다 욕해요.

5.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안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 그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깐... 그런 사람들만 없으면 실명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6. 사람들이요. 자꾸 가명으로 인터넷을 쓰니깐요. 심한 욕을 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난다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말을 쓰는데 덜해질 것 같아요.
7. 실명제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게 아니라...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이나 무턱 대고 비난을 하는 사람은 관리자나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 건 괜찮아도 모든 사람이 아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8.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냥 욕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에 욕을 쓸 때는 실명제를 도입해서... 욕을 써도 누군지 모르니깐 ip 모르면 반박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깐 그럼 심리에 의해서 막말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 이름이라는 정보를 얻게 되니깐 좀 막말을 자제하겠죠.
9. 인터넷 실명제 되어도 지금이랑 ㄴ변함이 없을 꺼라고 생각해요. 주소나 휴대폰 번호가 옆에 딸려 있어야 좀 효과가 있지, 실명제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10. 그것은 하면은 댓글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깐 자기별명 같은 닉네임을 했으면 아예 못바꾸게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실명제 보다는 못바꾸게 했으면... 그리고 그 사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닉네임을 쓰는데 그 사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요.
11.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점은 개인 정보가 새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무리 댓글을 달아도 유출할 수 없고, 나쁜 점은 아무래도 익명성을 이용해 악플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그게 나쁜 것 같아요.
12. 싸이월드에서는 괜찮은 것 같

아요. 1촌 아니면 별로 피해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보완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완되어 있지 않으면 좀 그런데... 보완되어있으니깐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싸이월드가 아니면 좋은 이유보다는 나쁜 이유로 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id 쓰고 하면 잘 못알아볼 수 있잖아요. id를 쓰고 나쁜 얘기를 쓰면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id를 쓰면 막말하고 실명제를 쓰면 제한돼서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못할 것 아니에요.

13. 좋은 것 같아요. (질문 : 어떤 면에서?) 앎튼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니깐 조심하게 되죠. 이상한, 쓰잘때기 없는 글을 달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생각해보고 달겠죠. 나한테 무슨 영향이 올건가.

14. 처음엔 적극 찬성이였는데요. 솔직히 같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굳이 큰 효과를 볼 것 같진 않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그걸 하면 사람들이 자

기 이름을 걸고 뭘 한다는 생각 때문에 댓글 다는데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했어요. 적어도 찬성.

15. 괜찮은 것 같아요. 익명으로 하면 아무래도 말을 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이버나 다음보다 싸이월드는 실명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악성 댓글이 별로 비율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실명제가 되게 괜찮다고 느꼈어요. 자기 이름 달고 쓰는 건데 아무렇게나 쓸 수 없잖아요.

16.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새 연예인들 그런걸로 상처 많이 받고, 또 너무 막말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힘들어서 자살도 하고. 제 친구가 싸이를 하는데 다른 친구 위로해 준다고 댓글로 개 왜 그러니라고 썼는데 다른 친구가 본거예요. 그랬더니 로 그오프로 들어와서 욕을 하고, 누군지 모른 상태에서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니홈피를 일촌, 비공개로 해놨어요. 그런적이 되게 많아서 실명제 해야 할 것 같아요. 모른다고 너무 막말해

- 요. 부모님 욕도하고.
17. 네..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 이름을 쓰니 대놓고 아무
말이나 못하잖아요.
18. 네. 물론 좋은 쪽으로 쓰이게
개방하면 함부로 사람들에게 욕
설이라든지, 이상한 글을 쓴다
든지 하는 것이 자제될 것 같아
요. 당당하다면 자기 마음껏 글
을 쓴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별
로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19. 실명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단 실명제를 하게 되면 지금처
럼 악플이나 이런 걸로 고민하
지 않을 것 같구요, 자기가 쓴
댓글엔 책임을 져야하니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20. 그렇게 까지,,, 실명제 까지는
아닌거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보가 공개되고, 모르는 사람
들끼리 대화하는 건데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을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되니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댓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 심한 댓글이요. 악플 같은 거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악플 때
무에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제
가 알기로는 모든 악플 들이 초
등학생들이 단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다가 연예인들은 상처
많이 받잖아요.
2. 악성 댓글이요. 그리고 욕 같은
걸로 댓글 쓰고...
3.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시달리
다가 죽고 그랬잖아요... (연예
인) 나오기만 하면 욕하는 사람
들, 왜 컴백했냐고 욕하는 거 있
잖아요.
4. 부모 욕하고 알지도 못하는 연
예인들의 인격을 욕하는 거요.
잘못도 없는데 기사만 보고 욕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5. 악플이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상처 받고 자살할 정
도....
6. 사람들이요. 연예인 기사 같은
거 올라오고 하면은요. 그 사람
을 동정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조건 비판적으로...
슬픈 얘기가 나와도 이제는 이
런 것 까지 한다고... 지난 번에
연예인이 자살하고 했잖아요.

-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악플 다는 것...
7. 테러, 댓글 테러요...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을 사람들끼리 댓글로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심리로... 그런 것들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8. 일단 막말이죠.... 예를 들면 막말 때문에 상처입고, 자살도 하잖아요. 그게 다 얼굴 안보인다고 그냥 안보인다고 나오는데로 말을 하니깐 보는 사람 입장에서서는 그걸로 상처 받을 수 있겠죠.
9. 신분 파악이 안되는 거. 익명성보다도... 그래서 막말하는 거요.
10.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괜히 이거 뭐 쓴다고 공감대가 형성되가지고 그 사람 말만 믿고 쪽이어가면서 이 애의 말만 믿고.... 갑자기 만약에 뭘하는데요. 내 의견은 이것이 아닌데 이것을 보니깐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을 써놓았는데... 딱 보면 그런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 그러네' 하고 나도 악플을 써요, 그런 게 쪽쪽 이어지다 보면은 악플이 대개 많아지거든

요.

11. 악플이요... 음.... 악성댓글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악플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악플이 안좋은 것 같아요.
12. 막말
13.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고, 나중에 보면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 죽고 그러잖아요. 김다빈인가, 유니도 그렇고 '애로 배우냐' 하면서 진짜 심한 욕하잖아요. 그런데 실명으로 하면 누가 그렇게 심한 욕을 하겠어요. '싫다'이 정도지. '띠띠' 욕하면서 무슨 년 하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조심하게 되잖아요. 실명제를 하면 사람들이 조심하게 되고, 비방하는 글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14. 사람들이 아무생각 없이 되게 가볍게 쓰고 그게 하나의 여론조성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요즘은 리리플 쓸 수 있자나요. 한사람이 되게 가볍게 '아, 싫다.' 이러면은 '22,333,444' 이런식으로 쓰

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다’ 이렇게 쓰면 또 ‘222, 3333, 444’ 이런식으로 하는게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상처 되는 말 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쓰는게 않 좋은 것 같아요.

15. 일단 얼굴 안보고 말하는 거랑 막 말하고, 모 그거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크고 중요한 것 같아요.
16. 말한 것처럼 상대방 기분 생각 안하고, 너무 몰아세우거나, 욕 하거나, 물론 그 사람도 잘못된 것도 있지만 너무 몰아세우는

거요. 한사람을 백명이 몰아세우는 거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17. 상대방을 생각안하고 자기 생각만 쓰다 보니 말을 막 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18. 광고요. 크게 문제는 안되지만 댓글의 흐름을 끊는 것 같아요.
19. 악플이요.
20. 공인들에 대한 악플들과, 댓글 쓰는 사람들끼리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심한들 말까지 써가면서 싸우는거요.

㉮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인터넷을 쓸 때는 실명으로 하구요. 악성 댓글 같은 거 안쓰는 거예요.
2. 실명제요.
3. 인터넷 실명제요.
4.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어린 애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욕 쓰고 그러잖아요.
5. 에티켓 같은 것 힘쓰고, 웬만하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

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관리자한테만 실명을 공개한다던가 그리고 악용하면 인터넷에서 사이트 체크라고 있는데 19세 이상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충했는데 80개 정도 밖에 안나왔는데 두달에, 세달에 한번 정도 의무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6. 다른 사람들이 악플을 올리면은요. 맞장구 쳐주는게 아니구요.

그 사람을 반대를 해주는 거죠. 사정이 있으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악플을 계속 맞장구 쳐주고, 이어지지 않게 그러면 되지 않을까....

7. 댓글은 익명이고, 막는다고 안 들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자제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개인으로선 제일 나을 것 같아요.
8. 일단 스스로부터 막말을 하면 안되겠죠.
9.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쓴 댓글을 누군가 보니까 알아서 격식을 차려야 하죠.
10.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제 느낌을 쓰는 것이 댓글이지, 그것 읽고, 내 것 읽고 비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무 것도 모르고 쪽쪽쪽 쓰는 말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11. 일단 나라도 좋은 댓글을 달아서 기분 상하지 않게 하고, 일단

악플을 단 사람을 비판하고 그 래야겠죠.

12. 자기 의견을 홈페이지 올리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글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올리는 거죠.
13. 저라도 비방을 하지 않겠다, 저라도 제 이름 대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달겠다... 이 정도.
14. 뭘 쓰든 간에, 익명이라고 막 쓰는게 아니라 한번 더 생각하고 이게 저 사람한테 쯤 상처 줄 수도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한 마디 한 것 때문에 되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썼으면 좋겠어요. 가볍게 쓰고 엔터 치면 끝! 이게 아니라.
15. 일단 가까운 사람들부터, 제 동생의 경우처럼 막 댓글을 생각 없이 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걸 틀렸다고 말해주고 주위 사람부터 바꿔 나가야죠. 제가 인터넷으로 캠페인을 벌인다는지 그런 큰 힘은 없는 것 같아요.
16. 댓글을 달기 전에 한 번 더 생

각하기요. 상대의 기분도 생각하여 욕 안하고 달기요. 17. 글썄요. 잘 모르겠어요. 18. 그런 것에 관련 된 글을 올리면 바로 경고 당하든지, 바로 삭제당하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고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안되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곳에서 글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렇게요. 19. 앞으로 안쓴다 그 정도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20.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안써서.
---	--

☞ 댓글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1. 악플 같은 거 달면 사이버 수사대가 있잖아요. 그런 악플 못달도록 수사해서 벌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2. 사이버 수사대가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 하면 처벌 받는다고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 심하게 하는 사람은 사이버 조사에 잡아 가는 거죠. 4. 벌금하는 것을 2-3만원 하지 말고 더 크게 하는 거죠. 2-3만원 이니깐 또 하잖아요. 심한 벌금을 매기면 안할 것 같아요. 5. 만일 인터넷 실명제를 한다면 정보가 유출이 안되면서 실명제를 할 수는 없나? 그리고 보안이	강화되면 해킹을 차단할 수는 없지 않나... 그런 거요. 6.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실명제하고, 악플 다는 사람 추적, 하는 사람들 인력을 투입해서요. 그것을 보면서 악플 다는 사람 추적하고, 그 정도는 국가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7. 사이버 테러나 아직까지는 현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처벌이 많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구요. 캠페인을 꾸준히 해서 깨끗하게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8. 저는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9. 이름 옆에..아니..그게..우리 못봐도 상관은 없는데 사이버 경찰
---	--

들은 볼 수 있게 해놓아서 주소랑 번호를 옆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경찰들을 많이 해서 비방글 그런 글 올리면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봐서 전화해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니깐요.

10.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도 가입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이메일이나 msn 같은 쪽지로 경고를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사이버 수사대가요. 사비어수사대가 경고를 대응이 안되다 그러면 강한 처벌을 가해야겠죠. 댓글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한다던가... 이쪽 사이트에 접속을 못하게 한다던가...

11. 욕을 쓰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욕이 안써지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악성 댓글을 달면 벌을 줘야죠... 실제로는 벌을 줄 수 없으니깐 불이익을 줘야죠. 회원 탈퇴를 시키던지....

12. 사이버에 대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안된다라고 심하지 않게, 간단하게, 피해가지 않도록...(질

문자 : 그런 법이 있어요) 그게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라면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인식이 별로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3. 당연히 실명제 도입도 하고, 기사도 질이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기사도 악성 댓글을 유발하는 기사들도 있잖아요. 허접한 뉴스도 그렇고, 기자들이 돈 벌려고 대충 기사를 몇 개 때워야 되고, 빨리 기사도 써야 되는데 대충대충 쓰고,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그것을 알잖아요. 그게 언론이 좋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러니깐 기자들도 잘 선별하고, 정부에서 기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4. 인터넷 실명제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나라가 인터넷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비해서 교육량이 되게 안 따라 주는 것 같구요. 형식적이라고는 해도 형식적으로라도 배워놔야 그게

나주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15. 일단 실명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반대의견도 많고..그래서 일단 회원가입 안하고는 댓글을 쓸 수 없게 하든가, 댓글 쓸 때마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6. 댓글 많이 달아서 피해가 생기면 적은 사람에게 벌점을 줘서 많이 받으면 벌금 내기요. 인터넷 실명제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기 이름이 있으니 막말 못할 것 같아요. 17. 인터넷 실명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실명제로 했으면 좋겠어요.	18. 글쎄요. 분명히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의 댓글을 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한해서 가입하기 힘들게 만든다든지, 리스트를 만들어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19. 지금 하려고 하는 인터넷 실명제 정도요. 실행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부분적 말고 모든 사이트에서요. 20. 명제 까지는 안가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악플을 다는 사람을 보면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윤리책이나 그런 곳에 자세하게 깊이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	--

㉮ 댓글이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1. 무응답 2. 무응답 3. 무응답 4. 무응답 5. 네. 예를 들어서 릴레이라고 사람들이 그냥하는 건데, 한 사람이 달고 그게 재미있어지면... 보통 한번 달고 끝나는데... 새로	고침해서 다른 사람이 또 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심심해서 댓글을 그냥 달면 다른 사람이 다음 이야기를 생각한대로 달고,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6. 중독성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만약에 친구들과하고

댓글 가지고 논쟁을 한다거나
그러면 중독성이 있을지도 모르
겠는데요. 저는 의견만 달고 하
는 거다 보니깐 중독성 같은 것
은 크게 못느껴요.

7.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대개 재미
있거든요. 현실에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얘기를 잘못하잖아
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인터넷에
서는 익명성이 있으니깐 자유롭
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
분에 있어서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8. 달다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보고 있
다,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관
심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쓰
게 되는 것 같아요.

9. 네. 사람들이 반응 보여줄 때,
계속해서 올리게 되요.

10. 중독성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달면 딴 사람이 보고 달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확인하러
갔다가 그것을 달면, 내가 달고
쭉쭉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서 궁금해져요 아니면 내가 올
리고 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올렸지 보면...네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을 쓰겠죠. 내 말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궁금
해서 또 들어가서 또 보고... 그
런 식으로 중독성이 있다고 생
각해요.

11.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댓
글을 달고, 또 댓글을 달면 댓글
을 달고... 이런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다고
봐요.

12. 답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자
기 의견을 알 수 있으니깐 (질문
: 그런 경험이?) 온 적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쓰는 것도 재미
있구요.

13. 아까 말했는데 (댓글) 관심 받
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 댓글 보면 10페이지 정도 댓
글을 달더라구요. 다른 글 보기
하면 1,2,3,4,...10페이지 정도 해
가지고 똑같은,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구요. 보면 거기에 단 댓
글은 사람들도 댓글을 많이 달
더라구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기고, 즐거워하니깐 중독성이
있는 것 같아요.

14.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한 글을
보고 한 댓글을 달고, 한글을 보
고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하
거든요. 그럼 글을 계속 보고
'아, 여기에 무슨 댓글을 쓰지?'

-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댓글을 바라기도 하니까요.
15. 네, 일단 쓰는 사람들은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가끔 댓글 보다보면요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이디를 클릭하면 이 사람이 쓴 다른 글 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보면 다 이상한 내용이에요. 이상한 내용을 쓰는 사람은 계속 이상한 내용을 쓰는 것 같아요.
16. 네. 자기 의견 다는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장난으로 다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끼리 장난으로 댓글로 대화가 된 적이 있어요.
17. 아니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서 중독성 같은 것에 대해 확실히 모르겠어요.
18. 네,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박하다보면 다음날 글 썼는데 같이 반박하는 사람이 안들어와 있으면 다음날 켜서 들어가서 확인 할 것 같고 이렇다보면 중독성이 생길 것 같아요.
19.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해요. 댓글은 어차피 자기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니깐 그걸 중독이라고 까지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20. 네, 가끔 댓글 보면 같은 아이디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댓글 쓰는 사람들은 중독성이 있으니까 계속 쓰는 것 같아요.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 문 진 ◆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매체환경과 · 과장
민경식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팀장
박은정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 단장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과 · 교수
정 완	경희대학교 법학과 ·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과 · 교수

연구보고 08-R12-1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인 쇄 2008년 12월 22일

발 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이명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2263-5087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978-89-7816-751-2

ISBN 978-89-7816-749-9(세트)